

기억지킴 자서전

나를 찾아 떠나는
기억 소풍

일곱 어른들의
일곱 빛깔 인생 이야기



김춘자 박수자 신혜수 이두연
정광호 정용운 조남운



성북구치매안심센터

성북구치매안심센터는

성북구보건소 산하기관으로 2007년 6월
개소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조기검진, 치매등록관리 서비스,
지역자원 연계 등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
발견 및 재활, 진행 단계별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사업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등록관리사업

지역자원강화사업

인지건강센터(치매환자 쉼터)

기억지킴 자서전

나를 찾아 떠나는
기억 소풍

일곱 어른들의
일곱 빛깔 인생 이야기

김춘자 박수자 신혜수 이두연
정광호 정용운 조남운

발행처 성북구치매안심센터

발행인 유승호 (성북구치매안심센터장)

총괄 이선미 (총괄팀장)

기획 김지숙 (지역자원강화팀)

편집 김예빈

그림 김지연 원지선

참여자 김춘자 박수자 신혜수 이두연 정광호 정용운 조남운

글쓰기 고희승 김수연 김시연 김유진 노현정 박수연 박준혁

송세영 송혜선 유요셉 유테레사 윤은선 정채현

기억을 만나러 가는 길



프롤로그 8

인생은 아름다워 | 김춘자 10

- 문경에서의 어린 시절 12
- 작은아버지의 은혜 17
- 살기 위해서 힘을 기르다 22
- 사랑꾼 남편과의 만남 25
- 새로운 재능을 찾다 29
- 내 삶을 돌아보며 33

고생 끝에 낙이 온다 | 박수자 40

- 시련의 시작 42
- 나와 너무 비슷한 그 남자 45
- 이웃집 할머니들의 은혜 48
- 다리를 다친 아들과 아버지 51
- 얹혀사는 신세, 드디어 탈출! 55
- 아들의 사춘기, 엄한 아빠가 된 신랑 57
- 장위동 짜장면 원정대 60
- 가족이 주는 행복 64
- 마음의 문을 열어준 봉사 67
- 고생 끝 값진 행복 71

사랑과 베품으로 웃고 울었던 날들이여 | 신혜수 76

- 아름다운 청천리와 그곳을 뛰어다니 심부름 소녀 78
- 한옥 지붕 아래를 꼭 채운 우리 가족 83
- 두려워 말고, 원하는 미래를 향해 88
- 나눔의 미덕(美德) 92
- 나의 벼들에게 94
-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들판 남편 99
- 보물 같은 아이들 104
- 성실로 들끓던, 뜨거운 그 시절의 “궁미 치킨” 107
- 치매도 막지 못하는 나의 원더풀 라이프 111

눈물은 시야를 가릴 수 없다 | 이두연 120

- 들어가며 122
- 여자라는 이유로 125
- 나도 무언가가 되고 싶었다 128
-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 133
-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함 136
- 코 베인 서울 139
- 모든 순간이 좋았다 143
- 고마운 사람들 148
- 소중한 물건들 152
- 마치면서 156

함께이기에 아름다운 인생 | 정광호 162

- 일대기 요약 164
- 나의 학창 시절 166
- 따뜻한 봄날의 만남 그리고 결혼 169
- 나의 교직 생활 이야기 173
- 삼형제와 자녀 교육 신념 176
-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가족 181
-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며 185

지나간 모든 순간에 대한 그리움의 회고 | 정용운 192

- 나의 젊은 시절, 나의 노래 194
- 부조리의 시련 203
- 후회 서린 나의 사랑 212
- 마지막 도약 224
- 끝맺으며 233
- 감사했던, 그리고 감사한 사람들에게 235

‘나’라는 꽃을 피워내기까지 | 조남운 238

- 언제나 그리운 유년 시절 240
- 전쟁과 함께 찾아온 고난 245
- 초등학교 졸업 후 249
- 이별과 만남 252
- 굶힐 수 없던 나의 의지 255
- 나의 전성기, 가족 재단사 260
- 인생의 선물 같은 자녀들 266
- 늘 자상했던 남편에 대하여 271
- 아직 지지 않은 꽃 275

잊혀가던 당신의 시간을 기억하며

뜻하지 않은 코로나 19 시대를 살아가며, 외부와 교류가 어려운 어르신들과 정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뜻 있는 청년들과 함께 어르신들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1·3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 격려해 주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긴 『기억지킴 자서전』이 만들어졌고, 치매 어르신들의 희미해져 가는 삶의 기억을 재조명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자신 없어 하셨던 어르신들께서 인터뷰가 시작되자 마음속에 꾸욱 눌러 놓았던 내면의 이야기들을 수줍게 꺼내며 환하게 미소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으로 설움이 복받쳐 눈물 보이기도 하며, 나를 찾아 떠난 기억 소풍은 이러한 희노애락(喜怒哀樂)의 과정들마저 소중했습니다.

을 봄부터 준비해 온 인터뷰와 원고 작업들이 열매를 맺는 가을에 마침내 『기억지킴 자서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진행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정방문, 전화, 온라인(ZOOM)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며 하나의 원고를 완성하기까지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의 숨은 노력이 많았습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기억 소풍: 기억지킴 자서전’을 통해 고군분투했던 어르신들이 삶을 회고하며, 나를 기억하고, 기억해 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 책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분의 어르신들과 재능기부 봉사자(글, 그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치매라는 어려움을 희망으로 극복하며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빛나는 앞날을 응원합니다.

2021년 10월 성북구치매안심센터

인생은 아름다워

.....

김춘자

어렸을 때 힘들었던 만큼 나는 더 단단해졌으며
오히려 지난날의 나를 다독이며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지금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



- 문경에서의 어린 시절
- 작은아버지의 은혜
- 살기 위해서 힘을 기르다
- 사랑꾼 남편과의 만남
- 새로운 재능을 찾다
- 내 삶을 돌아보며



● 문경에서의 어린 시절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몇 번이고 필연적으로 설움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잃게 되거나,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해야만 할 때. 혹은 무언가를 계기로 하여 기존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는 했다. 내가 유년기를 보낸 고향이나, 사정으로 인해 새로 정착한 다른 장소. 혹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하늘은 한 치의 다를 바도 없이 푸르렀다. 그 꾸준함은 위로가 되었다. 잃어버리고, 잊은 것들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하늘이었다.

나는 문학소녀였다. 글을 쓰는 것은 즐거웠고, 주변 환경은 언

제나 샘솟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나의 고향은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다. 경북 문경군 점촌읍, 나의 어린 시절과 꿈의 기원은 그곳에서부터 비롯되었다. 2남 3녀의 대가족 사이에서도 화목하고 서로서로 아끼는, 그런 이상적인 가족이었다. 셋째였던 나는 가운데에 굳건히 서서 일종의 기둥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집은 점촌 초등학교의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어려서부터 공부에 대한 열망이 남달랐다. 희망으로 가득 찬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고 있노라면 못할 것이 없을 것만 같았고, 그건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집의 사정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을 하고,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나의 행복을 조금씩 원고지의 위에 옮겨 담기 위한 꿈을 키웠다. 문학은 나의 즐거움이나 마찬가지였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어머니가 좋았고, 굳건히 지키고 서서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처럼 우리를 지켜주는 아버지가 존경스러웠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던 아버지의 방패는 태풍 앞에 속절없이 휩쓸려 자취를 감추고야 말았고, 나는 나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펜을 들기도 전에 절필해야만 했다. 집안 사정이 점차 어려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은 쌀장사를 주로 했으며, 만주에 쌀과



소를 내다 팔고는 했다. 쌀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양식 중 하나였고, 거기에서 오는 자부심은 무시할 게 못 되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적어도 아버지가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고모부는 우리 아버지를 대신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 기차를 탔다가, 물건 판 돈을 전부 노름에 탕진해 버렸다. 고모부는 돈도 물건도 전부 날린 뒤 그대로 잠적했다. 그 이후로 가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더는 이전과 같은 풍족한 생활을 기대하지 못하게 되었다. 사정은 점차 어려워졌고, 항상 집 안에 가득 차오르던 웃음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자연히 글에 보이던 관심도 멀어져 갔다. 그보다 더 각박한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어린 내가 감당하기에는 무척 버거웠다. 그 시발점은 들이닥친 불행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쇼크로 사망한 어머니였다. 집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는 우리 가족의 불행을 강하게 붙들고 좀체 놓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내가 처음으로 겪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엄습했다. 그 이후로 나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가세가 기울어지니 당연하게도, 더는 이전과 같은 삶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소중한 가족과 헤어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변화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생겨났다. 새어머니가 우리 남매를 찾아온 것이었다. 두 명의 딸과 함께였다. 급격히 바뀐 가족 관계에 적응하기란 녹

록지 않았으며, 설상가상으로 그 정도 규모의 가족을 전부 책임질 형편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새어머니는 우리 남매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나이는 어렸지만, 그 사실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특히 식사할 때는 자신의 두 딸만 돌보는 탓에 배를 굶은 날이 늘어났다. 그럴 때면 밥을 얻어먹기 위해 열여덟의 나이에 시집간 언니네로 염치 불구하고 남동생의 손을 잡고 문경새재를 넘었다.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해야만 하는 현실에 처해 있었다. 무척이나 서러웠으나, 목소리를 낼 힘이 나에게는 없었다.

새어머니의 구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새어머니는 최대한 나를 집 밖으로 내보내고 싶었는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밭에 가서 고추 따와라, 밭에 물 주고 와라, 산에 가서 나물 캐와라, 쭉 뜯어와라.... 콩쥐팥쥐에 나오는 계모도 새어머니보다는 덜했을 것이다. 하루는 커다란 항아리를 주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라고 시킨 적도 있었다. 그 시절에는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고 그 걸 다 같이 썼다. 새어머니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물을 떠다 놓으라고 학교 가기 전 이른 아침에 나를 내보냈다. 그때 내 나이가 11살인가 12살이었다. 어린 애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큰 항아리에 물을 한번에 다 채우겠는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우물과 집을 몇 번이나 왕복한 뒤에야 학교에 갈 수 있었다.

악착같이 버티려 했던 노력이 무색하게도 결국 나는 정든 집에서 나와야 했다. 슬펐으나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일말의 믿음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나의 옛된 기억이 남아있는 집에서 나와 작은아버지의 수양딸로 떠나게 되었다. 그제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아직은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감내해야만 했던 일들이었다. 무척이나 서러웠지만,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만한 이가 없었다. 모두가 힘들었고, 자연히 나는 나의 고통을 억눌렀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리화하는 수밖에는 없었다.

그 이후로 문학에 보이던 열망은 잠시 접어둬야만 했다. 그렇다

고 해서 나의 의지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었다. 태풍이 몰려 올 때 더욱 잘 버티는 것은 굳건한 소나무가 아니라, 유연하게 바람결을 따라 몸을 구부려 바람을 흘려보내는 갈대였다. 나는 금세 다른 길을 찾아냈다. 바로 공부였다. 다행히 이전부터 공부에 재능을 보였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 사실만큼은 달라지지 않았다. 컨디션이 좋지 못하더라도 70점 이상은 무조건 나올 정도로 공부에 재능을 보였다. 결과가 눈으로 나타나니 더욱 관심을 보였고, 자연스럽게 공부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다시 펜을 들었다. 다만 이번에는 나의 머릿속에 있던 상상의 세계를 글로 펼쳐내는 대신 내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데 집중했다. 그렇게 장애물을 하나씩 격파하는 감각은 이후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었다.

절망의 무게는 무겁고 희망의 무게는 가볍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때마다 절망도 배로 뒤따랐다. 가끔은 그것을 견디기 힘든 순간도 종종 찾아왔다.

공부시켜주겠다던 작은아버지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더욱 노력했다. 나는 우리 남매 중 가장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작은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를 데려와 공부시켰다. 당시 중학교 선생님이었던 작은아버지가 어린 시절 나의 아버지가 공부를 도와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내게 그 선행을 물

려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작은어머니는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였다. 당시 작은아버지도 이미 자식이 여섯이었다. 당연히 나보다는 당신 자식들을 더욱 감싸고돌았기에, 나는 자연히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동등한 위치의 자식이 아니라 외부인에 불과했다. 나이가 많지 않았음에도 그 사실을 모를 수는 없었다. 작은어머니는 내게 사용하는 돈도 무척이나 아까워하는 눈치였다. 그 집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뒤, 작은아버지는 중학교도 졸업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었으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작은아버지의 아들이 대구로 유학하러 갈 때 작은아버지는 나에게 기술을 배울 것을 권유했다. 당시 내가 14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일 때였는데 2학기로 넘어가는 시기였다. 나는 어느 정도 배울 만큼 배웠으니 살아갈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사촌이 대구로 유학하러 갈 때 함께 대구로 가기로 마음을 굳혔다.

대구에서도 새 삶을 시작하기란 무척이나 막막했다.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 시절은 시도 때도 없이 머릿속에 떠올라, 그리움을 떨칠 수가 없었다. 마치 공주님이라도 된 것처럼 예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마르지 않는 상상의 샘물에 묻혀 살던 그 시절이 자꾸만 나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더 이상

그때의 그 시절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서서히 대구에서의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나아갔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빠질 것은 없을 거라며 자신을 위안했다.

이제는 추억처럼 회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당시에는 처절한 현실이었다. 우리 남매는 어쩔 도리 없는 상황 속에 뿔뿔이 흩어져 어려운 나날들을 보냈다. 지금은 전부 자리를 잡은 지도 오래고, 모두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어렸을 적의 고통이 내포되어 있다. 대구에도, 일산에도 내 가족들이 그 고통을 전부 이겨내고 가족을 꾸려 살아가는 중이다. 나와 손을 꼭 붙잡고 밥을 얻어먹으러 가던 남동생은 부자가 되어 자기 집이 생겼고 뿌리를 내린 지 오래다.

나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졸업장조차 없는데도 남동생의 총명함을 알아본 대서소의 직원이 남동생이 공부하도록 환경을 마련해 준 덕택이었다. 거기에 노력이 보태어져 지금은 무척이나 대성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동생이나 언니, 그리고 나 모두에게 남은 어렵던 시절의 기억은 이따금 예고도 없이 출몰해 나를 다시 아홉 살의 어린아이로 만들어 버리고는 한다.

고향에는 아직도 아픈 기억과 상처들이 아물지 않고 남아서 나의 기억 속으로 보란 듯이 침투한다. 아픈 기억과 추억이 공존

하는 그 장소에서, 나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거듭 반복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우는 날보다 웃는 날이 더욱 늘어났다. 삶의 의미를 되찾았으며, 소중한 사람들이 생겼다. 그 시작점이 바로 대구에 있었다.

대구에서 다시 희망을 손에 거머쥐기 위해 노력하면서, 나의 삶은 비로소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 살기 위해서 힘을 기르다

대구로 전학 갔을 때 나는 낯선 장소에 익숙해질 틈도 없이 양재 학원에 들어갔다. 국제양재학원이었는데, 그곳에서 디자인을 배우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했다. 카탈로그를 보면서 최대한 따라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만 한다면 내게도 다시 기회가 찾아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문경에서 빈말로라도 순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배운 것은 노력 밖에 없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나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전학 초기에는 무척이나 힘들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문경에서만 살았던 나는 우물 안 개구리나 마찬가지였고, 내가

낮선 환경에 적응하기를 기다려줄 정도로 세상은 친절하지 않았다. 덜 배웠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과 부끄러움도 남아 내가 이곳에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을지, 걱정도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늘어졌다. 이제는 정말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주저앉아 겁만 내고 있을 시간은 없었고, 그렇게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몸을 일으켰다.

비록 중간에 그만뒀다 해도 글을 쓰고, 공부하면서 유연해진 나의 머리는 양재 학원에서도 빛을 발했다. 기본기를 주로 배우며 몇 년 동안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관한 것들을 학습했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습득력이 높아 나는 처음 하는 일 같지 않게 학원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결과물을 줄곧 선보이고는 했다. 노력이 바로 나의 재능이었다. 그 재능을 알아본 선생님은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바로 양장점에 취업하는 것이었다. 대구에 와서 일을 배우기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주어진 기회였다.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대구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전에 얻었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한 결과였다. 일할 때만큼은 그때의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내가 취직한 양장점은 대한극장 근처에 있었다. 그때의 내가 바로 열일곱 살이었다. 언니가 결혼한 것도 내가 취직할 때와 비

슷한 시기였으므로 더욱 감회가 새로웠다. 더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변에 속절없이 휩쓸리기만 하는 어린아이가 아닌, 정말로 어른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동시에 양장점의 직원이 된 것은 내가 이제는 어엿한 ‘서울 사람’이라는 표식이기도 했다. 서울의 때가 묻은 재화를 내 손으로 직접 벌어 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였다. 물론 마냥 순탄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학원에서 배운 것과 일하는 방식이 달라 애를 먹거나, 혼이 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다행히 양장점의 사모님과 학원 선생님이 친밀한 사이여서 큰 문제는 없이 넘어가고는 했다. 그렇게 서울에 뿌리를 내리며 고향에서의 구박받던 서러운 기억을 서서히 잊어갔다. 그러나 그때의 상처는 남아 이따금 불쑥 떠올랐다.

양장점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은 단순히 일의 내공만은 아니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 처세술, 그리고 생존술을 모두 그곳에서 학습했다.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었고, 어떤 때는 너무나도 힘들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내게 찾아온 쓰라린 성장통이었다. 나는 기어코 성공하겠다는 집념 하나로, 나를 괴롭게 한 모두에게 보란 듯이 잘살아 보겠다는 마음가짐만을 가지고 악착같이 버텼다. 끈기는 내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나 마찬가지였다.

남편은 당시 내가 일하던 양장점 주인이 남편에게 나를 소개해 주면서 만나게 되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나를 무척이나 아껴주었다. 나를 위해주는 그 모습에 점차 더 마음이 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우리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별다른 연고가 없어서 더 힘들었던 서울 생활에서 남편은 내가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되어주었다. 남편은 언제나 나를 존중해주었다. 그러한 남편의 배려가 너무나도 고마웠다. 그가 없었더라면 나는 진작 무너졌을 것이라고, 지금까지도 종종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함께 서로의 마음을 더 깊게 만들어나가던 어느 날, 남편이 나와 결혼하고 싶다며 자신의 부모님, 그러니까 지금의 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자고 말했다. 나는 결혼하자는 말에 심장이 터질 것처럼 기뻐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다. 나는 중학교 졸업도 하지 못했고 고아나 다름없는 신세였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나를 좋게 봐주실지 무척이나 걱정되었다. 다행히 걱정했던 시간이 무색하게 시부모님은 나를 좋게 봐주었다. 내가 고향 집을 떠난 이후로 살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온 상처와 흔적을 알아봤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시아버지는 시골에서 돈을 조금 가지고 오셔서 우리 부부를 위해 집 한 채를 마련해 주었다. 길동에 있는 작은 한옥집이었지만 마냥 좋았다. 사기를 당해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있지 못했던 나날들마저 추억처럼 여겨질 정도였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가지는 ‘우리’의 집. 마침내 얻은 내 가족. 남편의 존재가 꿈만 같았다. 더군다나 남편은 중앙대학교 출신이었다. 반강제적으로 학업의 길이 끊겨 중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하고 끝마쳐야 했던 나와는 달랐다. 그런데도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귀한 보석 다루듯이 행동해 이따금 낮간지러운 기분도 들었다. 눈치만 보다가 결국 공부마저 하지 못하게 된 과거의 설움이 남편을 만나 대신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해주었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가 없이는 한시도 살지 못할 정도의 사이로 발전했다. 나는 그렇게 다시 웃음을 되찾아 가고 있었다.

남편은 사랑을 숨기지 않고 온몸으로 표출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 중앙일보에 취직해 다니던, 일종의 엘리트였다. 그런 사람이 나를 한 시간이라도 더 보고 싶다는 이유로 직장을 박차고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그 정도로 남편은 나를 존중하고, 좋아해 주었다. 결혼한 지 50년이다 되어가는 지금도 남편은 나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안 보이면 꼭 나를 찾는 등 여전히 나를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다.

시부모님이 길음동에 집을 한 채 사주셨을 때, 우리는 집 근처에서 튀김 가게를 물려받아 튀김 장사를 시작했다. 튀김이라는 방법도 모르면서 무작정 시작했으므로 장사 초반에는 걱정도 많았다. 정말 고맙게도 튀김 가게 주인이 가게를 넘기면서 약간의 방법을 알려주었다. 본격적으로 가게 문을 연 뒤에는 오징어튀김을 비롯해서 새우튀김이나 고구마튀김, 채소튀김, 통닭 등을 주로 판매했다. 기름에 튀김을 튀기기 시작하면 온 동네에 고소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고, 튀김을 구매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다.

튀김 장사를 통해 내가 꽤 장사 수완이 있음을 깨달았다. 남편

도 내가 새로 찾은 재능을 꽃피우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렇게 상황은 조금씩 안정되었고, 그곳에서 첫째 아들을 낳았다. 사랑의 결실이었다. 이대로 행복에 목이 매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따뜻한 온기는 평생토록 잃지 못할 것이다.

아이가 생기고 장사를 하기 힘들어지자 우리는 튀김 장사를 접었다.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 옛날에는 길음동을 인수동이라고도 불렀다. 비가 오면 장화 없이는 걸을 수 없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우리는 인수동에서 리어카를 몰고 다니며 길음초등학교 부근 가파르게 경사진 길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한 판매 품목은 바로 과일과 채소였다. 리어카에 제철 과일과 고추같은 채소들을 날라 판매하는 일이었다. 길거리에 리어카를 두고 목이 터지고 손발이 다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했다.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인지, 그때에는 무척 장사가 잘되었다. 우리 리어카에 든 물건이 전부 팔려야 다른 장사꾼들의 장사가 조금 되기 시작할 정도였다. 남편도 나도 그 작은 성공에 취해 게을러지지 않고 일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전부 사용해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리어카를 몰아 위치를 바꿔가며 종일 일을 한 탓에 몸은 고되고 근육이 아팠으나 보람만큼은 가득했다. 손님이나 지나가는 사

람들도 어린 나이에 남편과 함께 일을 하는 나를 좋게 봐주었다. 아마 그것도 우리의 과일 장사 성공에 한 몫을 톡톡하게 했을 것이다.

장사하다 보면 종종 어릴 적 생각이 났다. 부유하던 우리 집, 쌀과 소를 팔아 우리에게 풍족한 삶을 주던 부모님. 비록 이제는 돌아가지 못할 과거라고 하더라도 그때의 기억은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곳에서의 내가 있어서 지금의 나 역시 존재하는 법이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몰아닥친 가난은 끝내 나를 집 바깥으로 내몰았다. 하지만 나는 기어코 상처를 딛고 일어났으며, 기회를 손안에 거머쥐었다. 그래서 더더욱, 장사를 통해 모든 돈으로 누구의 간섭도 들어오지 않을 우리의 집을 얻어냈을 때 몰려오는 기쁨이 남달랐다.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감사하게도 아들 둘을 얻었다. 말 그대로 축복이었다. 하지만 예전에는 지금과는 달리 풍족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데 적잖이 힘을 쏟아야 했다. 배를 끓는 날도 많았고, 단칸방에서 살다 보니 답답함도 많이 느꼈다. 가난 탓에 아이들에게 제때 하루 세끼 먹이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장 서러웠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기억을 떠올리다 보면, 지금이 마치 축복
과도 같이 느껴지고는 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집
과 가족들, 아들들도 자신의 짝을 찾아 새 가족을 꾸리는 모습.
그 모든 것이 큰 기쁨이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노
력에 대한 결실이었다.

앞에서 몇 번 언급했듯, 나는 정말 어렵게 살았다. 현실이 막막하고 고되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해, 그 현실을 타파하고자 열심히 살았다. 그 덕택인지 지금은 아주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노후 대비로도 우리 단지 아파트 집 한 채와 대학가에 원룸 몇 개를 가지고 있다. 가끔 옛날 일을 회상하다 지금의 집을 둘러보고 나면 ‘아,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이 정도면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나는 우리 남편과 둘째 아들과 며느리, 손주까지 다섯 식구와 함께 살고 있다. 남편은 지금 근처 대학가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아들 내외는 집 근처에서 과일 가게를 나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아침저녁으로 내가 내려가서 과일을 밖에 내놓고 들어오면 아들과 며느리는 낮에 일하는 식이다. 아들이 나를 닮아 그런지 장사에 재능이 있어서 어느새 20년이 넘게 과일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다.

큰아들은 지금 인천에서 살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지금 대기업의 높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하더니 회장도 하고 남편과 똑같이 중앙대를 나오기까지 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올바르게 자라줘서 얼마나 고맙고 기특한지 모른다. 큰 며느리는 씩씩한 성격으로 항상 나와 남편을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는 것이 느껴져서 언제나 고마운 마음이 든다.

같이 사는 둘째 며느리에 관한 설명을 해보자면 딸이 없던 우리에게 생긴 딸 같은 존재이다. 평소에 나와 남편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데 처음에는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은 친근하게 다가와 줘서 좋다. 며느리는 키도 체구도 작은 편이다. 그래서 과일 장사하는 데 힘이 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괜한 걱정이었다. 15kg짜리 무거운 과일 상자도 번쩍번쩍 드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작은 몸에서 어떻게 저만한 힘이 나오는지 그저 놀랍고 대단할 따름이다. 아들과 며느리가 과일 가게에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손자를 거의 기르다시피 했다. 내 손자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키도 크고 잘 생겨서 인기가 많은데 사춘기도 없이 착하게 자라줘서 얼마나 예쁘고 고마운지 모른다.

나는 내 인생이 아주 파란만장했다고 생각한다. 가끔 내가 중학교만이라도 졸업했다면 내 인생에 대해서 직접 수기를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곤 한다. 물론 그 당시에는 사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배웠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작은아버지의 지원을 계속 받기에는 눈치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게 그때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래도 가세가 기울지 않았더라면 더 오래,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 가끔 상상하곤 한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 중학교까지 학교에 다니고, 양재 학원에 다니며 기술을 배울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작은아버지의 은혜 덕이었다. 먹고 살기에 바빠 인사를 드려야지, 드려야지 생각만 하다가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 전에 부산에 사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시는지 아직 별 연락이 없다. 내 나이가 벌써 73이니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다. 일찍 찾아뵈었어야 했다는 후회가 들지만,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 장사하다 보니 가게를 오래 닫을 수 없어 가족 여행도 가까운 경기도나 강원도 시댁 쪽에 당일치기로 갔다. 하물며 그 먼 부산까지 가려고 하면 이틀 정도 가게를 닫아야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가게 문을 잠시 닫고 갔다 오는 편이 더 마음 편했으리라 생각한다. 내가 살면서 생긴 수많은 아쉬운 것 중 이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

만약 내가 젊었을 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양장점을 하나 차리고 싶다. 내 첫 직장이 양장점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여성복 전문 양장점을 차려서 옷을 만들고, 손님이 내가 만든 옷을 입고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기만 해도 뿌듯하고 행복하다. 지금은 배운 지 오래되어 옷 만드는 방법을 많이 까먹었지만,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꼭 양장점을 차리고 싶다. 그리고 작은아버지께 찾아가서 지금까지 학교와 학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인사를 드릴 것이다.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 마냥 힘들고 어두운 줄만 알았던 인생이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의외로 복이 많은 삶이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한 순간에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줬으니 말이다. 어렸을 때는 작은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내가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었다. 가끔 어렸을 때 힘들었던 기억이 다시금 떠올라 슬퍼질 때가 있지만 지금은 괜찮다. 어렸을 때 힘들었던 만큼 나는 더 단단해졌으며 오히려 지난날의 나를 다독이며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지금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

자원봉사 작가 후기

..... 김유진

글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써 왔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대신 적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렇기에 더욱 진귀하고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다.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더라도 인터뷰를 통해 간접적으로 어르신의 삶을 체험하고, 그 시절을 최대한 구현해내기 위해 노력하며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보던 그 순간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이며, 앞으로 내가 글을 쓰는 나날들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중간중간 여러 사정이 겹쳐 인터뷰를 여러 번 진행하지는 못했어도 충분히 의미 있는 나날이었다.

언제나 글을 쓰는 것은 어렵다. 내가 옳은 길을 달리고 있는 게 맞는지 끊임없이 의심하며, 확신 없는 순간들을 거듭 반복한다. 이번 봉사를 하면서는 나와 함께 글을 쓴 친구나, 여러 조언을 주신 담당자분, 그리고 흔쾌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어르신이 있어 조금이나마 자신감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었던 것 같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하고, 더욱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몇 달간의 일들이 이제는 전부 하나의

경험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후기를 작성하고 있다.

나는 앞으로도 글을 쓸 것이며, 언젠가 그것은 나의 자서전이 될 지도 모른다. 이 순간도 그때가 되면 내 이야기의 한 문단을 차지하리라 생각한다.

오랜 시간 함께해 준 모두에게 감사하다. 자서전은 이렇게 종지부를 찍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채 이어져 나가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이후의 이야기마저도 글로 풀어볼 수 있었으면 한다.

자서전이라고 하면 대단한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고 내가 겪지 않은 일들을 글로 옮긴다는 것에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글을 써나갔다. 인터뷰할 때도 어디까지 물어봐도 괜찮은지, 이 경험을 어떻게 글로 표현해야 할지 깊게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 그런 시간에 비해 내가 어르신的人生을 고스란히 담아내지 못한 것 같고 괜한 사족을 붙인 것은 아닌지 자책하게 되었던 것 같다.

인터뷰하면서 정말 재미있고 즐거워서 다음 만남을 빨리 잡고 싶어지기도 했다. 나도 어르신 덕 근처 초등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동네 지리를 알고 있었는데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동네의 옛날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본 것 같아서 무척 즐거웠다. 그리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인터뷰해 주신 어르신께 정말 감사하고, 과일이나 마실 것을 챙겨주려고 해주셔서 감사했다고 전하고 싶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먹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배불렀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 ● ● ●

박수자

내 인생을 보며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일 것이다.

고생 끝에 온 낙, 그것이 더 값진 행복일 것이다.



- 시련의 시작
- 나와 너무 비슷한 그 남자
- 이웃집 할머니들의 은혜
- 다리를 다친 아들과 아버지
- 얹혀사는 신세, 드디어 탈출!
- 아들의 사춘기, 엄한 아빠가 된 신랑
- 장위동 짜장면 원정대
- 가족이 주는 행복
- 마음의 문을 열어준 봉사
- 고생 끝 값진 행복



● 시련의 시작

나는 1943년 경기도 광주군 광주면, 시골 마을인 해동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전매청에서 일하시는 공무원이셨고, 새어머니와 농사를 지으셨다. 어렸을 적 나는 형제들과 산 있는 시골에서 놀고먹으며 부족함 없이 자랐다.

하지만 8살이 되던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집안의 상황이 달라졌다. 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전매청으로 출근을 하셨고, 나는 출근하시는 아버지를 문 앞에서 배웅했다. 아버지는 숙직 날이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다. 그런데 하필 그날 전매청 금고에 있는 돈이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당시엔 CCTV도 없어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하

였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아버지가 지게 되었다. 아버지는 돈을 갚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급한 대로 땅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살던 집마저 팔아넘겨 우리 집은 경안으로 이사를 가, 남의 집에서 셋방살이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 집은 하루 아침에 망했다.

나는 학교 갈 나이에 학교에 가지 못하였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학교를 못 간 사람들을 선발하여 교육을 해줬다. 나는 동네 이장님의 추천으로 ‘국민반’에 다니며 공부를 하게 되었다. 국민반에서는 나이, 형편에 상관없이 모두 열심히 공부하였다. 좋았다. ‘배움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다. 하지만 형편이 더욱 어려워져 그마저도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한글만 약간 깨우치고 10살의 어린 나이에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다. 베를 짜는 공장이었다. 처음 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심부름을 하는 일밖에 없었다. 오랜 기간 공장 직원들의 심부름을 한 끝에, 나도 기술을 배워 베 짜는 일을 하게 되었다. 결혼 전까지 오랜 기간 한 공장에서 일하며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다. 특히, 안성에서 온 여자와 친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아주 많이 도와주었다. 나는 여유가 없어 종종 밥을 먹지 못하고 끼니를 걸렀다. 내색을 안 한다고 했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 친구가 이를 알고 때때로 먹을 것도 사주고, 자신의 먹을거리를 나눠주며 나를 챙겨주었다. 친구

가 고마웠지만, 나는 내성적이라 고마움을 잘 표현하지 못했다.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 시절 나는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희망도, 절망도 없는 시기였다. 내 마음이 힘드니 주변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나 먹고살 걱정만 했다. 사는 게 힘들었다. 휴식의 공간이 되어야 할 집에서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였다.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질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버지는 동네 분의 소개로 재혼을 하게 되었다. 새어머니는 하루아침에 네 명의 자녀가 생겨, 나와 형제들을 돌보게 되었다. 새어머니는 나와 형제들에게 잘해 주려고 노력하였지만, 서로의 뜻을 맞추기는 쉽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야단을 맞을 때도 많았고, 큰 소리가 날 때도 많았다.

아버지는 중간에서 누구 편도 들지 못하고 눈치를 보았다. 시간이 흐르며 정이 생겼지만, 여전히 새어머니 눈치가 보였다. 나는 공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하루하루가 힘듦의 연속이었다. 이 시절 힘들게 일하며 고생하면 서도 배불리 먹지도 못해 눈물 흘리며 슬퍼했던 기억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 시절엔 늘 힘들어서 결혼에 대한 별다른 가치관이 없었다. 그저 결혼으로 배불리 편히 살면 그만이다 싶었다. 장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사돈을 소개해줘 지금의 신랑을 만나게 되었다. 신랑을 만나보니 그와 나는 의지할 부모가 없는 점이 똑같았다. 그렇게 나는 근사한 결혼식 같은 거 없이 구식으로 결혼했다. 그때 내 나이 스물넷, 그의 나이 스물일곱이었다.

곤지암 근처 만선리로 시집을 가서 농사를 지었다. 결혼 후 1년 동안은 신랑의 사촌 형네 집에 얹혀살았다. 처음에는 그저 배불리 편히 살고 싶은 마음으로 결혼을 했으나 결혼하고 보니 결혼하기 이전과 다를 게 없었다. 여기도 없이 사는 곳이었다. 시

집와서 처음 생활할 때, 우리에겐 쌀 한 가마니와 그릇 두 개뿐이었다. 그래도 사촌 형네 얹혀서 사니까 살만하다고 느꼈다. ‘사람처럼 사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거 같다.

사촌 형네 집에서 살면서 우리는 의견 차이가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그런 것이 없었다. 있어도 서로가 내색하지 않았다. 얹혀살고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서로 침묵하며, 서서히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워 나갔다.

신랑의 사촌 형은 착한 사람이었다. 그 형이 만선리의 논을 네마지기 주어서 지금까지도 그 땅에 농사지으며 살 수 있었다. 안 줄 수도 있는 땅을 나눠주던 우리에게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그 땅 중에 일부를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쌀 한 가마를 받았고 그 쌀을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곤 했다.

처음 시집온 곳, 만선리에서 너무 빨리 임신을 해버렸다. 아이가 생겼을 때, 나는 울었다. 아무도 반겨 주는 사람이 없었다. 자신들 살기도 어렵고 바깥기에 챙겨야 할 입 하나가 더 생긴 것을 반가워하지 않았다. 하다못해 시어머니, 시아버지라도 있었

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보통은 축하받으면서 태어나는데, 나조차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첫 아이가 태어나던 계절은 봄이었다. 아이는 우는데, 그 주변은 너무나 고요했다. 나는 대야에 물을 담아 아이를 씻겼다. 그저 고장 난 선풍기가 좌우로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움직이는 바람 소리만 들려왔다.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아이의 탄생이 고요한 것이, 나는 무척이나 서러웠다. 나는 아이를 안은 채, 그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내 얼굴을 읽을 수 있었다. 아이를 보는, 기쁘면서도 슬픈 그 표정. 우리는 그 뒤로도 계속 같이 있으며 한 번도 떨어지지 않은 채 같이 살았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다. 까르륵 웃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아이를 보니 이렇게 좋은데, 부모님이 계셨다면 손주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라고.

이웃집 할머니들의 은혜

엄마가 된다는 것은 어려웠다. 처음엔 아기를 씻길 줄도 몰랐다. 우리는 물바가지 위에서 아기를 안고 안절부절 어쩔 줄 몰랐다. 물어볼 부모님도 없었다. 그래서 옆집 사람들에게 여쭙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웃 할머니께서 안절부절못한 우리를 보고는 직접 아이들을 씻겨주셨다.

아이를 씻기는 할머니의 등에서 순간 빛을 본 듯했다. 부모가 있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기도 했던 것 같다. 둘이서 맛벌이하다 보니 우리 집에 누가 밥해 줄 사람도 없었다. 신랑이 밥해주고 아기 씻길 줄은 몰라서 자주 해매곤 했다.

그렇게 막막한 시절이었는데, 이웃들 덕에 견딜 수 있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할머니. 아기를 씻기는데 씻길 줄 모르겠네.”라는 질문에 항상 한걸음에 달려와 주었다. 그게 나는 좋았다. 이웃사촌뿐이었다. 부모가 없어도 형제자매가 없어도, 옆에서 이렇게 잘해주는 이웃이 있어서 좋았다.

그러다 보니 이웃들과 친해졌다. 참으로 친하긴 친했는데, 그 은혜를 못 갚았다. 그후 우리가 서울로 오고 그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그저 살자.” 하며 그렇게 살다 보니 그 은혜를 못 갚았다. 나는 그 할머니가 보고 싶었고, 찾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먹고 살다 보니, 일하다 보니, 시골에 못 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못 갔다. 서로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한 번 가서 갚아야지 했는데 못 갚았다. 돌아가실 때가 돼서야 가봤는데 눈물이 많이 났다.

사실 맛벌이 하는 처지에 그 이웃들이 없었다면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때 그렇게 같이 아이들 보살피고 보리밥에 나물 넣고 비벼 먹던 게 어찌나 맛있던지. 이웃집 할머니께서 나를 보고 웃으며 “경안 닻, 밥 잘 먹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먹고 나는 은혜를 못 갚았다. 특히, 그 옆집 할머니께 참 감사했는데, 최근에 돌아가셨다. 그 할머니의 장례식에 가서 나는

참 많이도 울었다. 그랬더니 그 집 아들이 “아이고, 아주머니 그만 우세요. 왜 이렇게 울어요.”하고 물었고 나는 “옛날 나 배고팠을 때 할머니가 많이 도와줬네.”라고 답하며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 은혜를 못 갚았다. 이름도 몰랐다. ‘할머니’하고 그냥 그렇게 불렀다. 할머니께서는 날 보고 ‘경안 닻’하고 불렀다. 그 음성이 아직도 선명하다.

두 아이를 데리고 사촌 형네로 가서 잠시 얹혀살다가 나와서 만선리에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하지만 품팔이로는 애들 공부시키기가 어려웠다. 먹고 살 만은 했지만 공부할 여유는 못됐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온 것이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와서 신랑은 노동일을 하고 나는 파출부도 나가고 가정집 일하고 또 장사도 조금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 봤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됐다. 그러다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아 페인트칠하는 일을 다니면서 애들 공부도 시킬 수 있었다.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도 거기서나 여기서나 똑같이 고생했다. 일하다 보니 무릎이 안 좋아져 다리 수술도 하고 애들 공부시킬

때도 고생을 했다. 일하고 늦게 들어올 때면, 아이들은 배가 고파 자기네들끼리 밥을 해 먹었다. 요리를 못하다 보니 밥도 덜 익혀 먹고, 고구마도 태워 먹고는 했는데, 애들은 그게 맛있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은 다 애들 공부시키기 위해서였지만, 그 모습에 나는 속으로 아이들에게 참 많이 미안했다.

나는 다치는 것이 두려웠다. 내가 다치면 당장 필요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번은 사다리에 올라타서 페인트칠하다 밑에 발판이 빠지는 바람에 떨어진 적이 있다. 그때 죽는 줄 알았다. 페인트가 눈 위로 자꾸만 떨어져서 눈을 뜨지 못한 채로 넘어지고 말았다. 나는 그때, 아픈 것보다 돈을 못 벌까 봐 두려워했다. 우리가 맞벌이했기 때문에 집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한 번은 페인트 일을 다닐 때의 일이었다. 그때 작은아들은 늘 집에 혼자 있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 냄비에 물을 끓였다. 그리고 그 뜨거운 냄비를 옮기다가 물을 엮어서 다리를 데었다. 그 때문에 나는 한 보름 동안 일을 못하고 아들은 학교에 못 가기도 했다. 나는 그것들이 모두 다 내 탓인 것 같아 눈물이 났다. 챙겨주지 못해서 늘 미안했다. 신랑이 후에 노동일을 그만두고 정부 소속의 청소부 일을 하고 나서는

정기적으로 돈이 나오니까 나는 일을 가다말다 하며 아이들을 보살폈다.

다리 다친 아들을 보니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다. 부모님한테 미안한 것보다 원망이 많았다. 사실 지금까지도 원망스러워서 부모의 정이 없다. 그렇게 다들 일찍 돌아가시고 나는 계속 혼자였기 때문이다. 어떤 경조사를 맞이하건 간에 나는 혼자였다.

어머니는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얼굴도 잘 기억나질 않는다. 다만, 아버지는 불쌍했다. 결혼 후에 다 같이 서울, 사당동으로 올라와서는 아버지와 따로 살았는데, 아버지는 공장 청소 일도 하시고 차 고치는 가게에서도 일하셨다. 그러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내 나이 40대쯤이었다. 아버지께서 차에 타려고 차 쪽에 기대고 서 있었는데 어떤 차가 그쪽을 들이박고선 도망쳤다고 했다. 뺑소니라서 돈을 못 받아 병원 갈 돈도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친 다리를 질질 끌고 집으로 와서 일 년을 앓다가 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 당시에 나는 아버지와 따로 살았기에 새어머니한테 전해들은 얘기지만 덜렁거리는 한쪽 다리를 부여잡은 채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밤새 앓는 소리를 내셨다고 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며 나는 아버지가 참 불쌍했다. 당신 잘못도 아닌데, 금고를 도둑맞아서 집안사람들 눈치 보고, 일하고도

제값도 못 받는 삶을 사셨다. 새엄마 말로는, 밤마다 끔끔 앓고 매일 우셨다고도 했다. 공무원으로 편하게 살다가 그 고생을 하셨으니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다.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내 아들이자 이제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아들. 내 인생에 얹힌 두 남자, 아버지와 아들, 그 다리의 안타까운 흉터를 떠올렸다. 흉터는 오래 남겠지만 그것들은 나도 그들도 모르는 새에 과거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도 모르는 새에 슬픔이 되고 추억이 되겠지.

아이들에 관해선 미안한 일이 많았다. 미안한 것을 넘어 내 속이 상한 날도 많았다. 학교에서 하는 운동회, 소풍 때마다 내가 따라가곤 했는데, 남들을 보면 속상할 때가 있었다. 학원 이야기, 교육 이야기를 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는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들 학원 한 번 못 보낸 것이 미안하고 속상했다. 내 집이라고 방 한 칸 있는데 화장실이 없었다. 그래서 요강에 싸고 밤마다 버렸는데, 그 요강을 비우며 나는 속이 상했다. 남들 다 있는 화장실 없는 집에서 사는 것도, 밤중에 똥오줌을 버리는 내 처지가 참으로 불쌍하게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다. 공동변소를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어떻게든지 조금 누고 가려고 하고, 불일 보는 것에 대해 하도 신경을 쓰고 사니까 겨우 장만한 내

집이 원망스러워지기도 했다.

그렇게 맨날 화장실 없는 집에서 살다가 겨우 조그마한 산동네에 화장실이 딸린 집을 장만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맨날 남의 집에 살면서 시끄럽게 하면 그 집 사람들도 싫어할 것이 신경 쓰여 맨날 애들한테 조용히 해라, 싸우지 마라, 떠들지 말라고 꾸중을 하곤 했다. 엇혀사는 처지에 시끄러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늘 아이들에게 눈치를 주곤 했다.

그러다가 산동네에 방이 세 개인 집을 장만했다. 하나는 애들 주고 하나는 신랑이랑 내가 쓰고 그래서 남은 방 하나를 세냈다.

그런데 애들이 마당에 가서 노니까 그 옆방에 살던 할머니가 “애들 저거 조용히 좀 해라.” 그러자 그때 우리 애들이, “엄마 맨날 우리 시끄럽게 하지 말고 떠들지 말라고 하더니 이젠 내 집인데 왜 놀지도 못해요?”라고 얘기하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참 마음이 아팠다. 그간 엇혀살면서 애들은 얼마나 서러웠을까. 그 어린 나이에든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아이들의 서러움을, 나는 그제야 알게 되었다.

나를 찾아 떠나는 기억소품 ● 57

고 있던 사람 중, 병원에서 일하는 아줌마를 찾아가 우리 아들을 빨리 수술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다행히 그 사람이 부탁을 들어줘서 아들은 무사히 수술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놀란 것 말고는 애들 때문에 놀란 것은 없었다.

신랑은 아이들을 엄하게 키웠다. 바른말, 즉 아이들에게는 소위 잔소리 담당이었다. 신랑이나 나는 고생하면서 커서 흑시라도 아이들이 엇나갈까 봐 걱정이 많았다. 그래서 신랑은 아이들이 없이 자랐다면 남한테 무시 안 당하고 또 남한테 폐 끼치지 않게 하려고 무진장 엄하게 키웠다. 아이들에게 지난 고생담들을 들려주고, 친구 사귀는 거 조심하고 항시 거리를 뒤라, 술·담배, 도박하지 말라 등의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 중, 고생했던 이야기를 할 땐, 신랑이 ‘자기 인생에 비하면 너희들은 호강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하곤 했는데 그럴 때면 아이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다. 아이들도 너무 없이 살아서 오일장 같은 게 열려도 먹고 싶은 것 하나 제대로 못 먹었기 때문이다. 자기들도 없이 자랐기에 그런 삶을 호강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튼 그렇게 신랑은 그런 아이들을 엄하게 키우려 했다.

그리고 그런 시도는 어느 정도 성공한 듯 보였다. 아들의 친구가 “너희 아버지 무서워서 너희 집 못 놀러 가겠다.”라고 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다. 나중에 다 커서도 손녀딸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버지가 술·담배 안 해서 집이 좋다.”고 했으니 말이다. 지금도 신랑은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술·담배를 안 한다. 아마 아이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하지만 술·담배를 안 하고도 지금은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고 있다. 약을 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죽을 때까지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한다. 술·담배를 안 하고 애써 살아온 결과가 이것이라니. 나는 그를 보며 새삼 서러워지기도 했다. 참 열심히 살아온 양반인데.

장위동 짜장면 원정대

아이들 뒷바라지와 공부를 시키려고 신랑과 둘이 계속 일을 하러 다녔다. 우리는 우리대로 고생이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고생이었을 것이다.

신랑이 청소부(환경미화원)를 하던 당시에는 수레를 직접 끌며 힘들게 일을 해야 했다. 그때는 오토바이 같은 것도 없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갔다 오면 다른 친구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도 놀지 않고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가서 수레를 뒤에서 밀어주며 일을 도왔다. 종종 나도 일을 안 할 때면 신랑 일을 도와주곤 했다. 쓰레기를 빨리 안 치우면 민원이 들어와서 청소부 일을 관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랑의 청소일로 아이들 공부

도 시키고 가족들이 먹고 사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밥줄이나 마찬가지였다. 정부의 소속으로 청소 일을 하는 것이기에 나라에서 학자금 지원도 해주었고 우리에게는 소중한 일자리였다.

우리 아이들은 참 착한 아이들이었다. 한창 친구들과하고 가서 뛰어놀 나이인데 힘든 줄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다녔다. 신랑이 아이들에게 “밖에 나가 놀아.”라고 말해도 “아버지가 힘든데 어떻게 나가요.”라고 대답하며 계속 일을 도와주던 아이들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참 안쓰러웠다. 애들도 놀 때 놀아야 하는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아이들은 곳곳이 자기 아버지의 수레를 뒤에서 밀어주며 일을 도왔다.

나 역시 계속 일을 다니다 보니까 애들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준 것이 없었다. 우리 애들은 학원도 한 번 못 보냈다. 그래 놓으니 할 말이 없었다. 다른 부모들은 아이들을 여기저기 학원을 보낸다고 하는데 나는 아이들 학원을 제대로 보내준 일이 없어서 할 말이 없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쉬는 날에는 틈내서 아버지 일도 도와주며 살아왔다. 풍족하지 않게 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까지도 고생한 것 같아 마음이 안쓰럽다.

신랑은 청소 담당 구역 일부를 맡아 그곳의 쓰레기를 모두 책임지고 수거해 와야 했는데, 그곳이 장위동이었다. 그렇게 일을



도와주고 나면 배가 고프니까 애들 아버지가 장위동의 중국집에 들러 짜장면 한 그릇씩을 사주곤 했다. 그 짜장이 무어라고, 배불리 먹으니 그렇게 좋다고 입가에 짜장을 잔뜩 묻히며 맛있게 먹는 아이들이었다.

장위동의 짜장면 원정대처럼 우리는 일이 끝나면 항상 장위동 어디든 발길 닿는 곳에 있는 중국집에 들러 짜장면을 먹곤 했다. 아이들과 어디 좋은 곳에 여행을 가본 적은 없지만, 그 시절 맛있게 먹었던 짜장면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진다.

마치 장위동으로 원정을 떠나 곳곳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 가져오는 임무를 마친 뒤, 짜장면 한 그릇을 맛있게 먹는 일정으로 장위동 중국집을 탐방하는 것 같았다. 몸은 힘들었지만, 아이들과 행복한 시절이었다.

● 가족이 주는 행복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에 충실히 임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탓에 학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는 못한 것이 항상 미안했다. 두 아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여 대학 입시를 준비할 시기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큰아들이 뛰어나와 대학 합격 소식을 들려주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뻐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여 대학에 합격한 것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잠자리에 들 때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내 인생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그리고 몇 년 뒤 작은아들도 대학에 진학하였다. 행복했다. 두 아들은 대학을 졸업

하고 취업을 하였으며 어느새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되었다. 큰아들은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하며 분가하게 되었으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손주들을 보며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도 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일하느라 바빠 학교 행사에 자주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손주들 학교 행사에는 참여하여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었다. 손주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고 동시에 나는 늙어갔다. 그리고 몸이 좋지 않아 더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부족한 살림에 돈을 번다고 신랑과 나 모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결혼할 때만 해도 쌀 한 가마니밖에 없었는데도 우리가 집도 마련할 수 있었다. 나에게서는 대궐 부럽지 않은 집이었다. 집도 있고 먹고살 정도가 되니 몸이 말썽나기 시작했다. 고생하면 없던 병도 생긴다고. 퇴직하고 보니 몸이 성한 곳이 없었다. 그중 귀가 가장 문제였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는 물론 ‘○○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을 모른 척 지나치자,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나를 모른척하냐?”, “왜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하냐?”, “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며 오해를 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럴 때마다 너무 속상했다. 내가 왜 이럴까,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울기도 많이 울었다.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어 보청기를 했다. 그런데도 내 귀가 내 귀 같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잘 들릴 때도 있고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있었다. 보청기가 귀 안에서 자리 잡고 있으니 귀가 아프고 고름도 자주 났다. 청소도 자주 해줘야 하고 여간 불편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또 듣지 못하고 지나쳐 쓴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양쪽 모두, 집에서는 한쪽만 번갈아 끼며 나 나름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내가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매번 되묻는 것이 미안하고 속상하기만 하다.

고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았던 것은 가족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두 아들과 남편은 지금까지 일하며 고생했다고 환갑잔치를 열어주었다. 뷔페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사진도 찍으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기분이 좋았다. 가족들을 보며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느낌도 들었다. 사람들의 축하 속에 환갑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다.

인생을 살아오며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났지만, 나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는 없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닌 시절, 나는 앞집에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다. 앞집 친구는 나에게 항상 친절했다. 서로 고민, 속상한 일 등을 털어놓으며 의지하게 된 너무 좋은 친구였다.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나는 힘든 상황에서도 땀을 흘려가며 모은 돈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돈을 빌려주고 얼마 안 돼 그 친구는 이사를 가버렸다. 다행히 이사 간 곳을 알았다. 친구를 찾아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친구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다음에 다시 찾아갔을 때, 친구는 또 이사를 가고 없었다. 그 후로 친구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신랑이 마음 아파할까 봐 말하지도

못하고 나 혼자 끙끙 앓았다. 돈도 돈이었지만 친한 친구의 배신이 나에게 큰 상처로 돌아왔다. 나는 그렇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다시 연 것은 다름이 아닌 ‘봉사’이다. 나 스스로 돈도 벌고 먹고 살 여유가 있으니 자연스럽게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났다. 부녀회에서 봉사하며 폐지도 줍고 물건도 팔고 김치도 담갔다. 지금은 부녀회에서 봉사하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사람들을 조금씩 도와주며 베풀고 있다. 근처 남은 박스들을 가져와서 박스를 줍는 할머니들께 드리고 지나가는 아이들을 볼 때면 먹을 걸 하나씩 챙겨주고는 한다. 나 또한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인지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늘 베풀려고 한다.

봉사를 통해서 성북구치매안심센터와도 인연을 맺게 되었다. 어느 날 옆집 할머니 딸이 할머니를 모시고 센터에 가 달라며 부탁을 했다. 그 센터가 성북구치매안심센터였다. 옆집 할머니를 통해 센터를 알게 된 것을 시작으로 몇 년 동안 봉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나 또한 기억이 깜박깜박하고 가물가물해져서 봉사를 그만두고 센터를 다니게 되었다.

학창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한글도 잘 몰랐던 나는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이곳에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다. 매주 나눠주는 인지 훈련 학습지에 한글을 적으며 연습을 하는데, 처음에는 삐뚤빼뚤 초등학교 1학년이 쓴 글씨 같았다. 연습하다 보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글자를 글로 쓸 수 있게 되었고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공부 말고도 운동과 다양한 활동,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즐거운 시간은 나의 삶에 활력을 가져다주었고, 현재 내 삶에 빠질 수 없는 일부가 되었다.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 같다. 집안이 망하기도 했고 몸이 아프기도 했다. 어렸을 때는 내 인생은 왜 이런 걸까 하며 한탄을 하기도 했고 남의 탓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 결국 ‘고생 끝에 낙이 있었다.’ 살면서 큰 목표는 필요하지 않았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다. 그저 가족들이 잘 사는 것.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았고, 헤쳐나가다 보니 낙이 온 것이다. 그때그때 눈앞에 닥친 것들을 헤쳐나가며 살다 보니 낙이 있었다.

누구나 인생에 고비인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먼 미래

를 걱정하며 잠 못 드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항상 현재에 충실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남들이 뭐라고 해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내 집도 장만했고 사랑하는 아들들도 잘 키웠다. 내 인생을 보며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일 것이다. 고생 끝에 온 낙, 그것이 더 값진 행복일 것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자원봉사 작가 후기

..... 김수연

기억지킴 자서전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어르신과 인터뷰하고 자서전을 작성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방문 때마다 환한 미소로 반겨주신 덕분에 더욱 힘을 낼 수 있었고 항상 기분이 좋은 마음으로 봉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삶에 대한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 어르신을 보며 삶을 대하는 태도, 자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봉사를 통해 어르신 세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인 관련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몇 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기억 소풍 봉사단을 하며 즐거웠고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어르신에게도 좋은 추억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을 만나 뵈는 것은 올해 들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참 험난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는데,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런 제 고민이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냥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의 한탄, 좌절 같은 것들도 지나가겠구나 하고 안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은 이야기 끝에, 항상 “그래도 지금은 두 팔, 두 다리 쓸 수 있으니 참 감사하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지나온 시간이 고되고 힘드셨다는 거겠지요. 어르신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며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던 모습, 한글로 어르신의 이름 석 자를 적으며 미소 짓던 모습, 모두 다 소중히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봉사는 단순히 타인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어르신을 통해 제가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께서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베품으로 웃고 울었던 날들이여

...
신혜수

요즘 저는 험하게 잘 웃고 다닙니다. 예전에는 이런 웃음도 신경이 쓰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누가 보든 누가 뭐라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항상 열심히 살고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니, 저는 치매가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치매야~!!! 영원히 지구를 떠나라!!”



- 아름다운 청천리와 그곳을 뛰어다닌 심부름 소녀
- 한옥 지붕 아래를 짝 채운 우리 가족
- 두려워 말고, 원하는 미래를 향해
- 나눔의 미덕(美德)
- 나의 벗들에게
-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든직한 남편
- 보물 같은 아이들
- 성실로 들끓던, 뜨거운 그 시절의 “궁미 치킨”
- 치매도 막지 못하는 나의 원더풀 라이프

-
-
-
-
- 아름다운 청천리와
- 그곳을 뛰어다닌 심부름 소녀

1945년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에서 나, 신혜수가 태어났다. 몹시 추운 날 병원에서 태어난 나는 출생 당시의 체중이 4kg나 되었다고 한다. 선천적인 튼튼함이 나를 꼬마 심부름꾼의 길로 이끌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 어쨌든 나는 우리 집 육 남매의 넷째, 딸 세 명 중에서는 셋째 딸로 태어났다.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큰 한옥에서 식구들과 부대끼며 아홉 살까지 살았다.

청천리에서 상당히 커다란 한옥이었다. 무려 70평짜리의 집이었다. 방은 네다섯 개가 있었고, 대청마루가 방 사이에 커다랗게 있었다. 무더운 여름이면 대청마루는 지금으로 따지면 에어컨

컨 노릇을 톡톡히 했다. 가만히 마루에 앉아 시원하게 불어 들어오는 산들바람을 느끼곤 했다. 집 바로 앞에는 우리 가족이 돼지를 키우는 우리도 있었다. 그리고 좀 더 집을 벗어나면 논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논에서는 항상 푸른 생명이 태어나 세상을 풍요롭게 해줬고 논을 스쳐 가는 사계절의 순환을 따라 나도 점점 자라났다.

내 고향, 청천리는 차분하고 평화로웠고 자연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곳이었다. 봄에는 길가에 핀 꽃을 보며 걸었고 여름에는 갯가에서 놀다가 올챙이를 잡기도 했다. 특히 가을의 추억이 많다. 우리 동네는 밤나무와 감나무 천지였는데, 가을이 되면 밤과 감이 좋은 간식거리가 돼주었다. 어린 나는 나무에 올라갈 수도, 열매에 손을 뻗을 수도 없었기에 발을 동동 구르다가 떨어진 밤과 감을 주웠다. 또, 가을에는 더 특별한 간식이 있었다. 바로 메뚜기였다.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간식이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랬다. 어딜 가도 먹을 게 넘쳐나는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별다른 간식이 없었다. 논을 지나가면 메뚜기들이 말 그대로 ‘호다다닥’ 하고 잔뜩 튀어 올라왔다. 무섭거나 징그럽지도 않았는지 어린 나는 메뚜기들을 잡아서 병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곧장 집으로 병을 들고 가 엄마에게 볶아달라고 했다. 겨울에는 고구마를 화롯불에 구워 먹었던 게 기억난다. 정말 시골다운 소박한 추억이다. 당시에는 공기도 맑았기에 하늘에서 내



리는 눈도 깨끗했다. 그 눈이 고드름이 되면 그걸 푹, 떼서는 무슨 사탕처럼 들고 다니며 빨아먹기도 했다.

그렇게 온 동네를 줄기차게 돌아다니며 없는 간식거리도 만들던 나는 늘 활발하고 튼튼한 아이였다. 게다가 육 남매 중에 중간이고 바로 위아래로는 남자 형제였으니, 나는 자연스레 우리 집 심부름꾼 노릇을 도맡게 되었다. 언니들과 오빠는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나는 갖은 심부름을 하고 엄마를 돕기도 했다. 말 그대로 조롱박 부려먹듯이 엄마는 내게 일거리를 던져주곤 하셨다. 가마솥에 불 때는 일이나 시장에서 부식거리를 사오는 일을 한 기억이 난다. 엄마는 예전부터 몸이 약하시기도 해서 나는 군말 없이 심부름을 해냈다. 그때는 그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나만 시키셨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나는 아홉 살까지 청천리의 커다란 한옥에서 증조할아버지와 조부모님, 고모들, 부모님, 남매들과 살며 유년 시절의 기억들을 고이 쌓았다. 좋은 한옥에서 살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육 남매가 모두 풍족한 생활을 할 정도는 아니었기에 양보와 절제도 배우며 남매들과 함께 성장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중앙청 사무직으로 발령이 나서 서울로 이사하게 되면서부터 부모님과 우리 남매들만 같이 살게 되었다. 그렇게 서울행으로 나의

청천리 생활은 마무리되었다. 지금도 가끔 아주 어릴 때를 떠올리곤 한다. 뭣 모르고 뛰어놀던 그 시절이 아무래도 더 좋은가 보다. 아득한 과거지만, 그 시간 속의 나와 내 고향은 선연하게 그려진다.

내가 아홉 살까지 살았던 한옥에는 무려 열다섯 식구가 부대끼며 지냈다. 증조할아버지부터 할머니랑 할아버지, 우리 엄마와 아버지, 네 명의 고모, 우리 육 남매까지. 집이 그나마 꽤 큰 편이기에 망정이지, 작은 집이었다면 비좁아서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도 어린애들이 많은 집답게 복작거리며 좌충우돌 하루하루를 보내던 때가 좋았다. 아득하고 어렵풋하기에 더욱 소중하다.

우선 우리 남매에 대해 얘기해볼까 한다. 머릿수가 많아서 애들끼리 자주 싸웠을 거라고 짐작하겠지만, 다행히도 나는 남매들과 전반적으로 사이가 원만했다. 나의 성격이 원체 유하고 온화

하고 어디서도 튀지 않고 스며드는 편이라 그런지 이렇다 할 다
툼은 딱히 없었다. 육 남매 중 넷째로서 늘 중간 역할을 잘하고
자 부단히 노력했었다.

내게는 언니 두 명이 있는데, 나와는 여섯 살 차이가 나는 정수
언니는 나를 정말 끈찍이도 챙겨주었던, 착하고 상냥한 언니였
다. 쑥 들어간 보조개가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 그 보조개가 폭
파일 때까지 미소를 짓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외모만큼 성
격도 예쁘고 살가웠다. 정수 언니에게는 내가 유일한 여동생이
라서 그랬는지, 내게 많은 걸 선물해 주고 보여줬다. 자라서 은
행에 다녔던 정수 언니는 어느 겨울날 나에게 스케이트를 사주
었다. 언니가 사준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판 위를 누비던 날 나는
넘어지기도 참 많이 넘어졌다. 언니가 사준 것이라서 더욱 좋았
다. 나는 그렇게 넘어지면서도 억척스럽게 스케이트를 타고 놀
았다. 정수 언니와의 기억에 남는 추억이 하나 더 있는데, 어린
나는 뭣도 모르고 독실한 기독교인인 언니를 따라나섰다. 지금
에야 생각해보니 그건 전도였다. 장갑을 직접 짜서 내게 선물해
줄 정도로 마음씨가 고왔던 정수 언니. 그런 언니 덕분에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곧게 살아올 수 있었다.

정수 언니의 바로 아래, 나보다는 세 살 많은 인수 오빠도 나를
참 살뜰히 챙겨줬다. 인수 오빠는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였다. 오

빠는 종종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내게 나눠주기도 했다. 학교 공부를 도와주며 일종의 선생님 역할을 자처했다. 이따금 내 심부름을 함께해주기도 했다. 인수 오빠를 비롯해 육 남매 중 남자 셋은 전부 대학까지 다녔다. 하지만 언니들과 나는 고등학교에서 더 진급할 수 없었다. 그때는 세상이 그랬다.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이라도 대학에서 내 학구열을 제대로 불태워보고 싶기도 하다.

다음은 육 남매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이다. 우선 아버지는 오 남매의 장남답게 무뚝뚝하고 굳건하신 분이였다. 대개 과묵하셨지만 늘 온화함이 공존했다. 아버지는 내게 “진정으로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몸소 알려주신 분이다. 아버지는 원래 의대에 진학하려고 했으나, 당시에는 광산업의 전망이 밝고 인기가 많아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의대 합격과는 무관하게 금광 캐는 일을 하도록 하셨다. 아버지는 주장이 강한 편이 못돼 할아버지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후 여러 차례 직업을 바꾸셨지만, 그 무엇도 진심으로 즐기지 못하셨다. 아버지는 그 회한 때문에 술에 취해 계시는 날이 많았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나는 늘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직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참 따뜻하고 마음이 넓으신 분이였다. 시누이와 시부모

님을 모시고 살면서 궂은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더구나 엄마는 몸이 약하신 편이라 병상에 계실 때도 잤다. 어린 나는 엄마에게 안마해드리기도 했고 집안일을 두 팔 걷어 도와드리기도 했다. 엄마는 손재주도 참 좋으셨다. 내가 어릴 적에는 한복이 워낙 비쌌는데, 엄마는 직접 내게 한복을 만들어주실 정도로 꼼꼼하고 재주가 많으셨다. 엄마는 웬만한 요리도 잘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잡곡밥을 참 잘 만드셨다. 잡곡을 가득 넣고 만든 찰밥. 이제는 내가 가끔 만들어 먹는데, 그때마다 엄마 생각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한다.

엄마의 시누이이자 아버지의 여동생인 고모 넷 중에는 둘째 고모가 내게 가장 살가웠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 아무래도 대학까지 졸업했기에 내게 해주실 이야기가 넘쳐났을 것이다. 특히 고모는 여자도 배우고 그 배움으로부터 얻은 것들을 이롭게 쓰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리고 풍족한 음식을 갖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 나눌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나에게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나는 고모 덕에 베풀고 나눔을 실천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에게는 항상 무서운 시부모님이셨지만 손녀인 내게는 참 잘해 주셨다. 가끔 할머니는 맛있는 간

식을 감춰뒀다가 내게만 조용히 주기도 하셨다. 그리고 할머니는 하얀 엿을 동네에 파는 일도 하셨는데, 가끔 그 엿을 내가 먹기도 했다. 딱딱한 엿 하나를 들고 녹을 때까지 물고 다니면 그것보다 더 좋고 달콤한 게 없었다. 또한, 지금은 쉽게 마트에서 식혜를 사서 마시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다. 할머니는 식혜를 맛있게 잘 만드셨다. 요리 솜씨가 좋던 할머니와 엄마 덕에 나는 맛있는 것들을 먹으며 클 수 있었고 어깨너머로 많은 비법을 배우기도 했다.

마지막은 청천리 한옥의 제일 큰 어르신, 증조할아버지다. 증조할아버지는 아무래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연세가 많으셨기에 항상 편찮으셨던 걸로 기억한다. 증조할아버지 옆에는 늘 쌀겨가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그건 변기 대용이었다. 그걸 치우는 건 내 몫이었다. 역시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나는 참 갖은 심부름을 하며 자랐다.

어쨌든 한옥에서 이렇게나 다양한 식구들이 모여 오순도순 살았다. 아버지가 중앙청 사무직으로 발령이 나며 대가족은 변화를 맞이했다. 서울에서 우리끼리만 사는 것도 참 즐거웠고 색달랐지만, 여전히 청천리 시골집이 더 좋을 따름이다.

● 두려워 말고, 원하는 미래를 향해

“그대는 차디찬 의지(意志)의 날개로
끝없는 고독의 위를 나는 애달픈 마음”

‘수선화’ 김동진 작곡(1941)

나는 성악가가 되고 싶어 대학 진학을 소망했지만, 가난이 발목을 잡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아침마다 수선화를 부르며 나 자신을 달래고 다독였다. 그때마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고 목이 메었다.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화장품 회사의 경리가 되었다. 그래서 못다 이룬 꿈을 여기에 적어 보려 한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은 당시의 열정을 희미하게 느낄 수밖에 없지만, 나의 첫 번째 꿈이 화가였다는 건 또렷이 기억한다. 초등학교 시절 미술 시간이 제일 좋았는데, 내가 그림을 그리기만 하면 교실 뒤 게시판에 항상 내 그림이 붙어있고 상도 많이

받았으니 얼마나 뿌듯하고 벅찼는지 다들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건 꿈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두 번째 꿈은 헌책방 사장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글쓰기와 책 읽기를 좋아하는 문학소녀였던 나는 수업을 마치면 곧장 헌책방에 들어가 내리 몇 시간 동안 책을 봤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같은 연애소설을 좋아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학생이었기에 새 책을 사기보다는 헌책방에 가야 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와 같은 처지인 사람들에게 무한정 독서를 통한 상상력과 지식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헌책방 주인을 꿈꿨다. 책에 관심이 많아 글을 쓰는 일도 좋아해 일기와 수기를 자주 썼다.

현재 내가 책방 주인이나 유명한 작가는 아니지만, 예전의 꿈을 일상에 녹여 취미로 즐기고 있다. 예전과 달리 공공도서관이 너무나도 잘 지어진 지금은 집 근처 ‘석관동 미리내 도서관’에서 책을 종종 대여하고, 원고지에 짙은 글을 쓰기도 한다. 글 중에는 월간지 ‘좋은 생각’에서 당선된 것들도 있다. 어릴 적의 꿈이 취미가 되니, 이만하면 즐거운 삶이라 생각한다.

사실 내가 책방 주인이나 문학가보다도 간절히 바라던 꿈은 성

악가다. 고등학교 시절 성악 전공에 목소리도 좋은 데다 얼굴까지 잘생겼던 음악 선생님이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어쩔 저렇게 잘 부를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처음 들어본 성악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리고 나도 성악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했다. 음악 시간에 늘 호명 당하고 교실 앞으로 나가 모두의 앞에서 노래 부르고 박수를 받았으니 성악가는 더 간절한 꿈이 되었다.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가난하고 무지했던 나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학력자가 될 수 없었다. 오롯이 돈만 생각했고 정신 차려보니 세월이 흘렀다.

결혼 후 육아와 살림을 시작하고서는 화초 기르는 데에 재미를 붙였다. 물과 햇빛만 주면 쑥쑥 자라나는 화초들이 얼마나 싱그럽고 푸릇한지 모른다. 그중에서도 강인한 선인장과 화려한 백일홍, 장미를 좋아한다. 한번은 내 자식처럼 여기며 키운 집 앞 선인장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날을 잡고 유심히 선인장만 지켜봤다. 범인은 앞집 할머니였고 나는 성을 내었다. 그래도 친했던 분이라 단순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 나는 돈이 생기면 꽃을 사고 금반지를 팔아서 꽃을 살 정도로 화초 가꾸기에 푹 빠져 살았다. 요즘은 트로트 방송 보기와 수필 쓰기, 딸과 옷 구경하러 가기 등 예전보다 더 다채롭고 활동적인 취미를 갖게 됐다. 젊었을 적처럼 돈을 악착같이 모을 필요도 없고 그저 내 시간을 온전히 취미에 써도 되니 즐겁고 행복하다.

이처럼 나는 꿈이 많은 사람이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가 분명 잘할 거라는 확신을 지니게 하는 것들도 무척 많았다. 가수, 화가, 헌책방 주인 등 예술 분야 종사자가 되고 싶다고 막연하게 미래를 그렸지만, 당시 가난했던 나에게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가 없어 그저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다. 그 꿈들이 이제는 취미가 되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니 그걸로 행복하고 감사하다. 하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현실의 벽을 뚫고 도전해 보고 싶다.

그래서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고 싶은 일을 해, 하고 싶은 일을 해!” 돈 버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후회가 남지 않으니, 지금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을 따라 걸어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



나눔의 미덕(美德)

나눔을 미덕(美德)으로 생각해 나는 늘 베풀며 사는 사람이었다. 6.25 전쟁 당시 할머니께서 우리 집을 두드린 모든 피난민에게 늘 반찬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기에 당연하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향 충청북도의 사투리를 가진 나는 서울 아이들의 놀림을 받아도 내가 맛있는 음식과 마음을 베풀었고 어느새 내가 골목대장이 되어있었다. 어릴 적부터 나눠 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 착한 내가 어머니께 혼이 나는 건 주로 이런 일들이었다.

한번은 초등학교 3학년 어머니가 열심히 만드신 팔 앙금이 든 찐빵을 몰래 동네 아이들과 모두 나눠 먹었다. 어머니는 놀라셨는지 크게 화를 내셨고 많이 맞았다. 하지만 나는 결혼 하고 나

셔도 베푸는 걸 좋아했다. 단독 주택에서 밥을 짓기라도 하면, 우리 가족이 먹고도 남을 큰 솥단지애 가득히 보리밥을 지어 동네 아주머니들을 불러다 나눠 먹었다.

시루떡도 참 잘 만들었는데, 아침에 솥단지애 물 붓고 앉힌 뒤, 시루 번을 참 잘 붙였다. 이렇게 만든 떡은 모두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가 넷이다 보니 반찬을 많이 만들게 되었고 어김없이 동네 사람들을 우리 집에 불러 자주 음식을 나눠 먹었다. 밥과 반찬 모두 내가 만든 음식들로 베풀었다. 거지가 우리 집으로 와도 천 원짜리 한 장, 빵 하나라도 들려 보냈다. 한번은 거지가 나에게 “배가 고프니다.”라고 말하기에 집에 들어와 밥을 먹게 했다. 이로 인해 동네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소리도 들었다.

바보가 되어도 나는 나눠주는 삶, 함께하는 삶이 좋았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큰딸도 고등학교 시절 늘 두 개의 도시락을 싸 갔었다. 나는 딸이 성장기라 많이 먹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가난한 친구와 나눠 먹어 늘 두 개의 도시락이 필요했던 거였다. 내가 할머니를 닮은 것처럼, 큰딸도 나를 닮아 있었다.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딸들도 베푸는 삶을 살고 있어 좋다. 나는 이런 삶의 모습이 마음에 들고 동네 사람들과 벽을 치고 얼굴도 보기 힘든 지금 시대가 아쉽다.

● 나의 벗들에게

누구나 기억에 남는 첫사랑 혹은 첫 친구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
는 재각이라는 남자애가 그런 존재였다. 또래가 별로 없던 청천
리에서 나의 첫 번째 친구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나는 동
네에서 재각이와 늘 함께 붙어 다녔다. 꼬마였던 우리는 소꿉놀
이를 자주 했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재각이는 나를 종
종 “내 색시”라고 부르곤 했다. 애들끼리의 분홍빛 장난이었지
만, 그게 싫지만은 않았다. 사실 펍 좋았다.

우린 그렇게 소꿉놀이하며 생명이 돋는 봄에는 분홍빛의 진달
래꽃 잎을 따 먹고 초록빛의 냉이와 달래를 캐며 놀았다. 찜통
같이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물속 미꾸라지를 잡고 돌멩이로 소
꿉장난을 하다 보면 소나기가 내리친다. 재각이는 여느 짓궂은



또래 아이들과 다르게 차분하고 어른스럽게 자기 옷으로 비를 막아주었다.

열매들이 붉게 익어가는 가을이 오면, 잘 익어 떨어진 밤을 주워 구워 먹었다. 새하얀 추운 겨울에는 할머니가 구워주시는 고구마와 감자를 먹으며 사계절을 가득 채웠다. 오색찬란한 사계절이 짧게만 느껴졌다. 재각이는 나와 순수하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친구다. 내가 갑자기 서울로 상경하며 제대로 인사도 못 나눠 아쉬움 가득한 이별을 했지만, 참 좋은 순수한 기억으로 남았다.

내 나이 10살에 중앙청 사무를 보시는 아버지를 따라 광화문에서 서울살이를 시작했다. 낯선 서울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다녔다. 시골에서 아직 사투리도 못 떼고 온, 반에서 나이가 많아 유독 튀던 나는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 “그랬슈~”, “뭘예유~” 늘 내 사투리를 따라 하며 웃던 아이들이 내가 나눠준 군것질거리에 나를 대장처럼 따랐다. 시골보다 친구와 놀거리가 많았다. 그중 쌍꺼풀이 짙어 눈이 큰 정희와 공기놀이나 고무줄놀이를 하며 친해졌다. 정희네 집은 구멍가게를 해 용돈도 많았으며 맛있는 걸 내게 곧잘 갖다 줬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하지만 오랜 시간 친하게 지내던 정희와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당시 큰돈

인 오만 원을 빌리기 위해 찾아온 정희에게 미안하다고 해서일까, 정희는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돈 때문에 친구도 추억도 다 잃어버린 것이다. 돈이 미웠다.

이런 일이 또 있었다. 고등학교 친구 ‘김경자’, 경자와 나는 비슷한 처지에 쉽게 친해졌다. 덕성여고에서 차표를 딱 한 장만 구매해 놀러 가고 같이 점심 도시락을 먹었다. 그 후 경자와는 내가 10평 남짓의 집에 직접 페인트칠을 하고 그것을 경자의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가서 이야기한 것이 화근이었다. 자랑할 생각은 없었지만, 친구와 비교될 만한 소재를 준 것이었다. 경자의 시어머니는 “봐라, 네 친구는 페인트도 칠하는데 너는 뭐냐!”라며 내가 있는 앞에서 경자를 꾸짖으셨다. 그 뒤 경자가 내게 마음을 닫으며 우리는 멀어지게 되었다. 두고두고 이 일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에게는 용기가 부족했고 경자와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삶에는 다양한 이유의 이별이 있는데 나에게는 더 특별히 아픈 이별이 있다. 친구들이 모두 떠난 뒤, 오십이 넘은 중년이 되어 친해진 동네 친구와의 이별이다. 한옥에 살던 시절 바로 옆집이어서 자연스럽게 친해진 친구가 있다. 김장하는 날이면 서로 도와주고 가족의 생일잔치라도 열리는 날이면 같이 준비했다. 놀힘이 되어주고 집에 있는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아이들 이야

기를 공유할 수 있는 나의 버팀목이 되어준 참 인자한 친구였다.
친구가 오십을 조금 넘겼을 때 위암 4기 판정을 받았고 결국 이
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엇그제 꿈에 나와
서 웃어주고 가던데 잘 지내나 모르겠다.

안녕, 보고 싶다. 내 친구여, 내 친구들아.

“물어볼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남편과 종로 3가 근처 ‘백궁 다방’에서 맨 처음 만났을 때 그가 꺼낸 첫마디였다. 어찌나 수줍어하던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맞잡은 채 이 말을 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남편과의 첫 만남을 떠올리면 언제나 웃음이 새어 나온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내가 스물네 살, 남편이 스물여덟일 때였다. 양가 어른들끼리의 중매로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남편 될 남자가 부잣집 아들내미라는 중매쟁이의 이 말에 나도 모르게 혹해서 냉큼 선 자리에 나가게 됐다. 그때 나와 딱 한 번 데이트했던 상대가 있었는데 바로 작별을 고했다. 당시의 데이트

는 요즘 생각하는 데이트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그다지 가까운 상대도 아니었다. 게다가 젊었을 때 나는 연애로 결혼하게 팬스레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다. 당시에든 지금처럼 연애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넘어가는 남녀도 있었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집안끼리 잘 아는 사이라면 그래도 성품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믿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9월 13일에 처음 만나 한 달 정도 지난 10월 24일에 결혼식을 올렸다. 키가 그리 크지 않은 남편에 맞추느라 낮은 고무신을 신고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기억이 난다. 사실 나는 결혼식 날짜를 잡고 친정에서 눈물을 펴펴 쏟았다. 결혼하면 영영 친정과 이별하는 것만 같아서 어린 마음에 그렇게 엉엉 울었다. 하지만 막상 식을 올릴 때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들뜨고 마냥 좋았다. 그날을 시작으로 이렇게 50년이 넘는 세월을 남편과 살아온 게 어떤 때는 신기하기도 하고, 무탈하게 살아와서 다행이기도 하다.

결혼 전까지 나는 화장품 회사의 경리로 근무했다. 결혼 후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시댁에서 분가하기 전까지 5년간 시집살이를 했다. 시부모와 시누이 넷, 시동생이 있는 집에서 주부로 산다는 건 험난한 일이었다. 이따금 서글프기도 했고 외로움에 홀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남편은 아홉 남매의 차남이었다. 동생들

을 꼼짝이도 아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형이자 오빠였다. 나 역시 시누이들과 시동생들을 챙겨야 했다. 시부모님은 엄하고 무서우셨다. 하지만 내가 워낙 피를 부리지 않고 성실히 할 일을 해냈기에 다정하실 때도 많았다. 늘 죄송했던 건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었다.

지금은 딸들 덕분에 행복한 웃음이 끊일 날이 없지만, 당시에는 딸을 낳을 때마다 시부모님께 조아리다시피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막내딸을 낳고도 어찌나 눈물을 쏟았는지. 그때 그 심정을 들여다본 남편은 내게 선물을 하나 주었다. 하늘색의 고운 샌들이었다. 본격적인 한여름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는 6월에 알맞은 선물이었다. 나는 그 샌들을 닮을 때까지 자주 신고 걸었다.

남편은 이렇게 센스나 배려를 발휘할 때가 종종 있었다. 젊었을 적에 포도를 같이 먹을 때였다. 아직 익지 않아 신맛이 강한 포도는 본인이 먹을 테니 나는 단 포도만 먹으라고 했다. 그리고 언젠는 탁구를 같이 쳤는데, 탁구를 난생처음 쳐보는 거라 버벅거리기만 하던 나를 남편이 계속 도와줬다. 분명 잘 치는 사람과 재밌게 시합하고 놀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나를 생각하고 배려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젊었을 적의 남편은 화술이 좋고 활달한 편이라 친구들이 많아 지금과 다르게 밖에 자주 놀러 나가곤 했다. 어느 날 내가 남편이 대학 시절 여학생들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을 발견했다. 나는 그냥 그 사진들을 냅다 꺼내서 가위로 조각조각 잘라버렸다. 지금 같으면 그러려니 하고 별 감흥 없이 넘어갔을 텐데, 어린 마음에 귀엽게 질투라도 했던 것 같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도 나에게 화 한 번 내지 않고 은은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이제는 나나 남편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나갈 곳도 없고 집에서 머무르며 평온한 노부부의 일상을 보내고 있다. 내가 치매를 겪고 있기에 이제는 남편이 전업주부가 되어 살림하고 있다. 예전부터 보여준 센스를 발휘해 내가 좋아하는 명란젓 같은 반찬들을 알아서 찹찹 사 오기도 한다. 미역국이랑 달걀말이는 어찌나 맛있게 잘 만드는지. 예전에는 늘 내가 차린 밥을 먹는 데에 익숙했던 남편이 이제는 나를 위해 요리하는 걸 보면 신기하고 감회가 새롭다. 이렇게 서로 잘 맞춰가며 배려하고 살아온 덕에 그다지 큰 싸움은 없었다.

나와 남편은 자라오면서 생긴 차이점을 극복하고 맞춰가며 서로 보완해줄 수 있는 부부가 되었다. 자식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함께 돌보고 아끼며 더욱 끈끈한 가족애가 생겼다. 자식들이 장성하고 이제는 자식의 돌봄을 받으며 노후를 보낼 일만 남았다.

나를 항상 “신혜수”라고, 이름 석 자로 꼬박꼬박 불러주는 우리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언제나 감사할 뿐이다.

“띠리릭, 띠리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왔어요.

“혜수 씨 사랑합니다.”

소극적인 할아버지가 화끈하게 애정 표현을 했어요.

아이를 넷이나 낳도록 사랑 고백을 듣지 못했는데, 오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감동해서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그러고는 “나도 사랑합니다.”라고 보냈어요.

휴대전화는 사랑의 다리 같아요.

- 〈사랑은 문자를 타고〉中 (신혜수 씀, 2014년 1월호 좋은 생각 당선작)

● ● ● ● ● ● ● ● ● ● ● 보물 같은 아이들

나는 일흔둘, 딸만 넷 낳은 할머니다. 두 딸은 출가시키고 둘은 아직 미혼이다. 요즘은 아들 낳으면 울고 딸 낳으면 좋아서 웃는 다는데, 당시 나는 딸 낳을 때마다 대성통곡했다. 하마터면 아들 못 낳는다고 쫓겨날 뻔했다.

-〈우리는 딸바보〉中 (신혜수 씀, 2016년 4월호 「좋은 생각」 당선작)

나에게는 보물 같은 아이들이 있다. 큰딸은 첫 아이여서 마냥 예쁘고 좋았다. 둘째 딸도, 셋째, 넷째, 모든 아이가 예뻐지만, 그 시대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죄인이었다. 내가 결국 아들을 낳지 못하자 시어머니의 구박이 쏟아졌다. 서러워 매일 밤

을 눈물로 지새웠다. 미신이라도 알았더라면 시도해봤을 정도로 간절했다. 연년생으로 낳은 아이들이어서 힘들었지만 정말 소중했다.

넷째를 낳을 땐 신경이 곤두서서 진통이 올 적마다 이를 악물고 참았다. 드디어 아이가 세상으로 나와 “응애~” 할 때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사한테 “아들이예요? 딸이에요?” 하고 다급하게 물었다. “아들입니다.” 나는 안심하고 오후에야 아기가 딸인 것을 알았다. 내가 충격받아 기절할까 봐 의사가 속인 거다. 나는 죄인인 양 시어머니한테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해요.”라고 용서를 구했다.

남편은 위로와 걱정 어린 말을 잘 못 한다. 그런 남편이 넷째를 출산한 당일 낫술을 하고 한 손에 파란 샌들을 들고 들어와 “여보, 수고했어.”라고 나를 다독여주었다. 서운함이 눈 녹듯 녹고,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 파란 샌달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많이 울었지만, 나는 아이들을 키울 때 나는 옷도 직접 만들어서 입히고 중학교 3학년 수업 내용을 직접 공부해서 가르칠 만큼 열심이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남편과 치킨집 장사도 했다. 이렇게 키운 아이들은 자라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큰딸은 말을 잘 듣던 아이였다. 중학

생 때 처음으로 “피아노 안 할래, 미술 할래.” 반항 아닌 반항을 보여줬다. 당시 미술은 배우는데 거액의 돈이 들어 딸아이에게 “미술은 돈이 많이 든다. 다른 아이들은 어찌 가르치니.”라고 했지만, 아이의 말을 들어주었다. 모아뒀던 100만 원으로 가르쳤다. 큰딸은 보답이라도 하듯 열심히 미술을 하였고 지금은 초등학교 미술 선생님을 하고 있다.

둘째 딸도 교편을 잡았다. 유치원에서 생긴 재미난 이야기를 뛰어난 화술로 풀어내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둘째 딸이 있어 나의 하루가 더 풍성해진다. 셋째 딸은 나의 취미인 옷 구경을 함께한다. 옷을 담당해주는 고마운 딸이다. 간호사인 넷째 딸은 곧 결혼한다. 이렇게나 잘 자라주고 내게 잘해 주는 딸들에게 고맙다. 지금은 ‘내가 아들 안 낳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한다. 또,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두 나를 부러워한다. 아이들은 나에게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하다.

나의 딸들에게,
사랑하는 딸들아, 늘 자신의 몫을 다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 지금은 참 행복하단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살았으면 한다.

성실로 들끓던, 뜨거운 그 시절의 “궁미 치킨”

내가 마흔둘이 됐을 때 남편과 통닭집을 개업했다. 지금은 사라진 청량리 사거리의 오스카극장 근처에서 가게를 열었다. 시동생이 그 근처에서 원래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통닭집을 어디서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시동생네 가게 근처에 자리를 잡기로 했다. 가게 이름은 “궁미 치킨”이었다. 궁미(宮味). 그다지 특별하고 거창한 의미는 없지만, 궁전에서 맛보는 수라상처럼 좋은 맛을 선사하겠다는 뜻이었다.

지금은 길 하나만 건너면 치킨집이 또 있을 정도로 가게가 많아 단골손님을 모으기가 쉽지 않지만, 당시에는 닭을 튀겨 파는 가게가 흔치 않았다. 게다가 우리만의 조리 비법이 있었기에 단골을 꽤 끌어들이 수 있었다. 이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통

닭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야들야들하니 촉촉한 게 중요하다. 그 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두 번의 조리과정을 거쳤다. 우선 긴 꼬치에 닭을 잘 끼워서 전기구이로 한 번 구워준다. 초벌한 닭을 펄펄 끓는 기름에 넣고 또 튀겨내는 과정을 거치면 궁미 치킨의 맛있는 통닭이 완성됐다. 기름은 쏙 빠지고 바삭함과 촉촉함만 남은 통닭도 최고였지만, 우리 남편이 매일 직접 만들던 치킨 무도 별미였다. 아침마다 남편은 치킨 무를 담갔다. 아삭하고 새콤달콤하게 만들어진 치킨 무는 우리 가게 통닭과 맛있게 잘 어울렸다.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고 대부분 맛있게 드시고 가셨다.

하지만 장사라는 게 항상 순탄할 수는 없는 법이었다. 외상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고, 무전취식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느 날 행색이 추레한 손님이 들어와서 식사했는데, 카운터에 와서는 돈이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해서 병찌 있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뭔가를 얻어낼 마음이 없었다. 다른 손님에게 한 번 더 팔면 그만 아닌가.

“그냥 가세요.”

배고픈 사람이 우리 가게 통닭을 먹고 배를 채웠다는 생각에 그

냥 만족하며 내보냈다. 또 어느 날은 체격이 커다란 흑인 네 명이 가게에 들어왔다. 통닭 몇 마리를 주문해 먹다가 화장실이 어딘지 물었고, 나는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간다며 다 같이 나갔는데 그 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매일 똑같은 메뉴를 팔았지만, 가게에 오는 사람들은 참 다양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장사를 하다 보니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갔다. 돈을 벌기 위해 무작정 시작한 장사였기에 모르는 것도 많았다. 그래서 더욱 고생도 심했다. 이런 장사는 난생처음이었기에 초반에는 부끄러운 마음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지만 그때는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일했다. 일 년쯤 지나자 그런 마음은 싹 가시고 매출을 올리는 데에만 전념했다.

치킨집을 하면서도 딸내미들을 돌봐야 했기에 남편과 업무를 분담했다. 아침이 밝으면 남편은 가게에 가서 치킨 무를 담그고 내부 정돈을 하며 문을 열 준비를 했고, 나는 그동안 집에서 애들 도시락을 챙기고 학교 보낼 준비를 했다. 애들이 학교에 가면 다시 집안일을 했다. 그리고 해가 저물 때쯤 나도 가게에 출근해 남편과 장사했다. 직원을 당연히 두긴 했지만 중요한 일들은 나와 남편이 도맡았기 때문에 참 힘들기도 했다.

궁미 치킨 덕에 번 돈은 모두 우리 딸내미들 공부하고 결혼하는 데에, 친정과 시댁 어른들 봉양하는 데에 썼다. 저축 같은 건 할 겨를조차 없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달리면서 일이 너무 고 되게 느껴졌다. 특히 밤늦게까지 술장사를 해야 하는 통닭집 특성 때문에 이런 고비가 금방 온 것 같았다. 그렇게 이십 년이라는 세월 끝에 우리는 궁미 치킨을 닫기로 했다.

이제 와 돌이켜보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온몸이 쭉실 때까지 일 하느라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성실하게 우리 가족을 위해 달려왔기에 뿌듯하기도 하고 보람을 느낀다. 요즘도 이런 전기구이 통닭집이 간혹 보이는데, 기계에서 나오는 주황색 불빛을 보면 그때가 떠오르곤 한다. 내게 소중한 딸들과 부모님을 위해 뜨거운 기름 앞에서 착실하게 앞만 보고 달리던, 뜨거운 시절이.

내가 치매 진단을 선고받은 건 5년 전이었다. 그때 성북구치매 안심센터에서 안내문 한 장이 집으로 날아왔다. 인지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나는 대수롭지 않게 진단검사와 피검사를 했다. 의사 선생님과 진료를 보고 난 뒤에야 치매임을 깨달았다.

나는 나 자신이 이전과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치매가 맞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이후 서울대학 병원 신경과에 내원해 확인 도장 마냥 자세한 검사를 추가로 받게 되었다. 검사 후 보호자인 남편만 진료실에 들어갔고, 그 순간까지도 나는 내가 왜 치매에 걸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진료실에서 나온 남편은 두려워하는 나를 보고 말했다. “걱정

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는 나를 무심히 다독여줬다. 지금 생각하면 참 든든하지만, 그날은 치매 진단 자체에 충격을 받아 우느라 남편의 든든함을 느끼지 못했다.

남편과 딸들이 모두 치매 진단 이후 나에게 버팀목의 역할을 자처했다. 너무나 고마운 가족 옆에서도 나는 진단 초기에 어이가 없었고 억울하기까지 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는 여태껏 게으름 하나 없이 부지런하게 살아왔는데 말이다. 첫째 딸을 낳고 나서 더 부지런해졌지만, 어렸을 때도 다들 바가 없었다. 땀감이 집에 떨어지면 동네방네를 돌며 뭐라도 주워들고 올 정도였다. 어른이 되며 나는 하루의 일과를 정해두고 모두 완수해야 직성이 풀렸다. 어쩌면 극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였다. 내 모든 기억을, 어쩌면 인생과 자아 그 자체를 담고 있는 뇌를 쇠퇴하게 하는 치매가 이런 부지런함에 영향을 주는 건 확실하지만 나는 치매를 이겨내고 내 삶을 활발히 일궈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성북구치매안심센터의 인지 건강 수업에 참여하며 생산적이고 재미있는 활동들을 경험하는 게 요즘 내 삶의 큰 낙이자 취미이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바이러스로 야외활동이 제한된 요즘, 온라인으로라도 이 수업을 하지 않았다면 내 하루 하루는 무료하다 못해 침울했을지도 모른다. 어서 빨리 코로나

가 종식되어 센터에서 직접 수업을 듣고 사람들 얼굴을 보며 도란도란 얘기도 나눌 수 있다면 훨씬 좋겠지만 말이다.

나는 대개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수업을 많이 했다. 팔찌부터 모닥불 모형, 전원을 켜면 불빛이 들어오는 청사초롱 장식물까지. 결과물들이 집 한구석에 쌓여갈수록 뿌듯함은 커지고, 치매는 내게서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사실 치매는 암보다도 무서운 병이다. 의학적 기술이나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계속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십 분 전에 했던 말이나 일어난 일도 가물가물할 때도 있다. 이럴 때면 치매가 정말로 내 삶을 갇아먹는 것만 같아 무섭기도 하다.

하지만 난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있고, 내 주위에는 나를 언제나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도 있기에 긍정적인 면을 찾아 생각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사고의 중심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 나, 신혜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은 나를 용감무쌍한 소녀로 만들었고, 강인한 엄마로 만들었으며 이제는 인자한 할머니로 이끌고 있다.

지금껏 살면서 나를 스쳐 지나간 모두가 나를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넘치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엮는 사람으로 기억해주었으면 좋겠다. 나이가 드니 욕심도, 바랄 것도 사라진다. 위를 올려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게 사람 마음이다. 그러니 이제 나는 그저 남편과 배꽃지 않고 건강하게, 자식들이 잘 살아가는 걸 보며 지내고 싶다. 자서전을 쓰기 위해 찬찬히 내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 하나 입 밖으로 말해보며 이야기를 만들었다. 잊고 지냈던 과거를 들춰보는 건 참 몽클하고 신비로운 과정이었다.

우직하고 단단한 선인장을 잘 길러왔듯, 내 인생도 선인장과 다를 바가 없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다. 그저 때가 되면 필요한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하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자서전에 쓰이지 않을 미래의 나날도 지금까지 그래왔듯 “신혜수답게”, 성실하고 부지런히,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맑은 웃음을 지으며 알차게 채워나갈 것이다.

요즘 저는 헤프게 잘 웃고 다닙니다. 예전에는 이런 웃음도 신경이 쓰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누가 보든 누가 뭐라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항상 열심히 살고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니, 저는 치매가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치매야~!!! 영원히 지구를 떠나라!!”

- 〈치매야 영원히 지구를 떠나라〉中

(신혜수 씀,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소식지 「좋아라」 2020년 여름호)

자원봉사 작가 후기

고희승

소설가 은희경의 작품 중 「아가씨 유정도 하지」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하지만 누가 됐든 개인의 삶은 각자에게 유구한 역사이다.” 작품 속 화자의 어머니도, 내가 몇 개월 동안 감정을 이입하고 스며들어야 했던 혜수 어르신도 각자의 삶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말 그대로 ‘역사’로서 자리한다. 그리고 이렇게 문서가 되어 기록된다. 네 명의 딸과 남편에게 ‘엄마’와 ‘아내’의 역할만 수십 년 동안 해왔을 혜수 어르신은 다채로운 역사를 지니고 계셨다. 이 중심에는 딸의 도시락을 챙겨주는 엄마도, 남편의 옷을 세탁하는 아내도, 마냥 인자하고 너그러워야 하는 할머니도 아닌, 77세의 “신혜수”라는 인물이 있었다. 어떤 것을 좋아할지, 이를테면 독서나 꽃 가꾸기 같은 것, 혹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지 등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한 사람 말이다.

타인의 이야기를 단순히 듣는 것에는 익숙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되어 1인칭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은 난생처음 해보는 일 이었고, 작업 초반에는 조금 막막하기도 했다. 어르신과 장시간 인터뷰를 하는 것도 내게는 처음이었기에 설레면서도 긴장되기

도 했다. 이렇게 돌아보니 ‘기억 소풍 봉사활동’은 내게 새로운 것을 가득 안겨 준 활동이었다. 수줍어하시면서도 쾌활하신 혜수 어르신에 이어서 나와 자서전 대필 작업을 함께 한 현정이라는 새로운 친구도 만나게 되어 기뻐다. 인터뷰를 몇 차례 진행하고 자서전을 작성할수록 일종의 묵직한 책임감이 느껴졌다. 누군가의 인생을 고스란히, 왜곡되지도 과장되지도 않게, 적당한 감동과 울림을 꼬집어내도록 풀어야 하는데 이건 그리 간단한 게 아니었다. 고됨과 현실적 시련 따위도 곳곳하게 극복하시고, 어떤 일이든 언제나 성실하고 긍정적으로 해오신 어르신의 이야기를 의자에 편히 앉아 듣자니 감히 인생의 무게를 짐작할 수가 없었다. 내게는 한참 인생 선배이기도 한 어르신이 귀엽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고와 감내의 시간을 견디셨을지 상상하며 나 스스로 차분해지기도 했다.

어르신이 나와 현정이가 쓴 자서전을 부디 마음에 들어하셨으면 좋겠다. ‘기억 소풍 봉사활동’은 어디서도 쉽고 가볍게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기에 내게 더욱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마감이 가까워지자 조급해지고 정신없기도 했지만, 항상 우리를 즐겁게 맞이해주시던 혜수 어르신의 삶을 최대한 잘 작성하고자 노력했다.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삶은 유구한 역사이고 당연히 혜수 어르신의 삶도 그렇다. 어르신

은 딸로서도, 아내로서도, 며느리로서도, 엄마로서도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충실히 맡은 일을 해내셨다. 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컴퓨터로 적는 것에 불과한 일을 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 작업에서 나 역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뭐랄까, 엄청나게 긴 여정을 압축해서 후다닥 달려온 느낌도 들었다.

어르신은 인터뷰가 마무리될 때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
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어르신 역시 그 마음을 지
니고 있으시다고. 모두 알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기에 이 말
이 더 오래 맴돌았다. 어르신의 말씀을 따라 의식적으로 자기애
를 실천해봐야겠다. 그리고 내게 들려주신 다른 이야기들도 잊
지 않고 간직할 것이다.

혜수 어르신도 밝은 마음 절대 변치 마시고, 좋아하는 글쓰기도
독서도 계속하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항상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글썽이는 자서전 봉사였습니다. 봉사 전에는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였다면. 지금은 한 사람 한 시대를 살았던 멋있는 청춘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들 얼마나 멋진 삶을 사셨는지 이제라도 알게 되어 감사하고, 나도 어르신들이 해내신 것처럼 이겨내고, 해내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특히 저는 혜수 어르신을 사랑하시는 아버님에게 사랑도 추가로 배웠습니다.

처음 글을 작성해 보면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큰 보람으로 느껴집니다. 두 어르신과의 추억도 좋았고 밤을 새워가며 글을 써본 경험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어르신을 대면으로 많이 뵈지 못했지만, 어르신의 친절함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봉사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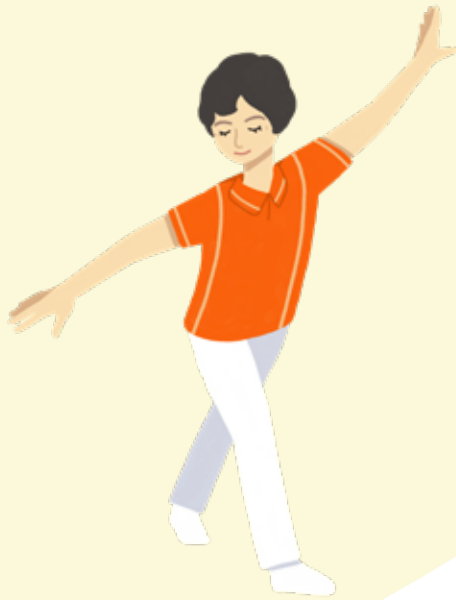
혜수 어르신 늘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작업한 어르신의 자서전이 비록 어르신에게는 서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지금처럼 유쾌하고 웃음이 많은 어르신의 삶을 응원할게요.

눈물은 시야를 가릴 수 없다

• • • •

이두연

명확한 건 그럼에도 나는 결국 걸어 나갈 것이라는 것.
나만이 살아낼 수 있는 내 삶을 끝까지 완주하리라는 것을.



- 들어가며
- 여자라는 이유로
- 나도 무언가가 되고 싶었다
-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
-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함
- 코 베인 서울
- 모든 순간이 좋았다
- 고마운 사람들
- 소중한 물건들
- 마치면서

눈이 소복이 쌓인 길을 걷다 뒤돌아본 적 있는가. 계속해서 내리는 눈과 매섭고 따가운 바람에 맞서며 한참을 걸어왔는데, 돌아보니 길바닥 위 내 발자국은 모두 지워진 모습을 본 적 있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걸어와 여기까지 온 건지 알 수 없고 앞으로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도 기억나지 않아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적이 있는가. 인생이 나보다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을 때, 나는 그 눈 내리는 길 위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다. 내가 정말 그 시간을 오롯이 다 지나왔단 말인가.

빨라지는 인생에 눈을 질끈 감았다, 순간 고요해진 주변이 의아해 천천히 눈을 뜬다. 어느새 눈과 바람이 멎어있다. 나는 꿈

꿈 걸어붙은 무거운 발 한 짝을 살며시 들어 올린다. 그리고 나의 발아래로 선명히 새겨진 발자국을 가만히 내려다본다. 생경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나에게 발자국이 던지시 말한다. 내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 여기에 있으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했던 시간도 많았지만, 반복해서 추억하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웠던 날들 역시 분명 있었다고. 시간이 지나면 녹아버리거나 도로 눈이 쌓이면 발자국은 결국 사라지겠지만 나는 여전히 생생히 살아 남아있다고. “춤을 추는 중이라고 생각해 봐. 인생이란 음악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다고 상상해보는 거야. 모질고 상처뿐인 상황이 닥쳤을 때 한 걸음 물러나 마음을 다독이는 법을 알잖아. 또, 그게 춤추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도.” 발자국의 입을 빌려 내 안의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종소리가 들린다. 다시 눈이 내리고 아까보다 더 날카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 나는 서둘러 걸음을 옮긴다. 뒤를 돌아보면 내가 방금까지 서 있던 자리가 어딘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쩐지 아까처럼 불안하지는 않다. 눈이 내 발자취를 덮쳐버렸다 한들 나는 계속해서 걸어 나갈 테니까.

하여, 나는 이 글을 쓴다. 눈 오는 길 위를 걸어가기 위해. 돌아봤을 때 사라진 발자국에 막막해하지 않기 위해. 내가 그 시간을 견뎌왔고 지나왔으며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

해. 아팠던 기억들만 있는 건 아니라고, 삶은 계속 살아볼 가치가 있다고, 또 발자국이 사라져 불안하더라도 앞으로 새길 발자국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기 위해.

나는 경북 경산군 옥산동에서 7남매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당시 시골에서 농사를 크게 지었던 부모님은 나와 언니에게 남동생들을 부양하도록 했다. 우리 둘은 집에서 딸이 아니라 식모였고 양육자였다. 나는 6살 때부터 남동생들을 업어 키웠다. 비쩍 마른 내 등 위로 남동생 4명이 고루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반복하는 동안 내 다리는 안경다리처럼 휘어졌다. 내게 업힌 동생을 떨어뜨리지 않으려, 넘어지지 않으려 몸과 정신이 바짝 곤두서는 사이 다리가 비틀린 채로 고정된 것이다.

난 동생들 업어 키우느라 다리가 이리된 것도 모르고 원체 못난 모양으로 타고난 줄 알았었다. 머리가 조금 큰 뒤에야 동생들 업어 키우느라 다리가 이렇게 된 것임을 깨달았다. 곧게 펴지지 못하고 굽은 내 다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음에 난 구멍 사

이로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어오는 것만 같다. 말끔해진 줄 알았던 흙터 겹면을 바람이 쓸고 지나가는 것만 같다. 그 섬뜩하고 쓰라린 감각을 나는 지금도 선명히 느낀다.

어머니는 유독 딸과 아들을 심하게 차별했었다. 그저 딸들보다 아들들을 조금 더 챙기는 수준이 아니었다. 첫째 오빠는 공부에 소질이 없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기어코 오빠를 집에서 통학 버스로 30리길 걸리는 대학에 입학시켰고, 나와 언니에게 그의 뒷바라지를 하도록 했다. 우리는 꼭두새벽에 일어나 오빠가 먹을 도시락을 싸고, 숯을 피워 그가 입을 교복을 다렸다. 나와 언니의 이런 노고를 어머니는 평생 알지 못했다. 알았다 하더라도 칭찬 한마디 없었을 걸 알기에 아무런 미련은 없다. 오빠는 집안의 온갖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 해내지 못했다. 논과 소를 팔아 오빠를 대학에 보내는 바람에 다른 형제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조차 없었다.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겨울에 면양말 코 꿰매는 소일을 시작해 중학교 입학금을 마련했다. 용돈 없이 3년을 그렇게 일해 번 돈이었다. 처음엔 어머니 몰래 남동생과 같이 경산중학교에 입학했으나 후에는 알리지 않을 수 없어 털어놓았다. 그러자 어머니는 입학식 날 나에게서는 얼굴 한 번 비춰주지 않았고 대신 남동생에게 빵을 사주었다. 나는 심장이 들끓고 얼굴이 뜨거워졌

으나 화내는 법을 몰라 동생 손에 들린 빵만 가만히 바라보았다.

너무 다니고 싶었던 중학교였지만 다니면 다닐수록 자신감만 사라졌다. 처음엔 학교에 들어가 선생님도 보고 또래 친구들과 지내는 것이 마냥 설레고 즐거웠다. 책에 필기하고 소리 내어 글을 읽는 것도 재밌기만 했다. 초등학생 때 이미 해봤던 것들이라 해도 느끼는 바가 달랐다. 오빠는 이런 걸 계속하고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내 책상과 의자가 천장에 달린 아주 가느다란 밧줄에 묶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든 밧줄이 끊어지면 땅으로 추락하고 말 내 책걸상들, 교과서들, 그리고 아직은 불 확실하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는 내 꿈까지.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집에서 학교를 보내주는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 자꾸만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쪼그라든 마음이 실력에도 영향을 준 건지, 의지와는 다르게 공부가 잘되지 않았다. 수업을 따라가기가 벅찼고 나만 혼자 뒤쳐지는 기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설상가상으로 책값도 만만치 않았고 집에서 여자가 무슨 공부냐고, 농사일과 오빠 뒷바라지나 신경 쓰라고 압박하는 것도 괴로워 6개월 만에 학교를 도망치듯 그만두었다. 학교에서의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마지막에 배운 내용이 알파벳 A, B, C인 것만은 또렷하다.

● 나도 무언가가 되고 싶었다

나는 태어난 순간부터 줄곧 내 뜻대로 인생을 꾸려갈 수 없었다. 단 한 번도 내 시절을 주체적으로 살아낸 적이 없었다는 뜻이다. 어렸을 땐 남자 형제들을 부양하고 돕느라 여념이 없었다. 앞서도 말했지만, 코 묻은 돈 모아 간 중학교조차 겨우 6개월 남짓 다니고 그만두었다. 그랬던 나에게 처음으로 부모님이 양재 학원에 다니라고 한 건 내가 21살 때였다. 그 당시 양재 학원은 최고로 인기 있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양재 학원에 다닌 뒤에 본격적으로 취직해 일을 시작하던 시절이었다. 부모님께서 어렵게 보내준 양재 학원이 나는 소중했다.

“네가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오겠다는 거냐?”



“학원을 마쳤으니 이제 취직을 해야지요.”

“직장은 사내자식이나 나가는 게다. 너는 결혼만 잘하면 된다.”

“그렇지만 저도 돈을 벌고 싶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허락해주세요.”

“말대답은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

하지만 양재 학원을 1년 동안 다닌 뒤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여자가 무슨 직장에 다니냐며 양반집에 시집이나 가라고 구속했다. 그때 나는 지금 아버지에게 순종하면 평생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 무언가를 결코 해볼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다. 그래서 꾀꾀하게 직장에 다니겠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는 취업할 거면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내 딸이 바깥일 하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당신의 주장을 피력했다. 결사반대만을 외치는 아버지에게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이쯤 되니 내 삶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내 그림자는 누굴 따라오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잘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무의미하게만 느껴졌다. 왜 여자에게만 이런 삶이 요구되는 걸까. 왜 그게 당연한 걸까.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까. 끊이지 않는 질문과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대답 사이에서 골몰하다 밤새는 일이 잦았다. 22

살 때 학원을 그만둔 이후로 양재 공부와 일을 다시는 하지 못
했다. 그저 집에서 나와 동생들 옷을 만들며 무력한 시간을 오
독오독 씹어 먹었다.

지금의 남편을 중매로 만나게 된 것은 그로부터 3년 뒤, 내가 25
살이 되었을 무렵이었다. 숙모가 연결해준 중매자에게 나는 농
사짓는 집안으로는 절대 시집가고 싶지 않다고 단단히 일러두
었다. 밭일이라면 지긋지긋했기 때문이었다. 농사짓는 집안과
혼인을 하면 여태껏 살아온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 같은 불
안한 예감이 들었다. 농사를 지으면서 애들도 키우고 밥도 차리
는 삶은 그만하고 싶었다. 중매자는 내 고집에 고심하더니 남편
을 소개해주었다. 그는 나에게 남편 쪽이 아주 가난하다고, 그
래도 아가씨 집안은 시골에서 농사도 크게 하고 어떻게든 먹고
는 사니까 둘이 살림을 합치면 나쁘진 않을 거라고 말을 늘어놓
았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나에게 중매자는 이게 가장 중요
하다는 듯이, 무엇보다 남편 쪽이 농사짓는 집안은 아니라고 덧
붙였다. 그 말에 나는 수긍했다. 연애랄 것도 없이 우리는 만나
결혼을 했고 대구에서 살림을 차렸다.

남편은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다. 타고난 장사꾼이었다. 별 뜻 없
이 누구에게나 해사하게 잘 웃어주었고, 그 낯이 좋아 따르는 시
장 사람들이 많았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해내는 것도 그의 덕목 중 하나였다. 그래도 내가 게으른 사람과 결혼한 것은 아니구나, 노동에 지쳐 곤히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혼자 생각하곤 했다. 남편은 나에게 다정하지 않아서 서운할 때도 있었다. 그는 종일 집에만 있었던 나의 그늘을 걷어주고 내가 꼭꼭 마음에 담아둔 말을 들어줄 여유가 없었다.

어쩌면 결혼하기 전에 나는 알아버렸던 걸지도 모른다. 여자는 결혼하는 순간, 그 이전의 삶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의 어머니 혹은 아내 혹은 며느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그 서글픈 사실을 무감하게 받아들였던 건 내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의 어머니 노릇을 해왔기 때문일까. 나는 26살에 첫애를 임신했다. 한순간에 아내와 어머니가 되어버린 나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농사짓는 집안에서 태어나 농사가 지긋지긋했던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농사짓는 남자한테는 절대 시집을 안 가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래서 상공업을 하던 그이와 25살 때 중매로 처음 만나 그 시절에 으레 그랬듯, 금방 결혼했다. 우리는 대구에서 신혼집을 차리고 남편은 삼촌의 토목공사를 돕기 시작했다. 재산이 많거나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고 우직한 성격으로 삼촌에게 꽤 신용을 얻던 그이는 회사의 재정적 문제도 많이 다루며 안정적으로 적응해갔다.

그러나 내가 26살이 되던, 첫째가 태어난 그해 삼촌의 회사가 휴지 조각처럼 찢기고 말았다. 삼촌 회사의 재정적 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남편은 곧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1순위 수금 대상이 되었다. 차라리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은 상황 속에서 잔

인한 일들은 계속 이어졌다.

당시 그이는 투자자들이 고용한 깡패집단에 납치까지 당하고 만 것이다. 납치되어있는 동안 그이는 깡패들이 시킨 수금 일을 도왔고, 그날 일당을 다 채우지 못하면 많은 폭력이 오갔을 것이다. 물론 정말 폭력을 썼는지 어땠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집에 돌아오고 난 후 그이의 온몸이 성한 구석이 없고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병원을 제집처럼 드나들었으니 대충 어땠는지 말을 안 해도 알 것 같았다.

그렇게 반강제로 수금 생활을 지속하며 끊임없이 불안하게 외출을 타는 듯한 생활을 하던 남편은 그때 이후로 절뚝이며 잘 걷지를 못하게 됐다. 이 정도로 아프고 힘들었다면, 나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아내인 나에게도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고통을 감내했던 게 서운하면서도 속상했다. 나는 남편이 저렇게 건강이 안 좋아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이후 둘째가 생기고, 첫째 때보다 훨씬 고되게 출산했던 나는 산후풍에 걸려 온몸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듯한 시린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 당시 우리 가족은 돈도 없고, 집안의 기둥이었던 남편도 아프고, 일도 변변찮아 많이 힘들었을 때였다. 그래서 산

후풍이 더 지독하게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때 앓았던 산후풍은 아직도 매해 2월이 되면 온몸이 쭈시듯이 찾아와서 괴롭힌다.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 채로 산후조리를 하고 있던 중에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찾아오시면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한 평생의 설움이 자리 잡게 된다.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집이 지금 삼순구식의 상황인지 아시면서도 대뜸 저녁 늦은 10시에 찾아와서 “네 여동생이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네가 돈을 안 줘서 못 가고 있다! 돈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돈을 줘야지, 누구 때문에 돈을 이리 안 주냐?”라고 마치 내가 남편을 사주해서 돈을 안 준 것 마냥 나를 향해 삿대질하며 따지시기 시작했다. 방금 애를 낳고 몸이 찢긴 고통을 추스르고 있는 산모에게 이렇게 경우 없이 돈을 받으러 오셨다는 것에 당황했지만, 남편의 태도에도 서운함이 많았다. 주지 않아도 될 여동생의 학비를 사정이 많이 어려워져 주지 못한 것을 마치 우리가 대역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없는 살림에 돈을 굶어서 시어머니께 결국 드리던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꼈다. 그 이후에도 남편은 시어머니의 이런 금전 요구나 말도 안 되는 잔소리에도 항상 고개를 벋처럼 숙이고 순종했다. 효자랑 결혼하면 고생이라더니, 내 상황이 딱 그 꼴이었다.

●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함

둘째 출산 후 시어머니가 했던 행동은 아직도 내 마음 깊숙이 시퍼렇게 자리 잡았다. 20대 때 겪었던 일이지만 거의 80이 된 지금까지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에서 눈물이 나 온몸에 가득 차니 말이다.

설상가상으로 이 일 이후 시어머니와 갈등의 서막이 열렸다. 원래 폐병에 걸렸던 시어머니는 기독교를 믿고 나서 병이 낫는 하나님과의 기적 같은 소통을 체험하시고는 기독교가 생활과 정신의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며느리와 아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으니 더욱 부정적 편견을 마음속에 고착하신 것 같았다. 이 이후로 필수적이었던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 하셨지만, 반대로 시아버지께서는 제사를 지내고 싶어 하셨다.

고래들 사이에서 새우 등 터질까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던 나는 결국 시어머니께 여쭙보았고 시어머니께서는 네가 하고 싶으면 하라는 대답을 하셨다. 그래서 며느리 된 도리로서 음식부터 모든 준비를 다 하며 제사를 지냈는데 시어머니의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이게 싫으셨던 모양이었다.

제사 후 식구들이 다 같이 밥을 먹는데 그이가 있을 때는 밥에 손도 안 대고 계시더니, 그이가 나가면 밥을 드시는 것이었다. 마치 내가 시어머니께 밥을 안 주는 것처럼 그이에게 보여주기식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너무 억울하고 황당했지만 직접적으로 말도 못 하고 그냥 계속 꾸준히 시어머니께 밥을 차려드리는 일 말고는 할 수가 없었다.

제사 일을 겪고 나서 시어머니께 제대로 미운털이 박힌 나는 이후 또 서러운 일을 겪었다. 사건은 시누이와 그의 남편인 아주버님이 같이 성남에 식당을 새로 차리면서 시작됐다. 식당을 새로 열었으니 선물을 준비해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한 나는 그 먼 성남까지 당시 귀했던 시계를 가지고 가게에 갔었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온 건 어이없는 분노였다.

“늦게 와서 가게 일을 도와주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일부러 가게일 안 도와주려고 늦게 온 거지? 안 그래!”라며 아주버님은 내

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다. 말로 뺨을 때리는 것 같이 얼굴이 화끈거렸다. 먼 길을 와서 저녁쯤 가게에 도착했다고 나에게 이리 홀대한 것이었다. 이 얘기를 듣고 남편은 우리가 못 사니까 이런 수모를 당한 것이라며 속상해했지만 정작 시누이와 아주버님께서는 입도 뻥끗 못 했다.

그러다 시가 식구들이 다 모인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나와 그이를 부르더니 당장 시누이와 아주버님한테 사과하라고 펄쩍 뛰시는 것이다. 잘못은 아주버님이 했는데 우리 보고 그냥 접고 들어가라는 얘기였다. 원래부터 눈엣가시였던 내가 또 트집이 잡힌 것이었다.

아무 말도 못 하고 억울해하던 찰나, 남편이 난생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께 벼락같이 화를 냈다. “잘못은 그쪽이 했는데 왜 우리가 사과해야 합니까? 우리가 만만해요?”라며 대든 것이다. 그의 분노를 처음 본 시어머니는 당황해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 하였고, 이후 사과하라는 말을 다시 귀로 듣는 일은 없었다. 그 후 아주버님이 몰래 남편을 찾아와 사과하며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이 일 이후 시어머니는 나와 남편을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며 행동하셨다. 나 또한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불편하게 지내게 되었다.

1971년, 쭉뻗쭉뻗 처음 학교에 전학 와서 소개하는 초등학생 같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서울이라는 도시로 상경하게 됐다. 설렘보다는 두려움과 낯선 감정이 앞다투어 나를 지배했던 것 같다. ‘눈 뜨면 코 베인다’는 속담이 유명한 서울에서 덜컥 집을 먹었던 것이다. 역시나 소문답게 처음으로 세 들어 살기로 계약을 마친 풍락동 셋방은 다른 사람이 아직도 살고 있었다. 주인이 이중 계약을 잡은 것이었다. 서울에서 보기 좋게 처음부터 사기를 당한 우리 가족은 결국 어쩔 수 없이 풍락동보다 훨씬 집 상태가 안 좋은 천호동으로 급하게 셋방을 구해 바로 이사 갔다.

천호동 주인집에는 첫째 딸과 같은 나이의 여자 아이가 살고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어린 나이였던 둘은 자주 싸우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주인집에 밋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첫

째를 항상 남의 애보다 심하게 혼냈었다. 정말 그러면 안 됐지만 그 당시에는 딸의 상처와 트라우마보다 집에서 쫓겨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간절했던 것 같다. 서울로 막 올라왔을 때까지만 해도 햇살처럼 밝고 개구쟁이였던 첫째는 천호동에서 지내면서 말수가 적어지고 조용해졌다. 그 당시에 첫째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도 한으로 남는다. 나의 무지함과 이기심으로 첫째에게 평생 들여다볼 마음의 어두운 방이 생긴 것이었다.

그 후 남편의 친구가 신당동에서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이 와서 신당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신당동의 집값이 거의 2배나 비싸서 그 친구가 집값의 절반가량을 내주면서 감사하게도 머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신당동 셋방에서 또다시 코 베임을 당하고 만다. 신당동 셋방에는 옆집이 있었는데, 우리도 풍족하게 살진 않았지만, 옆집은 항상 돈이 부족하고 음식이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돈도 자주 빌리고 연탄이나 음식도 자주 빌렸다. 자주 빌려주다 보니 호의가 권리가 되어 우리의 돈이나 음식, 연탄을 훔쳐 갔다.

나는 설마 옆집에서 도둑질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하고 단지 물건이나 돈이 빨리 준다는 느낌만 받았다. 예를 들어 일을 소

개해준 친구가 준 30개짜리 귀했던 계란 한 판을 항아리 안에 넣어두었었다. 워낙 귀해서 조금씩 먹던 계란이었는데 순식간에 2개로 줄어있었다든가 하는 일도 있었고, 이불 밑에 숨겨두던 돈뭉치가 앓아진다든가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거의 공동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계속해서 물건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자 이후에는 눈치를 챘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옆집에 가 따지기도 모양새가 이상했다. 결국 찻접함만 남긴 채 또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번 집은 국민은행이 건너편에 있었고 옆에는 삼립 빵집이 있었다. 이 집이 이사 다닌 집 중에서 환경이 가장 좋았는데, 생각해보면 주거환경은 좋았지만, 주변에 있던 인간들은 썩은 내가 진동을 했었다.

이때 당시에 첫째가 중학교 1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 셋째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모든 문제는 삼립 빵집에서 일하던 아저씨들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남는 빵을 딸들에게 주기도 하며 딸들을 예뻐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세상에 대가 없는 친절은 없단 것을 느꼈다. 점점 그들은 딸들에게 과하게 껴안거나 불쾌하게 보보하는 등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접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지 예뻐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속이 영 깨끗해 보이지는 않았다. 눈치가 그렇게 없던 나

도 분위기로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더럽고 음습한 속내가 보였으니 말이다.

그 후 악착같이 돈을 아끼고 벼룩의 간도 빼먹을 정도로 아껴서 짐승만도 못한 그런 놈들을 멀리하고 드디어 셋방이 아닌 우리의 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거대한 서울에 조그맣고 소중한 우리의 집이 생긴 것이다. 매번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해야 했던 우리 딸들도 드디어 마지막으로 적응을 끝낸 일이었다. ‘내 집’이 생겼다는 게 어찌나 기쁘던지, 집을 한번 보면 밥을 먹은 것처럼 속이 든든했다. 우리의 집을 마련한 이후에는 서울에서 다리가 바쁘도록 돌아다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내 인생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게 있다면 댄스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댄스부에서 진행하는 댄스 수업과 그곳의 동료들이다. 특히 센터장님은 건강이 좋지 못한 남편과 내가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해줘서 너무 감사할 뿐이다.

어렸을 때부터 늘 집에만 있는 바람에 바깥 활동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나에게 복지센터의 댄스부는 단비 같은 존재였다. 마음 맞는 사람들과 같이 춤을 추고 맛있는 밥을 먹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사람을 살게 하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남편이 암에 걸리기 전에는 월곡종합사회복지관에 다녔었다.



우리 부부는 그곳의 댄스부에 등록해 춤을 배웠는데, 그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대회에 나가게 되었다. 얼마 배우지도 못한 상태로 나간 거라 기대도 안 했는데 우수상을 탔다. 재밌고 신기하고 감사했던 경험이었다. 춤을 출 때 가벼워지는 몸의 감각, 내가 내 육신을 떠나 마음껏 공기를 누비는 듯한 기분, 마음을 단순하고 여유롭게 만들어 주는 음악.... 춤을 출 때만큼은 살아 있음을 강하게 느낀다.

댄스부를 떠올리면 역시 함께 호흡하며 춤을 췄던 댄스부 식구들이 기억난다. 남편이 대회에서 우수상을 탄 뒤로 암에 걸려 병원 신세를 졌을 때, 댄스부 식구들이 병문안을 여러 번 해주었다. 스무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병실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허하고 심약했던 마음과 품고 있던 걱정들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마웠다. 감사한 마음에 삼복 날 댄스부 식구들에게 밥을 산 적이 있었다. 그날 그곳의 풍경이 참 좋았다. 뜨거운 여름날, 월곡초등학교 앞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밥을 먹는 동안에 우리가 다 같이 무언가를 뜨겁게 공유하고 있음을 느꼈다. 내 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나랑 같이 밥 먹어줄 사람이,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 그저 한없이 감사했다. 나는 그날 밥을 먹으면서 자주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서 밥을 더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다.

“이 씨, 나랑 쇠비름 좀 따러 갑시다.”

“웬 쇠비름이요?”

“아, 저번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글썄 쇠비름이 폐암에 그렇게
좋다지 뭐요. 쇠비름 따러 다녀오면 이 씨 부부 마음도 몸도 한
결 나아질 거요.”

댄스부 식구 중 최낙현 씨하고는 같이 쇠비름을 따러 시골에도
자주 내려갔었다. 쇠비름이 폐암에 좋다고 최낙현 씨가 알려준
덕분이었다. 실제로 쇠비름의 효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남
편은 병원에 입원한 지 3,4주 뒤에 퇴원했다. 생각해보면 쇠비
름뿐 아니라 우리 부부에게 찾아와준 많은 손길과 위로들 덕분
에 남편이 빨리 일어설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싶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댄스부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
다. 그래서 실버복지센터에서 진행되는 <8월의 크리스마스> 프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서 배우는 여러 음악과 요가, 장
구 등의 활동들이 나에게 큰 활력소가 되어주고 있다. 화상 통
화로 부원들과 선생님을 만나 수업을 이어가는 것이 때로는 어
렵고 막막하기도 하지만, 그렇게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접속하
는 일이 무척이나 소중하다.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몸이
늘어질 때까지 춤을 추고 맛있는 밥을 먹고 그 순간 속에 고요
히 녹아들고 싶다. 이처럼 댄스부 활동은 지나온 내 삶의 상처

를 보듬어 주고, 앞으로 살아갈 나날들에 큰 용기를 실어준다.

이 밖에도 나는 매일 아침 2시간 정도 집 근처 예술대학교 운동장에서 걷기 운동을 한다. 외부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요즘, 아침 운동이 내가 하는 유일한 외출이다. 집 근처에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어 감사하다. 이른 새벽에 나가 홀로 운동장을 걷고 돌아오면 오늘 하루도 왠지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다리가 끊긴 것처럼 가끔 기억과 기억 사이를 연결 짓지 못할 때가 있지만, 이렇게 아침을 부지런하게 시작하면서 여전히 내게는 새로운 나날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너무 괴로워하지 말자고 덤덤히 다짐하게 된다. 오늘은 오늘의 다리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 고마운 사람들

내 인생을 되돌아보기 전에는 이 삶이 한없이 외롭고 기구하게만 다가왔었다. 하지만 막상 생각해 보니 고마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들과 함께했기에 그토록 괴로운 순간을 내가 악착같이 버텨온 게 아니었나 싶다. 앞으로도 사는 날들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남편은 여전히 많이 아프고 나 역시 점점 희미해져가는 기억을 멍하니 흘려보내고 있으니. 그래도 내 곁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내가 나일 수 있게 지켜주는 사람들 덕분에 조금은 용기를 낼 수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들은 당연히 딸들이다. 풍족한 집안에서 키우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 큰데, 우리 딸들은 군말 없이 아픈 부모 곁을 지켜준다. 정작 딸들에게 엄마가 필요했을 때, 엄마의 사랑이 절실했을 때, 엄마의 손길과 관심이 고팠을 때 나는 내 애들을 챙겨주지 못했는데도 우리 딸들은 당연하다는 듯 나와 있어 준다.

아픈 남편을 수년간 돌보면서 느낀 거지만,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을 지키는 일은 사랑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나 자신과의 투쟁이기도 하고 삶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그런 일을 우리 딸들은 몇 년째 해주고 있다. 그런 내 딸들의 어깨를 보듬어 주면서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해 주지 못했던 것 같다. 너희를 딸로 만나서 항상 행복했고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러웠다고, 그걸 너희가 성장하는 내내 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전해주고 싶다.

다음으로 떠오르는 고마운 사람들은 성북구치매안심센터 선생님들이다. 전아영, 박지애, 김보람 선생님, 그리고 이강산, 홍규표 선생님께서 항상 참 친절하게 나와 남편을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치매 노인들은 이 세상에서 보살핌받기 힘들다. 가족들이 잘 지켜준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런 상황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치매 노인들이 이 나라엔 정말 많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치매안심센터에 다니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얼마

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작년부터 성북구치매안심센터에 다니며 인지 훈련을 위한 공부도 하고 뜨개질과 종이 공예도 시작했다.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엔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져서 남편에게 같이 다니자고 조르기까지 했다. 결국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남편과 같이 온라인 수업으로 인지 훈련을 위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만든 것들이 참 많은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수세미와 목욕 타월이다. 만들 때는 이 물건들을 내가 이토록 잘 사용하게 될 줄 몰랐다. 쓸 때마다 이것들을 만들던 때가 떠올라 자연스레 웃게 된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성북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에게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수업 재료들을 보내준다. 뿐만 아니라 악기(팅드럼, 핸드벨)를 배울 수 있는 수업에도 참여하고 있고, ‘브레인 쑥쑥이’ 인지 훈련 학습지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둘째 딸이 항상 내가 온라인 수업을 무사히 들었는지 확인해주는데, 성북구치매안심센터 선생님 못지않게 늘 잘 챙겨준다. 내 공부에 이토록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이 많으니 내가 결코 공부를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성북구치매안심센터는 나의 또 다른 집이자 학교이다. 선생님
들도 친절하고, 늘 티격태격하지만 없으면 괜히 서운하고 아쉬
운 짝꿍 같은 남편도 함께 공부하고 있어 외롭지 않다.

1. 남편의 소중한 편지

이 편지는 내가 소중하고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던 편지이다. 2010년에 남편이 써준 이 편지는 읽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진다. 폐암에 걸려 힘들어하던 그이를 계속 보살펴주던 나는 2년 동안 계속된 병세를 온몸으로 막아내다가 많이 지쳐있었다. 그러던 중 댄스부 식구들이 함께 여행을 가지 않겠냐며 제안해 고민하고 있었다. 고민하는 나를 보고 그이는 수줍게 이 편지와 1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며 다녀오라고 했다. 나는 여행을 떠나는 기차 안에서 끊임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아픈 그이를 두고 여행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때문이었다. 그래도 떠난 여행은 나를 가볍고 활가분하게 만들어줬다. 그 후 남편에 대한 나의 마음은 깊어졌고, 따뜻해질 수 있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곱게 물든 단풍잎에서
그윽한 가을향이
느껴지는 계절
너무나도 가고 싶은 곳이
많았을 텐데
나 때문에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오늘은 마음 놓고
잘 놀다 오구려
집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고
여보 사랑해

2010. 11. 02

사랑하는 당신에게

공개 물은 단풍잎에서

그윽한 가을 향이

느껴지는 계절

너무나도 가고 싶은 곳이

양양을 텐데

나 때문에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해서

정말 이안해

오늘은 아음똥고

잘 놀아 오구려

집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고

여보 사랑해.

2010. 11. 2.

2. 치매 안심 센터에서 만들었던 나의 작품들



이 작품들은 내가 성북구치매안심센터에서 다니며 만들었던 것
들이다. 모두 나의 예술적 마음을 담을 수 있게 해주었다.

156

것도 없다는 것을. 그러니 꼭 각자의 야망을 성취하고 자신만의 삶을 차근차근 쌓아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뉴스에선 하루도 빠짐없이 함부로 죽음당한 여자들에 관한 소식이 보도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죽음당한 그들의 이야기를 아나운서의 건조한 목소리로 전해 듣고 있으면 늑골이 딱 막힌 것처럼 답답해진다.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악착같이 견디며 건너온 그 시대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내가 태어난 해였던 1943년과 지금 2021년. 그 78년의 세월 동안 여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지워진 채로 유명하고 있다. 뉴스에서 전달되는 죽음당한 여자들의 흔적을 지켜보며 나는 이름도 모르는 그들을 잊지 않으려 애쓰고 애쓴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내 손엔 나의 이름만이 놓여있다. 어쨌든, 손에 들린 내 이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자문하면 끝이어서 이름이 대답한다. 나는 네 78년간의 삶을 기억한다고. 가려지고 사라졌던 너의 시간을 기억한다고.

내 이름의 말에 나는 잠잠히 나의 첫 기억을 도로 더듬어본다. 스스로가 지워지고 있음을 인식하기도 전에 지워졌던 나의 그 처음을. 누군가의 어머니가 이 전, 누군가의 아내이기 이전, 누군가의 딸이기 이전, 남동생들을 업어 키우고 오빠를 뒷바라지했던 그 시간 이전의 나를. 내리는 눈에 덮여 보이지 않는 발자

국처럼 그때가 잘 떠오르진 않지만, 분명 그 시간을 거쳐 온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들이 남아있고 이제 나는 춤추듯 삶을 통과하는 법에 익숙하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몇 번은 뒤를 돌아보겠지. 아무것도 없는 주변에 덜컥 겁이 나 멈춰 설지도 모른다.

그래도 명확한 건 그럼에도 나는 결국 걸어 나갈 것이라는 것. 나만이 살아낼 수 있는 내 삶을 끝까지 완주하리라는 것을.

자원봉사 작가 후기

..... 박수연

우선 귀한 이야기 들려주신 이두연 어르신께 감사하단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제가 과연 어르신의 삶을 글에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 역시 쓰면서 이 작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감히 살아본 적도 없는 타인의 인생을 언어로 옮기는 일에는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누군가의 삶을 듣고 그걸 대필하는 작업을 해볼 수 있어서, 또 그게 다름 아닌 이두연 어르신의 이야기여서 참 영광이었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쓸 때만큼은 저도 그 시간에 잠시 머물렀다 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그 당시 어르신이 느끼신 감정과 하신 생각들을 섬세하게 말씀해주셔서 더욱 수월하게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어르신께 받은 것들이 너무 많은 데 비해 제 글은 한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도 부디 이 자서전이 어르신에게 아주 조그마한 기쁨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만나 뵈 때마다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주시고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신 이두연 어르신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김시연

더운 여름, 비와 함께 처음 이두연 어르신네 댁을 수연이와 함께 방문한 그날이 기억납니다. 걱정했던 제가 무색할 만큼 어르신은 너무 반짝거리셨고, 또 단단하셨습니다. 제가 보듬어 드려야겠다는 저의 생각은 바보 같았던 것이었죠. 상투적이지만, 오히려 어르신께서 꾸밈없는 이야기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그 이후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어르신을 뵈러 가는 길은 항상 비가 왔고, 두근거렸고,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을 뵈고 돌아오는 길은 비가 그쳤었고, 따뜻했고, 무거웠습니다.

피눈물도 흘리시고, 꽃을 피우기도 하시며 살아오신 어르신의 소중한 인생을 내가 어떻게 글로 담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지하철 안에서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글을 완성하여 어르신께 조금이나마 인생의 창구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미미한 글솜씨로 어르신의 인생을 담을 수 있
는 경험을 한 것은 평생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수줍게 꺼내 주시던 요구르트와 옥수수를 잊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께서도 이 자서전이 그런 의미를 가진 작지만
소중한 존재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주시고, 인생을 공유해 주신 이두연 어르신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함께이기에 아름다운 인생

.....

정광호

언젠가는 마침표를 찍게 될 인생이지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희망적인 태도를 갖고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



- 일대기 요약
- 나의 학창 시절
- 따뜻한 봄날의 만남 그리고 결혼
- 나의 교직 생활 이야기
- 삼형제와 자녀 교육 신념
-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가족
-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며

일대기 요약

출생~ 10대

- 1937년 서울 출생
- 1950년 6·25 발발
- 1953년 휴전

20대

- 1957년 서울대학교 가정교육과 입학
- 1961년 5·16 군사 혁명, 대학 졸업 후 청주로 발령
- 1963년 5월 남편과 첫 만남, 같은 해 9월 약혼
- 1964년 1월 결혼 (만 27세), 충주 학교 근무
12월 큰아들 출산
- 1965년 남편 군 제대, 서울 예일여고 근무
- 1966년 둘째 아들 출산

30대

- 1970년 막내 아들 출산
- 2년간 휴직
- 송곡 여자고등학교 복직

40대~ 50대

- 삼형제 대학 입학 첫째 아들 의대,
둘째 아들 사범대 수학교육과
막내 아들 치대
- 1983년 지금의 아파트 마련, 시부모님과 합가
- 자녀들의 결혼과 출산
- 손자 5명, 손녀 1명

60대

- 1997년 남편 퇴직
- 1999년 2월 송곡 중학교 명예퇴직 (36년 근속)
- 퇴직 후 대통령 훈장 받음

70대

- 2014년 성북구치매안심센터 이용

80대

- 2018년 KBS스페셜 '주문을 잊은 음식점' 출연

나는 1937년 서울에서 4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첫째 오빠는 나보다 7살이 많았고 2년 뒤 여동생이 태어난 뒤에 남동생이 3명이 더 태어났다.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면 지병으로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방학 때마다 절에 가서 요양하며 지내곤 했다. 어렸을 때 나는 주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방학 때는 절에서 스님들과 시간을 보냈기에 사회성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원래도 성격이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도 적어 중,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를 많이 사귀지 못한 것 같다. 그래도 공기 좋고 물 좋은 절에서 조용히 공부하며 지내는 시간은 그리 나쁘지 않았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 나라가 복잡했음에도 효제초등학교를 거쳐 동덕여중, 동덕여고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대학에 가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어른 아이들이 많았고 여자가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이런 열악한 분위기에서 나는 지원했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계셨던 부모님 덕분에 나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자매들은 대학에 다닐 수 있었다. 나는 당시 여자에게 교사가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여 가정교육학과를 선택했고 6·25 전쟁으로 인해 원래 나이보다 1년 늦은 1957년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나의 남자 형제들은 주로 공대 쪽으로 진학했고 나랑 두 살 터울이 났던 여동생은 몇 년 뒤 서울대학교 가정교육학과에 입학해 나의 후배가 되었다.

서울 사범대는 내가 대학에 다닐 당시에는 지금의 제기역 근방에 있었다. 본가에서 전철을 타고 한 정거장 정도 걸리는 거리였기에 등, 하교를 편하게 할 수 있었다. 집이 학교랑 가까웠기에 밖에 나다니지도 않고 집에 주로 있었다. 또한 학교생활에 충실하여 아무 큰일 없이 4년 후에 졸업할 수 있었고 후에 처음으로 발령받은 학교에서 같은 서울대학교 출신의 약대를 졸업한 남편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이후에 서로 교제하면서 동문이

라는 공통점으로 학교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어색함을 풀고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다.

1961년도, 졸업 후 바로 취직하고자 교사 자리를 알아보던 중 박정희 정부의 군사혁명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1961년 5·16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초, 중, 고 시절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 서울에서 쫓 살아왔던 나로서는 당연히 서울로 발령이 나갈 간절히 원했었다. 하지만 5·16 사태가 터지고 나니 서울에 교사 자리가 딱 차 지원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눈을 돌려 교사 자리를 알아보던 중,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기보다는 그나마 연고가 있는 친척들이 거주하고 있던 청주에 가서 취직하고자 결정했다.

첫 직장을 서울 토박이인 내가 가족들과 떨어져서 청주라는 낯

선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자 나에게 큰 도전이었다. 졸업 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할 것이라 계획했던 것과 달리 청주로 내려가기로 한 이 선택이 이후 나의 삶에서 매우 소중한 새로운 만남을 갖고 오리라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청주로 내려와 청주여고에서 가정과 교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 남편을 처음 만났다. 당시 남편은 보건대학원을 졸업하고 약제장교로 임관해서 군 복무 중이었다. 남편이 휴가차 고향인 청주에 오곤 했는데 당시 나와 같은 학교에 근무 중이신 한상희 선생님께서 남편의 작은누나와 서로 친구이셨다. 선생님께서는 남편의 누나에게 이번에 학교에 서울대 사범대 나온 여선생이 부임했는데 동생 한번 소개해주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셨고 두 분의 소개로 남편과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1963년 5월, 날씨가 따듯한 봄에 남편을 처음 만났고 그해 9월에 약혼식을 올리며 결혼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다음 해인 1964년 1월 겨울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만난 지 1년도 채 안되어서 당시 군인이던 남편과 결혼을 했던 셈이다. 내성적이고 사랑 표현을 잘 하지 않던 나와는 달리, 남편은 만나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었고 엽서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표현해 준 덕이 아닐까 싶다. 남편과 학교 주변에 있는 딸기밭, 복숭아밭 변

두리를 걸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당시 학생들이 군복 입은 남자와 같이 있는 나의 모습을 봐서 거의 결혼하지 않으면 큰일 날 분위기도 빠른 결혼에 일조했다.

“당신이나 나나 특별한 과거도 없으니 미래나 만듭시다.”

다소 투박하면서 무심한 듯 던진 말이었지만 나는 이 한 마디에서 남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적극적인 남편 덕분에 우리는 그렇게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연애, 약혼, 결혼 모두를 할 수 있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나는 남편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모태 신앙으로 시어머님께서는 항상 새벽기도를 나가실 정도로 신실한 기독교인이셨고 남편 쪽 집안에는 목사님과 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있었다. 남편 또한 대학 시절엔 교회 기숙사에서 지냈을 정도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 남편의 뜻에 따라 나도 목사님께 세례를 받아 결혼식을 올렸고 후에 우리 아이들도 모두 유아 세례를 받았다.

결혼식은 서울에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시민회관(현 세종문화회관)에서 올렸다. 신혼여행은 당시 형편에 맞게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린 후 우이동에서 하룻밤 같이 지내기로 했다.

나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남편은 테니스와 등산

등 운동을 즐기고 좋아한다. 내가 조금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성격이었다면 남편은 활달하고 개방적이어서 사회에서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한 마디로, 남편과 나는 정말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과 내가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조금 더 오래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정반대의 성향이 오히려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했다. 나는 조용히 묵묵하게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며 가정에 헌신했고 남편의 의견과 결정을 항상 존중해주어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햇살 아래 내게 평생의 동반자요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한 남편은 지금까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처럼 내 옆을 지켜주고 있다.

1964년 1월 초에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2월 달에 첫째 아들 진수가 태어났다. 첫 아이가 태어났다는 기쁨과 함께 당시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던 시기라 남편과 가족 모두 기뻐했다. 남편이 군에서 복무하는 시기 결혼을 했지만 장교였기에 출퇴근이 가능했고 전방과 후방의 군 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남편이 결혼 생활을 위해 청주로 지원하여 같이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시대적 상황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충주여고로 전근했다.

1965년 남편의 군 복무가 끝나고선 서울로 함께 올라가 남편은 제약회사에 들어갔고 나는 그 당시 문성여고 현 예일여고에

가정과 교사에 지원했다. 문성여고에서 근무 중 둘째 은수가 태어났다. 그 이후 학교 계통으로 가고 싶어 했던 남편은 1971년도 그 당시 경희대학교 부속병원이 개원하던 시기에 창설 멤버로 근무했다. 남편은 경희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경희대에 있던 테니스장에서 의대 교수들과 같이 테니스를 배웠고 그 이후에도 테니스를 꾸준히 쳤다. 나중에는 집을 얻을 때도 테니스장이 근처에 있는 집을 얻었다.

나는 둘째 아들을 낳고 4년 뒤 1970년에 막내 인수를 낳았는데 인수를 낳고 나서 학교를 2년간 쉬면서 아이들 육아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남편이 그동안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안 먹어가며 아끼면서 모아 놓았던 돈을 사기를 당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고 나도 같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송곡여고에 가정과 교사로 지원했다. 직장생활을 할 때 나의 일과는 집과 학교의 반복이었고 퇴근할 때 중간에 경동시장에 내려서 먹을거리를 산 뒤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 교통편이 좋지 않아 고생을 많이 했고 시부모님도 모셔야 했기에 가정과 직장에서 바쁘게 살았다.

송곡여고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마지막 퇴직 5, 6년 전에는 송곡중학교에서 교도 주임을 맡아 그곳에서 1999년 2월에 퇴직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청주, 충주여고, 문성여고, 송

꼭여고, 송곡중까지 지방에서부터 서울에 있는 많은 학교를 거쳤고 퇴직 후에는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래도 오랜 교직 생활 덕분에 명예로운 대통령 훈장을 수여 받았고 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남편과 함께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었다.

남편은 경희대 병원에서 근무 중 을지병원으로 스카우트되어서 거기서 약제 과장으로 일하다가 1997년도에 정년퇴임을 하였다. 토요일마다 을지 병원 사람들과 등산을 했는데 은퇴 후에도 테니스와 등산으로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나이가 드니 체력과 건강이 제일이다. 삶에서 운동을 가까이하고 사람들과 같이 즐기며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편을 만난 것에 감사하다.

● 삼형제와 자녀 교육 신념

나에게는 아들이 셋 있다. 흔히 아들은 딸보다 키우기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감사하게도 세 아들을 키우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 아이들 모두 학생 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속 썩이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다.

남편이 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하다 보니 자연스레 아이들 또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첫째와 막내아들은 의료계통으로 진학했다. 큰아이는 의대에 입학해 외과 전문의가 되었고 막내아들은 치대에 입학해 지금은 교수가 되었다.

둘째 아들은 사범대에 입학했다. 시아버지가 교사 출신으로 교

장까지 지내셨고 우리 집안 쪽에도 교사 출신이 많았기에 자식 중 한 명은 교사의 대를 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내가 교사 생활을 하다 보니 수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 가르치는 것이 복잡하지 않아 보였고 아들이 수학에 소질이 있으니 수학 교사를 추천했었다. 집안에서는 아들이지만 딸 노릇을 하며 형과 동생을 중간에서 잘 챙기고 부모 말을 잘 듣던 둘째 은수는 현재 중학교에서 수학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부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 바로 ‘부모가 모범을 보이자’였다. 자녀들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강요하는 부모보다는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며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부모가 되고 싶었다. 자녀들이 삶을 더 풍요롭게 살고 은퇴 후의 생활까지 고려하여 운동 1개, 악기 1개는 어렸을 때부터 시켰다. 나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직접 가르쳐주었는데 피아노로 음악의 기초가 쌓인 후에는 각자 배우고 싶어하던 악기를 하나씩 배우게 해주었다.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막내아들이 오보에를 사달라고 한 것이다. 당시 값이 꽤 나간 수입 오보에였는데, 이것을 사주면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남편과 상의 후 사주기로 하였다. 그동안 형들이 쓰던 오보에로 열심히 연습하던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악기를 배우는 것에 열정을 보이니 기특했다.

남편은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테니스를 가르쳤다. 특히 테니스 동호회 같은 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는 담배를 피지 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교육에 있어서는 남편은 나를 믿고 맡겨주었다. 공부하라고 다 그치거나 강제하기보다는 그저 아이들을 믿고 지지해 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남편도 나와 같이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해줄 뿐 결정은 스스로 하게 하였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었다.

나는 아이들이 늦게까지 공부하거나 학원에서 돌아올 때까지 자지 않고 뜨개질을 하며 아이들을 기다리곤 했다. 뜨개질은 독학으로 열심히 배워서 깨우친 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내 아이들 옷을 만들기도 했다. 뜨개질을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많이 하다 보니 지금은 손이 구부러졌다.

아이들 어릴 때 머리를 집에서 직접 잘라주곤 했는데 그랬던 아이들이 어느새 각자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지금은 모두 50대가 되었고 이제는 반대로 내가 아이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손주와 손녀도 모두 건강하게 미국과 군대, 학교 등 각자 자



신이 속한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

젊었을 때는 지금 사는 이 집에서 시부모님까지 총 7명의 가족이 살았을 정도로 넓은 집이었으나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이들도 결혼하고 다 나가니 집이 쓸렁했다. 넓은 집에서 둘이 생활하려니 청소도 힘들고 이제 나이가 드니 관리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래도 나중에 자식들과 손주들이 이 집을 고향처럼 생각하고 한데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남편과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다.

우리 시부모님께선 돌아가신 날이 똑같아서 그날 하루에 자식들과 손주, 손녀 모두 정기적으로 우리 집에서 모이는데 그럴 때마다 쓸렁했던 집안이 꼭 차고 활기가 느껴져 기분이 좋다. 밝고 화목한 자식들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참 흐뭇하다.

남편과 나는 각각 1997년도와 1999년도에 퇴직했으니 어느덧 퇴직한 지도 20년이 넘었다.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하다. 흐르는 세월은 나의 선명했던 기억을 점차 흐릿하게 만들었지만, 정리 정돈을 깔끔하게 하는 습관과 뜨개질과 이발 등 나의 오랜 취미는 여전히 몸이 기억하고 있다.

나는 가족력이 있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일찍 노인성 치매가 찾아왔다. 2016년 치매 진단을 받았고 진단 후에는 약을 복용하며 성북구치매안심센터에서 평일에 교육을 받고 때때로 여러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가 심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직접 센터에서 실행

되었다.

최근 들어서 기억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몸과 정신이 건강했을 때 가족과 많은 추억을 쌓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가족들과 일본도 많이 가고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왔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페루, 중국, 캄보디아, 로마 등 4군데나 봤으니 이에 만족한다.

다만 남편과 등산을 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남편이 등산을 좋아하는데 젊었을 때 등산을 한 번도 같이 가지 않은 게 마음에 걸린다. 지금은 몸에 퇴행성 질병이 나타나서 산을 오르기가 어렵지만 소망이 있다면 근처 가까운 산에 남편과 같이 가 보고 싶다.

몇 년 전에는 남편과 함께 경증 치매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었다.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때 당시 사진을 보면 탤런트 송은이 씨랑 이연복 셰프님이 기억난다.

치매를 진단받은 지도 5년이 지났다. 그동안 남편도 나의 변화에 적응해가며 집안에서 2인 역할을 해주고 있고 치매를 극복하는 데 남편과 아들들의 역할이 컸다. 햇빛 받으며 운동해야 한



다는 남편 권유에 점심을 먹고 나서는 남편과 산책을 매일 한다. 집 앞에 있는 성북천을 따라 청계천이나 멀리 갈 때는 삼선교까지 왕복해서 걷고 있다. 남편은 새벽에 파워 워킹을 할 정도로 체력과 몸 상태가 좋지만 나와 발걸음을 맞춰 주며 벤치에 앉아서 쉬어가기도 한다. 이렇게 걸으면 최소 2시간이 걸리고 하루에 6,000보 정도는 걷는 것 같다.

매주 목요일에는 첫째가 운영하는 파주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서 진료나 물리 치료를 받고 있다. 둘째는 매주 반찬을 다 만들어 오고 막내랑은 일요일마다 밥을 같이 먹는다. 또 남편이 주말마다 2시간 동안 넓은 집을 청소해주어서 집이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다. 청소 후에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남편 머리를 다듬어주고 남편도 내 머리를 잘라준다. 남편과 아들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동안의 혼자서 생활하기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함께한다는 것, 인생의 노년이 되니 그 의미를 다시금 깨닫는다.

‘일체유심조’,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는 우리 부부 인생의 가치관이며 동시에 가훈이다. 뭐든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으며, 각자 주어진 인생에서도 늘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정답은 없는 것 같다. 자신이 처한 위치와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리라 생각한다. 행복은 마음에서 만들고, 천국은 가슴에 있다. 그러니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

지 않는다. 자식들에게 그저 현실을 충실히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인생에서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신앙이 큰 힘이 되어준다.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니 성격과 생활 습관이 서로 보완적이었기에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었다. 남편이 사기를 당했을 때, 대학원 학위 과정을 위해 입학시험 준비로 남편이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는 내가 남편에게 도움이 되었고 지금은 치매로 고생하는 나에게 남편이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고, 이해할 때 가족 모두 행복할 수 있다.

또한 ‘건강 자랑하지 마라, 나이 들면 다 똑같다’라는 말이 있듯이 노년에는 건강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나이 들수록 움직이기 싫고 운동하는 것이 힘들지만 매일 꾸준히 운동해야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다. 특히 신체 조건이라는 것은 가늠할 수 없으니 나이 80이 넘어서는 인생을 조금씩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언젠가는 마침표를 찍게 될 인생이지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희망적인 태도를 갖고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한 마디를 책에 남기고 싶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원봉사 작가 후기

유테레사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한번 뿐이기에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저도 늘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억 친구 봉사활동을 통해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조금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지난 시간을 되짚으시며 진솔하게 자신의 인생을 들려주시는 할머니, 할아버님의 한 마디 한 마디는 생생하게 살아서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인생을 다 들은 뒤 들었던 첫 느낌은 ‘아름답다’였습니다.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 묵묵히 살아오신 어머님으로서 삶은 참으로 빛났고 저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선한 가치관과 아름다운 삶의 영향력은 그 자녀분들에게, 또 그다음 세대에게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게나마 봉사활동을 한 저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쳐 주셨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떠날 때는 늘 문 앞까지 배웅해 주시고 저희가 갈 때까지 인자하게 바라봐주셨던 할머니와 할아버님의 겸손한 모습 또한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아울러 자서전 대필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과정들을 모두 인내해주시고 끝까지 완성이 수 있게 용기 주신 김지숙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유요셉**

고등학생 때 데이케어센터에서 봉사를 1년간 꾸준히 하며 치매 어르신들을 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르신 한 분은 저에게 30초마다 어느 학교에서 왔냐고 물어보셨고 또 다른 어르신은 집에 가야 한다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곤 하셨습니다. 이를 보면서 치매가 정말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평상시엔 괜찮다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행동하시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까 걱정이 되어 이번 자서전 봉사활동을 누나가 권유했을 때 조금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맡은 어르신은 평생 학생들에게 가정 과목을 가르

치신 온화한 할머니이셨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기억해내기를 어려워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할아버님께서 여러 사진들과 기록들을 보여주시며 설명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님의 설명을 들으면 그 당시 기억이 희미하게나마 나는 듯 옅은 미소를 띠시며 고개를 끄덕거리셨고 특히 자녀들 얘기에는 얼굴이 밝으셨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부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여서 안심이 되었고 누나와 같이 즐겁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누나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저는 노트북으로 받아 적는 형식으로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진행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면 할머니께서는 미리 깎아놓으신 과일을 가져오셨고 돌아갈 때는 두 분 모두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오셔서 배웅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태도, 말투, 행동을 보며 지성인이란 무엇인가, 또한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등 돈 주고는 배울 수 없는 값진 가르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집안에 가족사진이 참 많은 걸 보고 가족 간의 유대감이 높고 화목한 가정임을 알 수 있었는데 실제로 두 분과 대화를 나눠보며 가정에 대한 헌신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가정이었습니다. 특히 할아버님을 통해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힐링이 되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자서전 봉사를 추천해준 작은 누나에게 고맙고 대필 기회를 주신 김지숙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인터뷰 때마다 한 시간이 넘도록 쉼 없이 말하고 계속 앉아 계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을 텐데 힘든 내색 한번 안 하시고 인터뷰에 열심히 참여해주신 할머니님과 할아버님 두 분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장 프로그램에서 만드셨다고 가져가라고 챙겨주신 조그만 야자수도 정말 감사합니다. 조그맣던 게 지금은 제법 꽤 커졌습니다. 이 야자수를 볼 때마다 오늘도 성실히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할머니님과 할아버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두 분의 건강과 가족 모두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간 모든 순간에 대한 그리움의 회고

.....

정용운

지나간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비통한 기억들을 애도하며 내 마음을 비워내는 것,
이것이 내가 지나간 세월 속에서 터득한 삶의 지혜이다.



- 나의 젊은 시절, 나의 노래
- 부조리의 시련
- 후회 서린 나의 사랑
- 마지막 도약
- 끝맺으며
- 감사했던, 그리고 감사한 사람들에게



● 나의 젊은 시절, 나의 노래

내 어릴 적 꿈은 가수였다. 옛 어른들이 흔히 폄하하며 이르던 말, 모두가 아는 그 지칭어 ‘판따라’, 그렇다 내 꿈은 판따라였다.

어릴 적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던 터라 흔히들 말하는 지독한 가난, 보릿고개라는 말이 와닿지 않았다. 하루하루 풍족한 삶을 누렸고 적어도 금전적으로 남부러울 게 없었다. 어렴풋이 남아있는 기억이지만 할아버지는 장사를 꽤 크게 하셨다. 무역과 관련된 사업이었는데, 내 기억 속의 마지막 장면은 수많은 차에 실린 대나무가 전국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우리 집이 부유해서 내가 남 부럽지 않은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렇지만 내 유년 시절은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다. 아니, 돌이켜보면 그 순간순간에 많이 불행하다고 느꼈다. 유복한 어린 시절을 향유했음에도 늘 불행하다 느끼며 우울해했던 이유는 ‘무속인’ 이 세 글자로 설명된다. 우리 할머니는 무당이셨다. 집 한편에 신당을 차리고 부처님을 모시면서 굿하러 오는 사람들이 드나들었는데, 나는 그게 죽도록 싫었다. 할아버지를 따라 외가 쪽과 나 역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에 정말 환멸이 날 정도로 싫었다. 마음이 불안하여 어느 곳이라도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는, 속된 말로 가엾고 불쌍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항상 어딜 가던 사기꾼이라는 단어로 당시의 상황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심지어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어머니가 기도를 해서 그렇다는 망언을 쏟아낼 정도였으니 사기꾼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창 아무 생각 없이 또래들과 어울리며 마냥 웃음 짓고 행복해야 할 나이였지만, 할머니가 무속 행위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놀림을 받으며 친구들과 소원해지기 일쑤였다. 그 당시 내 얼굴에서는 미소 한 점 찾아보기가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울과 슬픔이 가득했다. 그 어린 나이에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런 나에게도 몇 없는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다. 노래와 연극, 앞서 말했던 판따라다. 지금이야 인정받고 존중받는 재능

의 영역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며 손가락질받는 비운의 영역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아버지가 너무나 싫어하셨고, 그만큼 내 인생에 찾아왔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에 있어 반대가 매우 거셌다.

그렇기에 시간이 많이 흘러버린 지금도 꿈에 대해 얘기할 때면 나 역시 탄파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추억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마다 아쉬움이 담긴 한숨을 내쉬고는 한다.

나는 살아가는 동안 그때의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담아내려 늘 노래와 함께했다. 이름 모를 흘러간 팝송들, 젊었을 적 녹음해 두었던 메들리,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음악과 마주하면 편안함을 느끼다 어느새 그때 그 자리로 향해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곡은 해조곡이다. 그 시절 우리 어머니께서 매일같이 들으시던 노래, 나는 오늘도 옛 기억을 되짚어가며 그날의 기억들을 떠올린다.

고개를 돌리면 추수를 기다리는 무르익은 벼들이 지천에 있던 그곳에서 나의 잊을 수 없는 시절이 흘러갔다. 그 당시에는 추석 때 시골에서 신파극이 많이 열렸는데, 그때 구경했던 무대가 아직도 눈에 선하다. 구자곡 국민학교 6학년 시절 우연히 이모

님을 따라가 구경하게 된 여성 국악단의 무대는 단숨에 나를 사로잡았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하루종일 거울 앞에서 흥내를 낼 정도로 푹 빠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누나가 내가 많이 하고 싶은 눈치인 걸 알아챘고, 몇 해 위의 더 큰 형한테 말해 어찌다 보니 논산훈련소가 있는 소룡리에서 ‘이슬에 젖은 삼 남매’라는 이름으로 연극을 선보이게 되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질 않지만, 그토록 무대를 갈망하던 꼬마가 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며 연기하는 모습은 무척 기쁘고 신나 보였을 것이다. 짧지만 길었던 시간 동안 묘한 설렘과 알 수 없는 흥분을 느꼈다. 무대를 끝마친 나는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음악을 더 많이 좋아하는구나. 가수가 된다면 하고 싶은 노래를 맘껏 할 수 있겠지? 기회가 된다면 연극 쪽으로도 나가보고 싶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며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워갔다.

그러던 중학교 3학년 때, 온양 온천에 있는 백구 육군병원에서 위문공연이 열렸다. 워낙 무대에 나서서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그 공연에 참가하여 최갑석 씨의 ‘38선의 봄’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우연인지 인연인지 그 자리에는 위문 공연을 온 최갑석 씨가 날 지켜보고 있었고, 이를 인상 깊게 본 그가 좋은 가수로 키워주

겠다면 나를 찾아왔다.

불현듯 다가온 운명의 순간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집안의 반대가 심했던 탓에 망설이다가 끝내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설득을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망설이는 나에게 할아버지를 뵈겠다면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하였다. 그렇게 함께 발걸음을 옮겼지만 역시나, 손자를 데려다 가수로 키워 보겠다는 그의 제안과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얼굴을 붉히며 우물쭈물 앉아있던 나,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당신이나 하세요.”라며 완강하게 거부하며 그를 내쫓았다.

이미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었지만,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아니, 서운함을 넘어서 분노의 감정을 느꼈던 것 같다. 항상 웃어른의 말씀을 잘 듣고 불만 없이 따르던 나였지만, 이때만큼은 반항심에서인지, 어렸을 적부터 염원해왔던 순간을 방해받았다는 생각에서인지 마음속 깊이 끓어오르는 울화에 복받치는 감정들을 이겨내지 못했다.

결국 다짜고짜 집을 나가 처음이자 마지막 일탈을 했다. 가수가 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일념으로 연고도 없는 서울로 상경하여 최갑석 씨를 수소문했다. 그렇게 3일 동안 많이도 낯선 곳을 배회하였지만 결국 찾아내지는 못하였



다. 어쩌면 내 인생에 있어 다른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순간을 그렇게 떠나보냈다.

비록 꿈은 이뤄내지 못했지만, 음악은 늘 나의 곁에 남아 나를 위로했다. 지독한 현실에 취해 아픔을 털어내려 정신없이 달려간 오아시스 레코드사, 그곳에서 녹음했던 어머니의 애창곡이 담긴 스무 곡의 메들리는 언제나 내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줬다. 그 어린 시절 상처 입은 꼬마도, 계속되는 이별의 아픔에 신음하던 젊은이도, 부조리의 시련이라는 인생의 쓴맛을 겪은 한 사람까지도 음악은 상처받은 ‘모든 나’를 위로했다.

2011년 어느 날, 당시 최유라와 조영남이 진행하던 MBC라디오에서 노래했던 게 기억난다. ‘라디오시대’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노래를 부르고 순위를 정하는 코너가 있었다. 점심 뉴스가 끝나면 꼭 듣던 라디오는 극심한 우울증을 앓던 수년간을 함께하며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줬다. 그래서 더욱 그들에게 보답하고 싶었다. ‘비 내리는 고모령’을 불렀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엔 부엉새도 울었다고요. 나도 울었소… 비 내리는 고모령을 언제 넘느냐… 오늘 밤도 불러본다
망향의 노래”

어머님이 보고 싶어질 때마다 목 놓아 부르던 그 노래, 사랑하던 어머님을 떠올리며 한 자 한 자 소중하게 적어놓은 가사를 그렇게 목 놓아 노래했다.

반주가 끝나고 내 노래를 들은 그들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님 노래를 정말 잘하시네요.” “다른 것보다도 감성이 그대로 전해져서 그게 너무 와 닿았어요.” 난 연거푸 감사를 표했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속이 후련했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남들 앞에서 노래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난 그 경연에서 1등을 했다. 그날 생방송이 끝나고 조영남 씨에게 전화가 왔다.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데 여태껏 가수가 되지 않고 뭐하였냐고, 나이가 많긴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었다. 자신과 함께해보지 않겠냐는 그의 제안은 감사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고 말하며 그와의 전화도 끝이 났다.

꿈을 좇아 희망을 품던 시절, 결국 내 뜻과는 다르게 마음을 접어야 했다. 그래도 음악은 살아가며 마주한 수많은 시련과 그로 인해 힘들었던 모든 순간에 나를 어루만지며 위로했다. 평생을 함께한 나의 유일한 벗이라는 말이 너무도 잘 어울린다. 무대를 동경했던 어린 꼬마가 현실의 벽에 가로막힌 채 녹록지 않은 삶을 견뎌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가며 마주했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순간에도 나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저

한 숨 내쉬어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음악이었다.

나에게 음악은, 노래는 그런 존재였다.

이제는 정말 지난날의 추억이 되어버린 나의 젊은 시절, 그날의 얘기들. 아직도 가끔 비가 오는 날엔 흘러가 버린 이름 모를 팝 송들을 틀어놓곤 한다. 예전과는 다르게 한 쪽 귀가 잘 안 들려 소리를 아주 크게 키워야 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앉아 귀를 기울이면 그 감성이 고스란히 전해져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또 가끔은 젊을 적 녹음해놨던 그 메들리를 들으며 지난날을 다시 기억해 본다. 유난히 낮이 길었던 어느 날 느지막이 찾아왔던 저녁노을. 조용히 눈을 감고 익숙한 목소리에 몸을 맡기면 어느새 나는 그때 그 자리로 향해있다. 샛노란 빛들이 쏟아지고, 청아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나를 감싸주던 그 밤. 시원한 향기를 마시며 달빛이 비치는 조그마한 강줄기 옆에서 잊지 못할 사람들과 함께했던 기억하고 싶은 그날 밤, 그 자리로 날 데려다준다.

누군가 나에게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묻는다면, 나는 단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야만 했던 그날을 대답할 것 같다. ‘부조리가 빚어낸 시련’,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그날을 형언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다. 그동안 대면했던 수많은 시련들 중에서도 가장 고단했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을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무력했다. 그렇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해 나갔던 절대 잊지 못할 그 시절이 있었다. 이제 그때의 나를 다시 한 번 불러내 보고자 한다.

내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일평생 군 생활을 하시던 아버지는 대

령으로 예편되셨다. 군에서 나온 연금을 한 번에 수령하여 온양에서 제재소 사업을 했지만 한 순간에 모든 걸 잃었다. 그렇게 집안이 기울어졌다는 것을 흥은동 산 1번지의 벽돌로 쌓은 무허가 집으로 이사하며 실감하게 되었다. 하룻밤 새에 집 한 채가 들어서는 곳, 주택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집들이 산의 높낮이를 따라 삐뚤빼뚤 줄을 지어 즐비해있던 곳, 그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불행의 씨앗이었다.

그 일이 있기 전, 우리는 지독하게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내 마음은 그저 구름 한 점 없는 날의 연속이었다. 우연치 않게 사랑을 맹세했고, 그 결실로 누구보다 소중한 아기도 나에게게로 찾아왔다. 가진 게 없어 힘들었지만 나를 웃음 짓게 해준 순간들이 존재했다. 그렇기에 견딜만했고, 군 입대 전까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인생 첫 여자와 결혼한 후 아내와 핏덩이 같은 자식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이 모두를 남겨둔 채 떠나온 군대였기에 더 눈에 밝혔던 것 같다. 그래도 편지로나마 그릴 수 있었던 가족의 모습은 아주 평온하고 화목해 보였다. 유일하게 소통의 창구였던 편지에서 분명 늘 잘 지낸다고, 아무 일도 없다고 하였는데, 1년 반 만에 휴가를 나가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한 내 고향의 풍경은 그제 아니었다. 젊은 날의 추억이 깃들었던 장소이

자 소중한 삶의 터전이 강제 철거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 당시의 모습을 회상하자면 말 그대로 눈앞이 새까맣게 변해 가는 것 같았다. 눈을 감아야지만 볼 수 있는 환한 대낮의 칠흑 같은 어둠. 역설적이지만 나는 그것을 두 눈을 감지 않은 채 바라볼 수 있었다. 분명 잘 지낸다고 했는데, 분명 아무 일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어디 가셨는지 온 데 간 데 없었다. 새까맣게 죽어가게 생긴 사랑하는 내 어머니와 처, 그리고 핏덩이 같은 자식만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움막 앞에 그 차디찬 길거리에 나앉아 멍하니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무너져 내린 집과 함께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어머니께 들은 얘기는 충격적이었다. 아버지는 군 생활 시절 알게 된 유력 정치인에게 함께하자는 제의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듬해 그와 반대되는 세력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도왔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했다는 것이다. 1970년대 당시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웠던 정국에 아버지는 당신의 신념을 따랐지만 그것이 화근이 되어 우리 집안이 온갖 고초를 겪게 된 것이었다.

눈 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한 나는 피가 끓어올랐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한달음에 서대문 구청으로 달려갔다.

나는 실랑이 끝에 구청장실 문을 억하심정으로 발로 차고 들어가 구청장과 다른 사람들 몇몇에게 “내 옷을 이 자리에서 벗기던지 집을 원상복귀 하라!”고 외쳤다. 하지만 내가 구청장실에 들어가려고 몸싸움을 하던 사이에 이미 헌병대에 연락이 취해졌고, 어떤 실마리 하나도 찾지 못한 채 헌병대로 연행되었다.

낮선 풍경이 주는 묘한 긴장감, 누구보다 땀뻘했지만 군인의 신분으로 관청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생각에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가늠조차 할 수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피어오르던 두려움은 어느새 온몸을 덮어갔다. 양팔을 잡힌 채 1층에서 2층 그리고 3층으로 하나씩 올라가던 나는 모든 게 끝인 줄만 알았다. 정말 모든 게 끝난 줄만 알았다. 마침내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도착한 그곳에서 나는 한 사람을 독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 어떤 추궁도, 모진 고문도 하지 않았고, 꽤 높은 직급일 거라고 짐작되는 그분과 단 둘이 남게 되었다. 짧은 정적이 흘렀고, 그 당시에 고급 담배였던 ‘신탄진’ 한 개비를 건네며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자네 담배 피나?”, 나는 답했다 “네. 핍니다.”

그렇게 담배를 내 손에 꼭 쥐어주며 그는 말하였다. “장하다. 그래도 군인이다.” 훗날 그 말을 다시 떠올려보니 지금은 군인 신분이니 오점을 남기지 말고 상관 말을 잘 따르라는 의미였던 것

같다. 그는 부관을 시켜 나를 집까지 데려다주라 했다. 떠나려
던 내게 어머님 맛있는 거 사 드리라며 그 당시 돈으로는 엄청
나게 큰돈이었던 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까지 쥐여 주었다.
‘박승만 헌병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석 자다. 나중에
아버지께 들으니 군 생활 시절 아버지의 후배였다고 한다. 그렇
기에 내 사정을 딱히 여겨 평생토록 감히 잊을 수 없는 감사함
의 순간을 만들어 준 것이었다.

지프차에 올라타 그곳을 벗어나 산동네를 올라갈 때, 누구에게
도 말하지 못할 설움이 내 목을 메어왔다. 집을 잃은 설움. 그렇
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차에서 내린 부관 역시 그의
눈 앞에 펼쳐진 모습을 보고 말을 잊지 못하였다. 그는 잠시 생
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이내 어머니에게 다가가 모두 잘 될 거라
고 위로의 말을 건네며 자리를 떠났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나버
린 것 같았다. 한순간에 잃게 된 내 삶의 터전을 다시는 되찾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대로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조금이라도 변화를 원한다면, 무력함에 취해 모
든 것을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었다. 정말 사소한 무언가라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물결이라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란 걸 누구보다 뼈

저리게 경험한 나였기에,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수많은 방도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지나갔고, 그중에서도 나는 내가 직면한 이 부조리를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선 언론사만이 불특정 다수에게 내 사연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에 이 일을 제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당시 언론은 이미 그들에게 장악당한 후였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갔던 수많은 신문사와 그곳의 기자들은 모두 난감해하며 내 얘기를 실어주기 꺼려했다.

그렇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각 신문사의 기자들을 한 명씩 수소문하여 찾아가 그들에게 사정하며 매달렸다. 그러던 중 내 얘기를 안타까워하던 중앙일보사의 한 기자가 실어주겠다고 나섰다. 그동안의 내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내가 겪은 모든 일을 생생하게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전후 사정을 알게 된 기자는 함께 분노하며 당장이라도 모든 내용을 기사에 실어 줄 것만 같았다. 실제로는 기자와 나눴던 얘기가 완벽히 실리지 못하고 검열되었지만 나의 눈물겨운 얘기는 신문에 담겨 전국에 퍼졌다. 사람

들의 마음을 울렸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후원금까지 도착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가족은 다시 예전의 삶을 어느 정도 되찾을 수 있었고 부조리의 산물이었던 곳 바로 그 옆에 아늑한 집도 마련할 수 있었다. 눈 감을 수 없는 악행과 맞서 쟁취해 낸 승리의 산물, 나에게 의미가 아주 깊은 집이었다.

[당시 중앙일보 기사]



그렇게 나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되찾고 나서야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다. 돌아간 군대에서 나는 이미 유명인사였다. 중대장님과 인사계 등으로부터 15일짜리 휴가증을 6장이나 받을 정도였으니 부대에서 내 사정을 모르는 이가 없었을 것이다.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던 어느 겨울날, 나는 헌병대로 차출되어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고군분투 끝에 되찾은 내 삶의 터전에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 나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이 얘기를 할 때면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진다. 그만큼 분개했고, 그만큼 통탄스러웠다. 원망도 많이 했다. 사랑하던 가족을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역시 많이 원망했다.

하지만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도 그날의 사건을 돌이켜보면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 나는 그 두려웠던 순간에도 용기를 잃지 않았고 주저앉아 절망에 휩싸이지 않았다. 오히려 내 속에 끓어오르던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 부조리에 정면으로 맞섰다는 것이다. 쉽게 견뎌낼 수 없었던 혹독한 상황을 마주한 그 순간, 무너지거나 회피하거나 도망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그 상황과 맞닥뜨려 내 자신과 대면하는 것, 이는 지금까지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신이다.

다시 한 번 영화를 돌려 보듯 되짚어 본다. 과연 아무것도 모른 채 기분 좋게 휴가를 나왔던 그날에 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목도한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렸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그 상황에 압도되어 모든 것을 놓아 버렸더라면, 내 인생 그리고 내가 그때 기억하고 있던 사랑하는 내 어머니와 가족의 모습

은 분명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그렇기에 누군가 나에게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묻는다면 단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날이었다’고 답할 것이다. 그리고 또 누군가 ‘많이 두렵고 힘들지 않으셨나요?’라고 묻는다면 ‘너무나도 고된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버티며 이겨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 내가 자랑스럽다고 그때의 나에게 말해 주고 싶다.

-
-
-
-
-
-
-

내가 여성들을 만나 가정을 이끌면서 어리석은 습관과 신중하지 못한 선택이 파경을 빚어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에서야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이 담담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를 돌이켜보면 바람 잘 날 없이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미화된다는데 그때의 내가 감당해내야만 했던 아픔의 크기가 워낙 컸기에 행복한 날보다는 고통에 신음하고 몸부림치던 나날들이 더욱 기억에 남는다. 결혼 생활을 세 번 실패하면서 잃은 것도 많았지만, 살아가며 감내해내야 할 것들을 피부로 느끼며 삶에 대처하는 자세를 배우기도 했다.

나만의 일방적인 회고이기에 자칫 한쪽으로 치우쳐진 얘기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판단은 이 이야기를 들은 각자의 몫이다. 평생에 걸쳐 있었던 세 번의 결혼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려가며 부단히도 노력했던 나의 지난날의 얘기들. 이를 지금부터 전해보고자 한다.

나의 첫 번째 결혼은 사랑의 감정이 자리 잡아서 가약을 맺은 게 아닌 동정심에 의해 시작된 인연이었다. 어느 날 급하게 걸려왔던 친구의 전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힘 빠진 목소리에는 난처함이 묻어있었다. 사정을 묻자 홍은동 시장의 한 여관에서 자신이 페인트 작업을 하던 집의 식모로 일하던 아이와 함께 머물고

있는데, 여관비도 없고 밥도 먹지 못해 허기진 상태로 이도저도 못하고 있어 5,000원만 빌려달라는 전화였다. 친구의 부탁이기에 망설임 없이 넉넉한 돈을 챙겨 집을 나섰고, 여관에 도착한 후 밥을 시켜 주린 배부터 달래주고 여관비도 모두 계산하였다.

바로 그때 내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급한 상황을 모면한 친구는 여자를 맡겨놓고 떠나버렸고 갈 곳 없어 처량해 보였던 그녀를 나는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서 잠시 쉬었다 가세요.”라며 호의를 베풀었고 그녀 역시 흔쾌히 응했다. 전라도 부안 출신이라는 그녀는 집에 온 뒤로 집안일도 하고 부엌일도 하면서 지냈는데, 음식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했다. 어머니는 그녀를 근본도 없는 여자라며 반대하셨지만, 할머니는 “대체 어디다 숨겨놨다가 이제야 데려왔냐?”라고 말씀하시며 마치 운명의 짝을 찾은 것처럼 맘에 들어 하셨다. 갈 곳 없어 방황하는 그녀를 잠깐 머무르게 하려고 데려온 것인데, 어느새 나와 평생을 함께할 인연이 되어 버린 것이었다.

이렇게 내 첫 번째 결혼생활이 시작되었다. 더 늦기 전에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했기에 첫 아이를 낳은 지 19일 만에 군 입대를 해야만 했다. 군 휴가 때 있었던 큰 사건으로 인해 2년이 채 안되어 헌병대에 차출돼 의가사 제대를 한 후, 사회로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나에게서는 내가 부양해야 할 가

죽이 있었고,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채 어떻게든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만 했다. 적어도 내 자식이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너졌던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어린 시절처럼 금전적인 면에 있어서 남부럽지 않은 수준의 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재력을 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던 차에, 전역 후 몸담을 수 있었던 문화연필 회사에서 바라본 문구 분야는 꽤나 돈이 되어 보였다. 어렸을 적부터 할아버지가 “나중에 장사를 하게 되면 붓 장사를 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볼펜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신문에 볼펜을 돌돌 말아 다니며 볼펜장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행상이었다. 볼펜을 신문지로 돌돌 말아 등에 지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물건을 사달라고 호소했다. 10킬로에 달하는 문구를 짊어지고 서울 시내 전역을 다 돌아다녔다. 원체 나는 불임성이 좋아서 서글서글하게 다가가며 장사를 잘 했다. 명동에 문구 백화점을 짓겠다는 각오로 임했고, 점점 거래처를 늘려나가다 나중에는 ‘모나미’에서도 내 제품을 사갈 정도였다. 운도 따라줬던 것 같다.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은 나에게 큰 기회였다. 치솟는 석유파동과 함께 볼펜값도 같이 올라 더 큰 돈을 벌 수 있게 됐다.

행상을 하면서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각지를 다 가봤다. 사무용품은 금방 소모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그리고 인천에서 대전으로 옮겨 다니며 객지 생활을 반복했다. 돌아보니 젊어서부터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지고 전국을 누비며 돈을 벌러 다닌 탓에 후유증이 크게 남은 것 같다. 이렇게 내 젊음과 건강, 정말 모든 것을 바쳐가며 나는 돈을 벌었다

하지만 이토록 고생하던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줘야 할 아내는 내가 집을 비우고 일을 나갈 때마다 사람으로서, 배우자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수차례나 반복했다. 가장 사업이 번창하던 시기에 첫 가약이 17년 만에 원통하게 막을 내렸다. 바람 잘 날이 없었던 그녀의 반복되는 외도 때문이었다. 두 번까지는 어머니가 살아 계셨기에 그래도 한번 믿어보라며 눈감아줬다. 그러던 중 1982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녀는 세 번째 외도를 저질렀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도대체가 사람 된 도리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었다. 이쯤 되니 그녀와의 슬하에 두었던 네 명의 자식도 의심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사랑을 약속했던 그녀와 그 사이에서 맺어진 결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근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참았다. 마지막으로 믿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저버렸다. 결국엔 인간이 아니라 짐승으로 보였다. 더 이상

그 어떤 선처도 해줄 맘이 사라져 간통죄로 고소했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마음이 약했던 탓일까. 십여 일이 흐른 날, 남자도 버티기 힘든 그 혹독한 곳에서 약한 여자가 어찌 버틸까 하는 마음이 들어 그녀를 풀어줬다. 그렇게 우리는 17년 만에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나 보다. 그렇게 데이고 또 데였는데, 결국 나는 그녀를 용서해줬다. 그렇게 동정심으로 맺어진 인연은 측은지심으로써 끝이 났다.

첫 결혼을 실패한 후, 원망과 함께 빠져린 아픔을 몸소 느끼며 삶을 연명해 갔다. 사랑하는 어머님마저 세상을 떠나버린 가혹한 현실에서도 나는 모두 털어내고 다시 일어나야만 했다. 고달픈 삶을 이어가던 1986년,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 정권의 궤가 같아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러니 서울에서 사업을 키워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했고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수 없자 행상마저 접게 되었다. 다행히 아버님께서 부산에 있는 후배를 소개해줄 테니 도움을 받아 그쪽에서 머무르라고 하셨다. 쫓겨나듯 도착한 곳이었지만 그동안 축적해 놓은 부를 바탕으로 국제시장 뒤편에 문구 도매상 가게를 열어 재도약을 꿈꿨다. 배달하는 아이들을 셋이나 두었으니 규모는 꽤나 컸다. 나중엔 제주도까지 판매 권역도 확장되어 제주시의 '인천당'이라는 곳에서

우리 물건을 가져갈 정도였다. 제주도를 한 달에 한 번씩 놀러 갈 정도로 신임도 아주 두터웠다.

나의 두 번째 사랑은 이때 찾아왔다. 앞서 말했던 부산에서 가게를 시작하기 전에 제주도에서 일을 마치고 목포로 향하는 길이었다. 저녁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곳에서 서빙을 하는 종업원이 나를 아주 살갑게 대해줬고 외모도 압전하여 내 맘에 쏙 들었다. 그녀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설명하고 마음에 들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렇게 금세 정이 붙어 많은 시간을 함께한 우리는 같이 부산으로 들어오게 됐다.

나는 늘 그랬듯이 내가 벌어들인 모든 금전을 동전까지 긁어모아 아내에게 주었고 커피를 마시는 것도 용돈을 타서 썼다.

그런데 이번에도 낌새가 이상했다. 어느 순간부터 가정에 소홀해지는 게 조금씩 느껴졌기 때문이다. 뽀뽀(핸드폰 전에 사용하던 호출기)와 집 전화 시절 가끔 내가 자리를 비울 때 주문이 오면 아내가 이를 처리했는데, 어느 날 전화를 아무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아한 생각에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말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어찌 된 일인지 알아보니 그녀는 시도 때도 없이 노름을 하러 다닌 것이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가끔은 일도 거

들어 주는 줄 알았는데, 내가 마주한 그녀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한 데 섞여 화투를 신명나게 치고 있었다.

나 스스로가 기구했다. 허름한 옷차림을 한 채 충혈된 눈을 바라보니 머리가 하얘졌다. ‘차라리 백화점이라도 가지...’ 옷이고 뭐고 거지같이 입고 도박판에 기웃거리던 그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내가 모든 걸 바쳐 번 돈을 다 탕진하기에 이르렀고, 알고 보니 빚까지 지고 있는 상태였다. 그녀의 빚을 갚아준 것만 모두 네 번이었다. 아무리 어려워도 10원짜리 하나 꿔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다. 타일러도 보고, 으박지르기도 했다. 아이가 3살이 되던 해부터는 아이를 나 혼자서 키워냈던 것 같다. 그래도 난 그녀를 놓지 않았다. 그렇게 노력하던 끝에 정신을 차렸는지 그녀가 내게 말했다.

“재희 아빠 잘못했어요. 서울로 가면 당신이 원하는 요조숙녀가 되어 새 출발 할게요.”

그렇게 부산에서의 기억을 모두 정리하고, 서울 용두동에 방 한 칸을 얻어 행상을 다시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변하지 않은 그녀의 모습을 맞닥뜨렸고, 사는 것에 집중하자는 나의 말 한마디에 그녀는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가 버렸다. 이렇게 나의 두

번째 결혼 생활도 막을 내렸다.

끝을 모르는 외도와 집안이 기울어질 정도의 노름, 이 정도면 끝인 줄 알았다. 그런데 더 기구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서울로 올라온 나는 아이를 홀로 키워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연이 닿아 한 문구 회사의 간부로 일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활은 조금 안정되는 듯했고 아이와 둘이서 함께하기에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지만, 엄마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다.

우선 파출부를 고용했다. 처음 온 사람은 일하는 게 맘에 들지 않았다. 반찬도 신경 써주지 않았고 집안일도 미숙해 보였다. 다시 새로운 사람을 구했는데, 나보다 조금 어려 보이지만 내 또래였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집안일도 너무 잘했고 반찬 솜씨도 뛰어났다. 그리고 아이한테도 너무 잘해 주었다. 내 사정을 딱히 여기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던 것 같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에겐 ‘엄마’라는 존재가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아이의 엄마가 되어달라고 부탁했고, 우리는 바로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이게 사단이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던 이력이 있었고, 혼인신고를 한 지 두 달이 안 돼서 일이 터졌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문을 열기 전부터 뭔가 웅한 느낌을 받았다. 집으로 들어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집안의 모든 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 세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고, 또 한 번 기구한 운명이 펼쳐졌다. 여기까지가 찬란했던 되돌릴 수 없는 후회 서린 나의 사랑 이야기이다.

세 번의 결혼, 첫 단추를 잘못 꿰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구슬픈 탄식을 자아냈고 인간에 대한 믿음과 도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내가 정이 많은 탓인지 측은한 마음과 동정심이 생기면 외면하지 못하는 탓인지 모르겠다. 세 번의 결혼 생활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복을 가져다주지도, 정신적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평범한 가정을 가져다주지도 않았다. 오히려 내가 일궈놓은 모든 것을 앗아가기 바빴다. 사랑을 맹세하며 평생을 함께하자고 기약했던 그들은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한탄만을 남긴 채 모두 떠나가 버렸다.

후회가 서리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참 미련하게 살았던 것 같다. 내 인생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평생을 일궈냈던 사업도 한순간에 모두 무너졌고, 끼니도 굶어가며 한 푼, 두 푼, 소중히 모았던,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벌었던 돈마저 제대로 한 번 써보지도 못한

채 모두 잃고 말았다. 죽을 각오로 임했던 짧지 않은 인생에서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내 선택에 대한 후회와 그들의 잘못에 대한 환멸, 그리고 하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멋대로 아물어버린 상처들. 그뿐이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많은 순간을 흘려보낸다. 그래서 다시는 마주할 수 없는 소중한 인연들을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아픔을 채워줄 그 무엇과 새롭게 조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언젠가 이별의 아픔으로 끝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도 늘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하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멋대로 아물어버린 상처들에도 그 나름의 의미는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무뎌지고 아무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아픔은 덜해진다. 예전처럼 실연에 잠식당하지 않고도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게 된다. 반복된 사랑과 이별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가며 그렇게 흘러간 시간 동안 나는 끊임없이 아파했고 또 끊임없이 고민했다. 고독을 즐기며 외로움에 익숙해졌던 인고의 시간은 마냥 헛되지만은 않았다. 그 속에서 괴로워하며 절규하던 나였지만 분명 그 이상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도 한 때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다. 지금은 다시 볼 수 없

지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랄 뿐이다. 용서. 순탄치 않았지만, 이 단어로 후회 서린 나의 사랑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싶다. 지나간 세월 속에서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있어 내 삶의 이야기가 완성됐다. 그렇기에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나는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됐고, 또 완전히 용서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도대체 왜 이제 왔냐고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아홉 바늘을 꿰맸다. 젊은 시절부터 10킬로에 달하는 볼펜을 짊어지고 전국을 휘젓고 다닌 터라 이미 몸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다. 그 와중에 머리까지 크게 다쳐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집 안을 기어 다니며 아이 밥만 간신히 차려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 버렸다. 수중에 있는 돈은 5만 원이 전부였다. 정말 암담했다. 안 그래도 홀로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나인데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냉혹한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를 정신 차리게 한 아이의 한 마디가 뇌리를 스쳐 온몸 구석구석을 들쭉셨다.

“재희야,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야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나의 한 마디에 아이는 이렇게 답했다.

“아빠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세상이 요동치는 것만 같았다. 보이지 않는 커다란 무언가에 머리를 세계 맞은 것만 같았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저 가엾은 어린애가 내뱉는 것일까. 나는 엄마 없이 혼자 크는 아이의 설움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고 있다. 사고로 인해 하루살이처럼 버터가는 불편하고 힘든 아빠 모습은 어린 애가 감당하기 얼마나 어려웠을까. 나만을 바라보며 따라 죽겠다는 아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너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

다.’ 아이의 그 말은 더 이상 한탄조차 나오지 않는 비참하고 암울한 현실에서 우울감에 짓눌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던 나를 세상으로 이끌어줬다.

아이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매일 눈물을 흘리며 재활 운동을 시작했다. 그렇게 6개월을 버텨내자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하지만 예전과는 상황이 너무나도 달랐다. 분명 이를 악물고, 눈물을 머금고 시련의 아픔을 던고 다시 일어선 나였지만 현재 나는 모든 것을 잃고 아이를 혼자 키워나가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을 뿐이었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다. 그런데 그 기회는 우연치않게 찾아왔다. 종로 3가에 볼 일이 생겨 나갔다가 차창 밖을 바라보는데 놀라웠다.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에 모여 물건을 사고팔고 있었다. 나는 아직 몸이 불편하고 예전처럼 가게를 크게 열 수도, 그렇다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시 행상을 다닐 수도 없었다. 그래도 내 인생의 대부분을 투자했던 장사를 다시 해보자는 마음이 생겼다. 장사는 자신이 있었다. 노점상이 지금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묘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길로 집에 있는 꽤많은 물건들을 모두 긁어모아 그곳으로 향하였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고들 말한다. 그렇게 향한 동묘 주변 빈

자리에 앉아 손님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 팔에 완장을 찬 경비들이 와서 진열해 놓은 물건들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자릿세를 내라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너무나도 나빴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어려운 사람끼리 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그럼 유 회장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오라는 것이었다. 단숨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내 목이 두 쪽 나는 한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말이다. 터져 나오는 화를 겨우 가라앉히며 “애 하나 데리고 어렵게 사는데 장사 좀 하자.”라고 차분하게 말했으나 그럼에도 그는 돈을 내지 않으면 자리를 줄 수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언쟁이 몇 차례 오간 끝에 타협점을 찾지 못한 나는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처음 만날 때부터 탐탁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횡방을 놓았지만 나는 굴하지 않았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자리를 옮겨 다니며 물건을 팔면서 주변 상인들과 친분을 쌓았고, 유 회장과도 눈도장을 찍으며 결국 자리를 하나 얻게 되었다.

몇 달동안 내 눈에 비친 이곳은 말 그대로 비리의 온상이었다. 월세 놓듯이 자리를 팔았으며 수금도 하였다. 장물도 허다했고 이곳에서 노점을 하는 옆에 일곱은 술과 주색, 바로 옆의 경마장에 빠져 살며 하루 동안 힘겹게 번 돈을 모두 탕진하는 식이었다. 이곳 상인회의 운영 방식과 이곳을 관할하는 기관들의 공무

집행 방식은 더욱 가관이었다. 흔히 말하는 유착 관계가 눈에 선했고 유 회장의 여자는 비싼 값에 커피를 강매하고 있었다. 요즘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이게 현실이다. 커피를 사지 않으면 이곳에 앉아있을 수 없다. 무법지대와 같은 이곳에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피해를 끼치는 만연한 행태를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단속은 이미 그들만의 전유물이 되어 있었다. 원체 불의와 부조리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기에 나는 이곳을 변화시키고 싶었다. 유 회장과 경비들의 횡포는 그칠 줄을 모르고 더욱 거세졌다. 이 모습을 도저히 지켜볼 수 없었던 나는 한걸음에 혜화 경찰서로 달려갔다. 본래 이곳은 혜화 경찰서와 종로구청 관할이라 그들이 앞장서 위반 사항을 단속해야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항상 흐지부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들끓는 제보와 경찰서로 찾아간 나의 적극적인 항의에 힘입어 그동안 유 회장의 횡포를 유심히 지켜보던 최 형사가 수사를 시작했다. 결국 유 회장이 구속됨으로써 길고 길었던 그의 만행은 막을 내렸다. 그 후, 노점에 평화가 찾아왔고 갑작스럽게 공석이 되어버린 상인회의 차기 회장도 하루빨리 선출해야 했다. 상인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며 그들의 고충을 대변해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평소 유 회장 일당의 횡포에 몸살을 앓고 있던 상인들은 불의에 맞선 나를 치켜세우며 “정

용운 씨가 회장 자리를 맡아줘야겠다.”라고 말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를 회장으로 추대했다. 얼떨결에 내가 회장이 되었지만 상인회 회장으로서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은 커피는 마시고 싶은 사람만 제 값에 마시도록 한 것이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자릿세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동안 너무 만연해 버린 불법적인 행태를 바로 잡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오로지 상인들을 대표해야 하는 상인회가 오히려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기고 있었다. 앞장서서 깨끗하고 청렴한 상인회로 바꾸는 첫걸음을 뗐다. 이것이야말로 개개인의 불안정한 삶을 어느 정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상인 회의를 주도하며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번영해 나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의논하며 고민하였고, 인고의 노력 끝에 비리의 온상이었던 이곳은 모두가 인정할만한 모범구역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던 중 구속된 유 회장이 사람을 시켜 리어카 바닥에 마약을 몰래 숨겨두는 일이 있었다. 그 바람에 경찰서에 끌려가는 일도 있었지만 마약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고 영장실질심사 역시 무혐의가 나와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렇게 마지막 남은 방해꾼도 사라진 후 내가 가장 안타깝게 바라봤던 것이 노점상인의 불안정한 삶이다. 나는 이를 바로잡고 싶었다. 우선 그들 각자의 삶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 그들과 신

회를 쌓는 일부터 시작했다. 이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경찰서에 동행해 조서를 작성해주기 같이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내 일처럼 함께했다. 또한 조그마한 수첩에 명부를 작성하여 생일과 이름을 적어놓고 그들의 삶에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다.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인식을 바꾸고 싶었다. 물론 과거를 답습하며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이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대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지만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었다. 사무실에서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그동안 이곳의 상인들은 한 번 사가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교환과 환불은 일체 거절하며 때로는 비난과 위협까지 일삼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노점상이어도 우리는 상인이고, 상품의 질이 떨어지면 교환도 해주고, 필요에 따라 환불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설득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니까 노점 장사 해먹고 살지’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우리 모두 신중하게 장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이다.

많은 것을 바꿨다. 그리고 많은 것이 바뀌었다. 절대 내가 혼자 한 일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내가 이뤄낸 모든 것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고 완벽할 순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냈다. 짧다



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다. 얼마 안 있어 심장 건강이 악화되어 가장 믿음직한 동생에게 “정정당당하게 네가 상인회를 이끌어 나가라.”고 신신당부하고 자리를 물려줬다. 떠났지만 아쉬움은 없다. 그곳을 떠나던 날, 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작별 인사를 나눴고, 그곳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해줬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으니 그들이 흘려준 눈물만큼 이곳에서의 생활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에도 그곳의 사람들은 그때의 나를 잊지 않고 찾아주며 내가 좋아하는 옷과 모자를 한가득 보내주곤 한다. 그래도 내가 애썼던 만큼 그들에게 나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긴 했나 보다. 아이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 치열한 생업 현장에 함께할 수 있어 기뻐다. 상인회 대표로서 모두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조금 더 함께할 수 있는 상인회를 만들기 위해 힘썼던 것 같다. 그렇기에 지금은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어버린 나의 마지막 도약은 내 인생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조각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 소중했던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나를 표현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의 마지막 조각으로 말이다.

내 이야기를 읽는 각자가 느끼는 점이 모두 다를 것이다. 누군가는 나를 치량하다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가 어리석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용서의 미학, 내가 모든 것을 비워낼 수 있었던 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일을 겪으며 차곡차곡 쌓인 경험들이 나의 내면에 자양분이 되어 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시련을 마주한다. 그 시련이란 이별의 아픔이 될 수도, 그토록 바라던 것을 이뤄내지 못한 것일 수도,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에 빠트린 것일 수도 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그 아픔의 크기는 모두 같다. 시간이 지나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부질없는 일이었을 수도 있다.

영겁의 시간 중에 누구에게나 외로움과 고독은 찾아온다. 그속에서 우리는 늘 선택해야만 한다. 그 선택이 나를 괴롭게 할 수도, 나를 웃음 짓게 할 수도 있다. 이는 모두 각자의 선택으로 빚어진 결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순간에 대해 조금은 의연해질 필요가 있다. 내 감정과 시간을 소비해가며 이미 흘러가버린 것들을 붙잡으려 하는 것은 꽤나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떠나가 버린 모든 것들을 지켜내려 애쓰지 않고 ‘그저 인연이 아니겠지’ 하며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불행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관계에서 완벽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스스로를 옥죄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며 겪게 되는 일련의 순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씩 배워가며 성장해 나가다 보면 분명 지난날보다 더 나아진 내 자신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나간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비통한 기억들을 애도하며 내 마음을 비워내는 것, 이것이 내가 지나간 세월 속에서 터득한 삶의 지혜이다.

감사했던, 그리고 감사한 사람들에게 ●●●●●●●●

저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할아버님, 그리고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너무도 일찍 제 곁을 떠나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두 분은 제 인생의 위인입니다.

너무 외롭고 고독하여 세상을 등지기로 마음먹었을 때,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찾아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게 해주시고 제 삶을 구원해주신 ‘김지숙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는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직도 잠긴 대문을 열기 위해 높은 담을 뛰어넘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진심을 다해 절 찾아주시고 안부를 물어주시는 그 모습은 늘 감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그 누구도 이렇게

까지 해준 적이 없었는데, 몇 번이고 저에게 도움을 주시며 저와 함께해주셔서 정말 말로 다 하지 못할 감사함을 느낍니다.

병원에 있는 저를 데리러 와주셨던 ‘김애희 선생님’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항상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힘 써주시는 청렴하고 성실한 천사님, 천사님들 같은 분들이 있기에 오늘도 대한민국이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활동을 통해 잊고 지내던 옛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며 추억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지만 간략하게나마 제 일생이 담긴 책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는 데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 보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자원봉사 작가 후기

..... 박준혁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버님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 행복했고, 많은 얘기를 나누며 저 역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더 많았더라면 아버님의 인생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습니다. 제가 미처 담아내지 못한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기록하여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아버님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함께 회고하며 글을 써 내려가는 동안 제가 살아왔던 시간을 비추어 볼 수 있었고, 제 내면과 마주하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선물로 주신 고독한 외침이 담긴 스무 곡의 카세트테이프는 아버님을 기억하고 싶을 때마다 사진과 함께 꺼내 들으며 추억하겠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기억과 추억의 순간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는 꽃을 피워내기까지

.....

조남운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기에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저 좋은 일이 되는 것이다.
나는 내 모든 삶을 아끼면서 살아왔기에 매 순간 힘든지도 몰랐으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나의 모든 길이 꽃길이었다.



- 언제나 그리운 유년 시절
- 전쟁과 함께 찾아온 고난
- 초등학교 졸업 후
- 이별과 만남
- 굶힐 수 없던 나의 의지
- 나의 전성기, 가족 재단사
- 인생의 선물 같은 자녀들
- 늘 자상했던 남편에 대하여
- 아직 지지 않은 꽃

● 언제나 그리운 유년 시절

누군가가 나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유년 시절이라고 말할 것이다.

나의 고향은 작은 면 소재지의 마을이다. 충남 서산군 운산면 갈산리. 당진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 고장은 생강이 유명하여 이집 저집 생강을 키웠다. 나는 그곳에서 결혼하고 상경하기 전 유년기의 전부를 보냈다. 고향을 생각하면 언제나 그리운 마음이 든다. 행복했던 유년 시절과 영원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것 같던 건강한 부모님이 추억 속 내 고향에 존재한다.

부모님은 위로 오라버니만 셋에 막내딸로 태어난 나를 금이야

옥이야 귀하게도 키워주셨다. 자식을 모두 8명 낳았지만 그중 셋을 먼저 가슴에 묻어야 했다고 한다. 남은 오빠 셋과 늦둥이 막내로 태어난 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자식을 낳아보니 이제야 알 것 같다.

46세에 나를 보신 아버지는 참 엄한 분이셨지만 막내딸인 나에게만큼은 한없이 자애로운 분이셨다. 단 한 번도 큰소리로 혼내신 적이 없었고 그저 예뻐하셨다. 어머니 역시 42세에 나를 출산하여 막내딸이라고 농사일은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시고 행여나 아플세라 다칠세라 넘치도록 사랑을 주셨다. 덕분에 모두 힘들었던 그 시절에도 부족함 모르고 어려움 없이 자랐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는 3형제에 당숙까지 한옥을 짓는 목수 일을 하는 대목수였고 어머니는 집에서 길쌈을 하시고 농사를 지으며 가정을 일구어 나갔기 때문에 언제나 여유로울 수 있었다. 그 시절 여자 아이로는 흔치 않게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도 여자라고 교육을 등한시하지 않은 아버지와 부족하지 않은 집안 형편 덕분이다.

지금이야 여자라고 학교에 못 가는 일이 흔치 않은 세상이지만 그 시절 여자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보다는 보통 집에서 집안일을 돕기 바빴다. 마을에 내 또래 중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 아이는 대여섯뿐이고 친구 중에는 학교에 가는 친구보다 안 가는

친구가 많았다.

요즘 사람이 보기에는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시골은 그랬다. 모두 초등학교에 가지는 못했다. 나는 우리 면 소재지에 있는 운산 국민학교에 다녔는데 서산군에서는 역사가 깊은 학교 중 하나였다. 학교에는 오라버니들도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추억 하나는 공예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아무개 오빠가 만든 것이라고 하며 오라버니의 작품을 보여준 일이다. 친구들 사이에서 어깨가 우쭐해지고 오라버니들이 어찌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길쌈을 하시던 어머니와 목수 일을 하시던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우리 형제들은 손재주가 참 좋았다. 내게 뜨개질을 처음 가르쳐 준 것도 오라버니들이니 말이다.

학교는 내게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창구였다. <셈본>이라는 수학 교과서로 산수와 주판을 배웠는데 그게 어찌나 재미있었는지 아직도 생생하다. 자연스레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 되었다. 숫자로 계산을 해서 정답을 찾는 일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 없었다. 공부하는 것이 좋았던 나는 학교에 다니는 내내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고 친구들과 사이도 좋았다.

비록 숫기가 없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반장을 하고 싶다고 나간 적은 없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우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선



생님께서 많이 예뻐하셨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그늘에서 사랑받고 걱정할 것 없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던 그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아닌가 싶다. 한복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고무신을 신은 채 학교에 가고 학교가 끝나면 우리 집과 바로 마당을 사이에 두고 사는 동갑내기 친구와 만나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사방치기를 하던 나의 유년 시절이 그립다.

꿈이라는 것은 생각도 해보지 못하고 나중에 무엇을 하고 싶은 줄도 모른 채 살았지만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던 그때가 가끔 생각난다.

6.25 전쟁이 일어난 건 내 나이 10살 때다. 옆구리에 칼을 찬 인민군들이 집마다 들이닥쳐 숨긴 청년들을 찾겠다고 온 집안을 뒤지던 모습이 지금도 선연히 떠오른다. 나와 16살 차이가 나는 큰 오라버니는 징병에 끌려갔다. 장남을 전쟁에 보내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자 부모님은 딸을 교육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며 나에게 학교를 그만두라고 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부모님의 뜻에 따라 휴학을 했지만, 학교에 못 가는 것에 몹시 애가 닳았다. 어린 나에게는 전쟁의 공포보다 학교에 못 가는 상황이 더 큰 시련처럼 느껴졌다.

그때부터는 큰 오라버니가 제대하면 바로 학교에 간다고 베풀

며 큰 오라버니가 돌아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일 년 만에 국군 병원에서 오라버니의 부상 소식을 보내왔다. 아버지는 장남의 부상 소식을 듣고 급히 돈을 마련하기 위해 논 두 마지의 땅을 팔았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돈을 금방 마련할 수 없는 시기였지만 땅을 판 돈으로 큰 오라버니를 제대시킬 수 있었다. 전쟁통에 정신이 없던 그 시기에는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다.

격랑의 시기를 보내며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일까? 6.25 전쟁이 터진 그해에 나는 ‘주마담’이라는 병이 생겨 일 년을 움직이지 못한 채 엎드려서 보내야 했다. 주마담은 피부가 몸 한구석 어디 성한 곳 없이 여기저기 끓아 터지는 병으로 끓은 피부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썩어갔다. 특히 무릎과 허벅지에 많이 생겼는데 까닭 없이 온몸 여기저기 생긴 피부병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야 했다.

아버지는 46살에 얻은 귀한 막내딸이 혹시나 잘못될까 봐 노심초사하셨다. 그러나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병원에 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병원은 커녕 의사를 구할 수도 약을 구할 수 없었다. 부모님은 그때 내가 죽는 줄 아셨을 것이다. ‘죽어도 원 없이 먹이거나 실컷 먹이자’라는 심정으로 고기며 먹을 것을 정말 원 없이 사다 먹이셨다. 당시 쉽게 구할 수 없던 소고기도 전

쟁통에 동네에서 소를 마음대로 잡았기 때문에 돈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구해 먹을 수 있었다. 움직이지 못해 먹는 것조차 누워서 해야 했던 나에게 어머니는 끼니마다 구해 온 맛있는 음식들을 손수 떠먹여 주셨다.

전쟁을 겪는 중이었고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고통과 함께한 시간이었지만 살기 위해서였을까 먹는 것 하나만큼은 꾸준히 잘 먹었다. 옆드려 누운 채로 고통에 신음하며 생활하는 나에게 어머니는 아픔을 잊게 뜨개질을 취미로 하라며 실을 주셨다. 오라버니들이 뜨개질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양말 짜는 것에 취미를 붙였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부모님의 간절함이 통했던 건지 1년 동안 쉬지 않고 나를 괴롭힌 주마담은 딱 1년을 앓은 후 홍만 남긴 채로 깨끗이 나았다. 큰 병을 앓고 난 후 지금까지 아픈 곳 없이 건강한 것은 막내딸의 건강을 염원한 부모님의 사랑 덕분일 것이다. 고통 속에서 보낸 시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큰 오라버니의 제대를 기다리고 주마등으로 꼬박 1년을 앓은 후 나는 2년 만에 그토록 염원하던 학교로 복학할 수 있었다. 2

년을 쉬었기 때문에 복학 시험을 보고 다시 학교로 돌아간 나는
동기들보다 2년 늦게 졸업장을 손에 쥐 수 있었다. 남들이 보기
에는 별거 아닐 그 졸업장이 나에게는 고통과 시련을 잘 이겨냈
다고 주는 선물처럼 느껴졌다.

초등학교를 마친 나는 중학교에 진학해 공부를 더 하고 싶었다. 둘째 오라버니는 참 똑똑했다. 막 중학교에 들어가던 그해 여름에 6.25가 터져서 다니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 가기 힘들었던 서산 농민 중학교에 입학했다. 지금도 꼭 어제처럼 기억나는 것이 둘째 오라버니의 합격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우리 집에 선생님이 방문한 일이다. 지금은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면 학부모가 선생님을 찾아가 인사를 하지만 그때는 학교 선생님이 직접 우리 집으로 인사를 오셨다.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당시 우리 집을 방문한 선생님의 성함과 산 너머 먼 동네에 산다며 오솔길로 돌아가는 선생님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둘째 오라버니는 비록 전쟁통에 중학교 신식 교육을 마치지 못

하고 서당을 다녔지만, 서당에 다니면서도 공부를 잘해 서당 훈장님 할아버지께 예쁨을 많이 받았다. 오죽 예뻐으면 다락에 넣어 놓고 먹는 떡을 오빠에게만 줘서 먹이기도 했다고 한다.

공부를 좋아하고 잘했던 나는 둘째 오라버니처럼 중학교에 입학해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 시절은 동네에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아이들이 더 많던 시절이었다. 우리 마을에도 서산 여자 중학교에 간 친구 한 명을 빼고는 아무도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다. 나 역시 그중 한 명이었다. 큰 오라버니에게는 나보다 딱 2살 어린 아들이 있었다. 조카인 그 아이를 중학교에 보내느라 나는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막내딸인 나보다 큰 오라버니 아들인 그 아이를 중학교에 보내는 게 당연한 시기였다.

그토록 하고 싶은 공부를 더 하지 못해서 속이 상하고 애가 닳았지만, 상황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겉으로 투정을 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한 가지 억울한 것은 나 대신 중학교에 간 조카 녀석이 공부를 못하고 흥미도 없어서 중학교를 중퇴했다는 것이다. 누구는 학교에 못 가 속이 까맣게 타고 애가 닳았는데 그렇게 쉽게 관두다니. 그럴 거면 내가 중학교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이 든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나는 집에서 농사일을 돕고 길쌈을 하며 지냈다. 삼베, 모시, 무명을 가리지 않고 베를 짰다. 올케는 애 키우랴 밥하랴 들락날락하며 바빴기 때문에 밥을 하지 않았던 나는 대신 여름 내내 혼자 베를 짰다. 어머니는 동네 길쌈 대장이셨다. 베를 짜는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꽤 있지만 짜기 위해 풀을 먹여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메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네에 메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어머니는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솜씨를 가진 분이었고 여기저기서 일이 들어왔다. 어머니가 베를 맨 것을 짜는 일은 나의 몫이었다. 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더 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지만 솜씨 좋은 어머니 옆에서 베 짜는 일을 보고 배운 게 능력이 되어 결혼 후 시집 생활을 할 때도 후에 사회생활을 할 때도 큰 밑거름 역할을 했다.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병상에 누운 것은 내 나이 17살 때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암이었던 것 같지만 그때는 병원에 가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시골에는 병원이 잘 되어 있지 않기도 했고 더군다나 전쟁 후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다.

병간호는 온전히 막내딸인 내 몫이었다. 누고 일으키는 것부터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수발을 내 힘으로 들었지만 힘들고 고생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부모를 모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했다. 아버지는 겨울 동안 두 달을 앓고 돌아가셨다. 예뻐한 막내딸에게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월 초

이튿날 가족들의 곁을 떠나셨다.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를 다 해도 그 심정을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원히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같던 아버지를 여의고 슬픔은 깊었지만, 우리 가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다. 다행인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길쌈을 하였고 큰 오라버니가 농사일을 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다.

결혼을 한 것은 21살 때다. 남편과는 중매를 통해서 만났다. 우리 동네에 웅기그릇을 가지고 다른 면 소재지를 다니며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옆 동네인 당진으로 물건을 팔러 갔다 와서는 ‘옆 동네에 괜찮은 남자가 있다. 잘 생기고 사람 좋더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웅기장수와 친구인 사촌 오빠가 그 얘기를 듣고 내 생각이 나 사람이 그렇게 좋으면 우리 사촌 동생 좀 소개해 보라고 중매를 주선했고 얼마 후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우리 집으로 와서 선을 보게 됐다.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있는 자리에 더군다나 선을 본다고 하니 이웃집들까지 난리가 나서 정작 나는 남편과 처음 만난 날 사람이 어떤지도 모르고 보냈다.

그래도 키 크고 잘생긴 남편이 싫지는 않았던 것 같다. 우리 집

에서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다.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사람 하나 보고 결혼을 허락했다. 나를 시집보내며 어머니는 돌아보면 우니까 절대 뒤를 못 돌아보게 하셨다. 순진하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래야 하는구나 싶어서 한 번 뒤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시집을 갔다.

시댁은 산골짜기 언덕배기에 밭 몇 두둑과 교편 생활을 하는 시숙이 사준 논 두 마지기에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정말 사람 하나만 보고 한 결혼이었기에 고생도 많았지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사랑만큼은 많이 받으며 살았다. 부족하지 않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오라버니들은 막둥이가 시집을 간다고 예물로 양복장, 이불장, 서랍장 3가지를 준비해 보냈다. 특히 베를 짤 줄 아는 것을 시어머니께서 참 좋아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울을 모으는 것은 해도 베를 짜는 일을 못 하셨다. 내가 시집을 가기 전에는 이모님을 모셔다가 짰다고 하는데 내가 시집간 이후에는 사람을 따로 부르지 않아도 며느리가 베를 짜니 아주 좋아하셨다.

남편과 결혼 후에는 시댁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았다. 시숙
께서는 교편 생활을 하셔서 거처를 자주 옮기셨고 바쁘셨던 탓
에 내가 만며느리 노릇을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고되다고 생
각하지 않았고 언제나 시부모님을 살뜰히 모실 수 있도록 주의
를 기울였다. 시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마다하
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께서는 나를 많이 아끼고 신뢰
하며 살갑게 해주셨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시댁에서 농사
를 돕고 길쌈도 하며 시동생들까지 돌보는 고된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도 불평 하나 하지 않았다. 그렇게 10년간량을 시부모님
을 살뜰히 보살피며 함께 지냈고 며느리로서 해야 할 역할을 톡
톡히 해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골에서 작은 논밭으로 농사를 지어 사는 것에 한계를 느꼈고 22살에 첫아이를 낳고 셋까지 낳자 자식들의 교육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농사를 짓고 사는 시골에서의 삶이 권태로웠고 그즈음 서울에서 자리 잡고 사는 둘째 오라버니와 셋째 오라버니를 보며 서울에 가고 싶은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상경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라버니댁에 잠깐 놀러 가는 것도 반대하셨다. 심지어는 내가 셋째 아이를 갓 낳고 바람 쐬러 서울 오라버니댁에 다녀오겠다고 하니 갓난아기를 뺏기까지 하셨다. 언제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모셔왔으나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모른다. 물론, 내가 시댁 살림에 큰 도움이 된 만큼 서운한 마음이 큰 것은 이해하지만 친정에 다녀오는 것을 막다니. 나에게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서러움으로 다가왔다. 그 설움에 나는 결국 혼자 서울로 올라갔다. 반대를 무릅쓰고 홀로 둘째 오라버니댁으로 찾아갔으나 갓 낳은 아이를 두고 왔으니 가슴이 불어 몸도 고생하고 두고 온 아이들이 눈에 걸려 마음도 고생하였다. 결국 나는 고작 하룻밤만을 지내고 다시 돌아가야만 했다. 그런데 내가 시댁으로 다시 돌아갔을 적에 남편은 나를 찾겠다고 서울로 올라간 탓에 시댁에 없었다. 서로 엇갈리고 만 것이다.

오라버니는 내가 몸 고생, 마음고생 하면서도 서울로 기어코 올

라와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하소연한 것이 마음이 쓰였는지 나를 찾아온 남편에게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냐며 서울로 올라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돌아온 남편에게 그 말을 전해 듣고 나는 곧장 식구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했고 그때야 시어머니는 우리를 보내주셨다. 결국 나의 바람대로 우리 식구는 상경하여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로 상경하고 나서는 오라버니댁에 신세를 지다가 1년 정도가 지난 후에야 사글셋방을 얻어 온전히 우리 가족이 독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타지에서 생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낯선 곳에서 가정을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뛰어들어 경제력을 키워야 했다. 남편은 서울은행 본점에서 근무했던 둘째 오라버니의 심부름을 하다가 이후에는 리어카에 채소를 가득 담고 시장에 나가 그것을 팔기 시작했다. 남편은 고된 일이라도 뛰어들었으나 수입은 하루 벌어 하루 먹을 정도였고 돌아서면 배고픈 4명의 자녀를 건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아득할 정도로 부족한 생활비를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곧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릴 때 오라버니들에게 배운 후로 줄곧 잘해오던 뜨개질

을 부업으로 시작하여 이후에는 가족 재단사로서 가족회사에서 근무하여 가정 내의 경제활동을 도맡아 하며 기둥 노릇을 하였다. 남편은 회사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나를 위해 자신이 하던 일을 모두 접고 살림을 도맡아 하였다.

여자라고 살림을 해야 하고 남자라고 바깥일을 해야 한다는 그 시대의 고정관념 따위는 우리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 부부의 의견이었다. 사회의 통념은 우리를, 나의 의지를 막지 못했다.

매일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서서 10시간 정도 서서 근무해야 했고 철야도 잤아 쉬는 날도 많지 않았지만 내 손재주로 회사에 도움이 되고 가족들이 편히 잠들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고된지도 모르고 매일 열심히 일했다. 경력이 쌓인 후에는 나의 손재주와 실력을 인정받아 해당 업계에서 최고 대우를 받았다. 그 덕에 우리 가족 또한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 더불어 고학력까지 교육하기 힘들었던 당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명의 자녀들을 어느 정도 교육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 덕분이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돌이켜보며 나는 단 하나도 후회하는 순간이 없다. 지금껏 살며 내가 만난 모든 길목에 나는 스스로 선택하

며 걸어왔기 때문이다. 내가 서울로 올라오겠다는 나의 바람대로 상경한 덕에 아이들을 교육하기에 더욱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고 우리 부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굳건히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었다. 또한 나의 손재주를 발휘하여 가족 재단사로서 일하고 자녀들이 부족함 없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경제력을 내 손으로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상경을 반대하셔서 서울로 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황이 더 좋았을 수도, 나빴을 수도. 물론 무엇도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후회했으리라고 확신한다.

그 길은 나의 주체적 의지와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주변의 소리에 굴하지 않고 나의 뜻과 의지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누구보다 내 선택을 믿었고 내 스스로 뜻을 굽히지 않고 나아갔다. 그 덕에 나는 많은 것을 이루었고 오늘날 무엇보다 값진 선물인 자부심을 얻었다.



● 나의 전성기, 가족 재단사

가족 재단사로 회사에서 근무했던 시기를 나는 나의 전성기라고 말하고 싶다. 내가 경제생활에 첫발을 디딘 것은 상경한 후 변변치 않은 살림에 보태기 위해 뜨개질로 부업을 한 것이었다. 당시 채소를 팔던 남편의 수입으로는 한창 자라나는 네 자녀를 배불리 먹이기 어려웠으므로 나는 내가 밭 벗고 나서야겠다고 생각했고 지인에게 소개받아 코바늘로 모직을 엮어서 솜을 만들어 의류를 수출하는 회사에 넘겨주는 일을 시작했다.

사실 뜨개질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자칫하면 우그러지거나 늘어질 수 있으므로 손재주와 섬세한 눈썰미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작업이다. 나는 목수였던 아버지와 모시와

삼베 등 다양한 옷감을 짜곤 하셨던 어머니의 남다른 손재주를 물려받았고 어릴 적부터 뜨개질을 곧잘 하였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 입기도 편한 옷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어느 날은 회사 관계자 한 분이 의류 회사에서 일해 볼 의향이 있냐고 물어왔다. 나의 손재주를 알아보고 새로 생기는 의류 회사에서의 일자리를 제안해 온 것이다. 뜨개질을 부업으로 수익을 벌어들이던 것과는 다르게 출퇴근도 해야 했고 작업 시간도 늘어나지만 그만큼 급여도 훨씬 높았다. 나에게는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력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기에 그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곧장 남편에게 가족회사에서 일하겠다고 통보했고 남편은 흔쾌히 받아들여 자신이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였다.

그때부터 나는 가족 재단사로서 나의 경력과 가치를 펼쳐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족 재단이라는 일은 뱃가죽, 등가죽 등 부위에 따라 특성이 다른 가죽들을 보고 이 가죽은 옷의 어느 곳에 들어가야 더 효율적일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므로 눈썰미와 판단 능력이 필요하며 값비싼 가죽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더 적은 가죽을 사용하여 옷을 만들어내야 하므로 계산 능력도 갖추어야 하는 일이다. 물론, 가죽을 만드는 옷에 따라 정확히 재단



해야 하므로 손재주 또한 필수적인 작업이었다. 다행히도, 나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길쌈하는 것을 돕고 늘 뜨개질을 하며 키워온 손재주와 눈썰미로 능력을 크게 발휘하였고 회사에서도 나를 인정해주었다.

게다가 그 무렵 회사에 입사할 때만 해도 얼마 없었던 의류 회사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경력이 있고 결과물이 좋은 나를 찾는 곳도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나는 대기업인 대우그룹에서 차리는 가죽 공장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고 그곳에서 일하며 업계 최고 대우를 누리기도 하였다. 대우그룹의 공장은 지금은 수출산업단지라 불리는 구로공단에 있어서 정릉에서 출퇴근하기에는 아주 멀었다. 지하철을 타고 청량리까지 가서 또 회사 차로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었다. 그러나 나는 대기업에서 나를 최고 대우해주며 스카우트했다는 자부심과 뿌듯함에 기꺼이 그 길을 오갔던 것 같다.

한편, 대우그룹에서 일할 때는 내게 시골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가죽 재단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죽 재단에 필요한 눈썰미와 손재주는 배운다고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중 대부분이 이 일을 완벽히 수행하지 못했다. 그만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나는 만드는 옷에 맞게 가죽을 활용하였고 같은 양의 가죽을 가지

고도 남들보다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었으므로 나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축 회사에서 나를 원했고 나는 우이동, 수유리 등에 있는 가축 회사에서 작업을 했다. 그러나 가축 재단사로서 일하기는 쉽지만은 않았다. 10시간가량을 서서 근무해야 했으며 야근은 물론이고 철야도 잦은 일이었다. 분명 고된 일이었지만 나는 내 실력을 발휘하여 가축 회사를 키우는 데 이바지한다는 것에 큰 책임감을 지니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내가 열심히 일하며 번 돈으로 가족들이 편한 곳에서 잠들고 굶주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값진 보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가축 재단사로서 내 청춘을 바치며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고 그 덕분에 나는 내 힘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었다. 당시 여성의 힘으로 경제활동을 해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흔치 않았을뿐더러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나는 온전히 내 힘으로 그들을 건사하였고 나는 지금도 그 점이 무엇보다 자랑스롭다. 또, 나는 가축 재단사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내 능력을 아낌없이 펼쳐내었다. 오랜 출근길에 지치고, 긴 작업 시간이 고되고,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달려가고 싶을 때도 나는 언제나 책임감을 느끼고 작업에 임했고 끝내 나는 내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 덕분에 나는

몸이 쇠하고 눈이 안 좋아져 일을 그만두게 되는 그날에도 전혀 아쉬움이 없었다. 나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어났고 치열하게 스스로와 다투며 매사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처럼 나는 매사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어떤 후회도, 미련도 남기지 않을 수 있었다.

● 인생의 선물 같은 자녀들

누군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젊은 시절, 나는 그 의견에 크게 동의하지는 못했다. 당시 사회에서는 결혼하고 출산하는 일이 당연하였기 때문에 나도 마땅히 그래야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스물두 살, 첫 아이를 낳던 그 순간도 신이 내린 축복이나 영광처럼 뇌리에 깊이 박혀있지는 않는다. 누구나 그렇듯 나 또한 출산과 육아가 처음이었고 모든 것이 서툴렀으며 한순간 엄마가 된 책임감의 무게를 견디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였다. 또, 이 아이를 잘 키워내기 위해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에 전념하느라 영광이나 축복 같은 감상에 젖어있을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첫 아이를 낳고 내 나이 서른에 낳은 막내 딸 아이를 마지막으로 8년의 시간 동안 세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이 내게로 찾아왔다. 그들이 내게 왔던 그 시절에는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 내 젊음을 바치느라 정신이 없었기에 몰랐다. 하지만 그들과 수십 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난 지금에야 확신할 수 있다.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은 축복 그 자체였음을. 나는 아이들에게 내 젊음과 무한한 신뢰를 바쳤고 그들은 항상 그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 빛나는 기억을 나에게 선물했다. 그 시간을 돌아보니 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나에게 고등학교를 자퇴하겠다고 처음 이야기했던, 벌써 몇십 년이 지난 그날 밤이 떠오른다.

그날,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의 긴 근무시간을 마치고 밤이 되어서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 고된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나에게 아들은 할 말이 있다며 웃음기 없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엄숙한 표정에 나는 곧장 아들의 말에 귀 기울였고 그의 말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저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바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아들은 공업 고

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나는 가족들을 위해 회사에서 일하며 보다 높은 급여를 받기는 했지만 혼자 벌면서 자녀 4명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언제나 빠듯했다. 나는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기는 힘들 거라고 판단하여 기술을 배워서 자신의 앞가림을 할 수 있도록 공업 고등학교에 진학시켜 둔 것이다.

그런데 1년 정도 아주 문제없이 다니는 듯했던 아들이 급작스럽게 자퇴를 하고 싶다고 털어놓으니 나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그러나 나는 침착하게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아들은 담담한 말투로 자신은 기계 다루는 것에 소질이 없고 적성에도 맞지 않으니 공고는 자퇴하고 공부를 하여 대학교에 진학하겠다고 답했다. 예상치 못한 아들의 통보에 며칠간은 이른 아침부터 나가 늦은 저녁에 돌아오면서도 그의 자퇴 여부에 대해 숙고해야 했다.

그리고 나는 아들의 결정을 믿고 따르기로 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아들이 자퇴를 결정한 목적이 대학 진학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들의 대학 학비를 어떻게든 부담할 각오를 해야 했고 그가 어려운 독학 끝에 대학에 합격하여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그려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했다. 그리고 나는 기꺼이 그럴 것이라고 다짐한 것이다. 그렇게 아들은 공업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홀로 학원에 다니며 공부하였고 나는 아들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족 재단 작업에 더욱 열중을 가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며 2년을 보냈고, 끝내 아들은 명문 대학교에 입학하여 4년의 대학 생활도 잘 마치고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 아들의 대학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쓰고 사진을 찍던 그 순간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는다. 손수 자신의 학사모를 나에게 씌워주는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그 순간을 선물해 준 아들도 쉽게 가늠하지 못할 것이다. 아들만이 아니라 세 딸아이 모두가 따로 재촉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학교에 진학하거나 자기 일을 찾아감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길로 나가서 그것이 나에게겐 언제나 큰 자랑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큰 딸아이를 고등학교에 진학시키지 못한 것이다. 사실 당시에는 부모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자녀들을 대학까지 진학시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을 자신도 잘 알고 있었던 큰딸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생활에 뛰어들었다. 나는 미안함에 직접 말을 꺼낼 수는 없었으나 그것이 어찌나 마음에 걸리던지 큰딸 아이를 볼 때마다 늘 한편으로 마음이 짠했다. 누구보다 책 읽는 것을 좋아했던 큰딸 아이인데 만이라는 이유로 더 교육받지 못한 것이 어찌 서럽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큰딸은 시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서운한 내색을 단 한 번도 비친 적이 없다. 나는 그런 큰딸이 한없이 안쓰러운 동시에 고맙

고 또, 너무나 자랑스럽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마음은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붓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 나는 내 모든 몸과 마음을 몽땅 꺼내 주었으나 언제나 한없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나의 노력을 알아주었는지 그들은 훌륭하게 장성하여 나에게 토끼 같은 손자, 손녀들을 보는 재미까지 안겨주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내 청춘과 끝없는 신뢰를 주었고 아이들은 기꺼이 나에게 사랑과 자부심이 되어주었다.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과 존재 자체가 내 인생에서의 선물과 같았다. 훗날 누군가 내 인생이 가치 있었냐고 묻는다면 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떠올리며 확실히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은 천성이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넷째 중에 둘째인 남편은 처음 소개를 받아 만났을 때 제대하고 부모님과 함께 농사일하며 지내고 있었다. 우리 집보다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집에서 순전히 남편이라는 사람 자체만을 봤기 때문이다. 모르는 사람이 봐도 잘생긴 외모에 키도 크고 흰칠해서 사람 하나는 괜찮겠단 싶어 사위로 삼았다고 한다. 어른들의 눈이 틀리지 않았는지 남편은 언제나 다정하고 나를 존중해 줬다.

서울에 올라오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의견이었다. 시골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며 사는 게 남편에게는 더 편할 수도 있었을 텐

데도 내 뜻을 따라주었다. 창신동에 사글셋방을 얻어 나온 후에 남편은 시장에서 리어카를 끌고 채소 장사를 했다. 돈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때까지 농사만 짓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재주가 있을 리 만무했다. 돈도 밑천도 없었기에 먹고살기 위해서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다. 괜히 서울에 올라와 고생한다고 불평을 할 수도 있었지만, 남편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갔다.

내색은 안 해도 돈을 못 버는 게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신경성으로 여기저기 아프기도 했다. 일종의 마음의 병이 생긴 것이다. 다행히 내가 가진 재주를 알아봐 주는 사람을 만나 일자리를 얻은 후에는 남편이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나는 직장을 다니며 역할을 바꿔서 살 수 있었다. 원체 깔끔하고 꼼꼼한 남편은 집안 살림을 나보다도 더 잘 해주었고 그 덕에 나는 걱정 없이 바깥 일을 했다. 그런 일로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밖에서 돈을 벌어 오는 나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살림을 꼼꼼히 해나갔으며 일을 하느라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는 나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봤다.

권위적이지 않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라서 항상 감사했고 남편 또한 본인을 대신해 일하는 나에게 항상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남들이 보기에는 여자와 남자가 하는 일이 바뀐 것으로 보이겠지만 꼼꼼하고 자상하며 깔끔한 남편과 바깥에서

돈 버는 즐거움이 컸던 나는 이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데 이런 걸 보면 그냥 둘이 바뀌서 살기 위해 만난 운명이 아니었나 싶다.

아이들을 다 키우고 가족 재단사를 은퇴한 후에는 큰아들이 우리 부부를 데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했다. 안 가본 곳 없이 구석구석 많이도 다녔는데 모든 장소가 다 좋았고 남편과 아들 내외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더없이 행복했다.

내가 은퇴를 하고 난 그 무렵부터 남편은 소일거리로 집에서 50m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청소 일을 맡아서 했다. 처음에는 학교 급식으로 나오는 우유를 교실마다 개수를 맞춰 나눠주는 일을 했는데 그게 돈이 얼마 안 되니 교장 선생님께서 청소 일까지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두 가지 일을 하니 돈백이 넘었고 덕분에 부족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었다. 청소는 둘이 같이하고 우유를 나누는 일은 남편이 혼자 했다. 아침 일찍 가서 우유를 나누고 밥을 먹은 후 교실 문 앞에 배달해 주면 저녁에 다시 우유 상자를 전부 걸어서 정리하는 일이었다. 덕분에 온 가족이 우유는 실컷 먹었다. 우유를 잘 마시는 며느리에게 우유를 가져다주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이었다. 청소 일이 고되어도 남편과 둘이 하니 힘든 줄도 모르고 참 재미있게 잘 다녔다. 그때 우리는 더없이 건강했기에 걱정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런 일상의 즐거움도 세월의 무게 앞에서 영원할 수는 없었다. 남편은 꼼꼼하고 깔끔한 만큼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이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 때문이었을까. 우리도 모르는 새 담도암이 생겼고 그때부터 2년간 투병 생활을 한 뒤 돌아가셨다. 병원에 다닐 때는 모두 내가 직접 모셨다. 자식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었다. 대학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일이 끝나면 환자를 퇴원시켰고 집에서는 남편의 병간호를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마지막 1년은 말기 암 환자들을 받아주는 병원 1인실에서 보냈다. 차라리 개인 병원 1인실에 모시니 다행스러웠다. 남편은 침대에 있고 나는 보조 침대를 쓰며 1년 동안 집을 거의 버리다시피 비워둔 채 병원 생활을 했다. 아이들이 밥을 해다 주면 그 밥을 먹고 1년 조금 넘는 시간을 병원에서 남편과 보냈다.

아파서 정신이 없으니 서로 하고 싶은 얘기도 못 나눈 채로 그냥 보낸 것이 마음에 남지만, 원망은 하지 않는다. 그냥 내 팔자라고 생각한다. 남편은 마누라를 잘 만날 팔자였나 보다. 마누라 덕에 서울 와서 살아 보고 병원 생활 하며 조금이나마 고통도 덜 받았으니. 아마 많이 고마웠을 것이다. 나 역시 다정하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을 만나 참 고마웠으니 말이다. 우리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로 여느 주례사처럼 검은 머리가 파 뿌리가 되도록 서로 존중하며 참 잘 살았다.

마당에 꽃을 심었더니 달큰한 꽃향기가 온 마당을 메운다.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불과 어제 같은 그 날에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서로 장난을 치느라 정신이 없던 그 마당이다. 그 마당에는 건장하고 젊었던 남편이 집 어딘가를 고친다며 땀을 흘리며 똥똥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도 했다. 일을 마치고 금방이라도 잠들 것 같은 얼굴로 들어온 나에게 자다 깬 아이들이 달려오며 맞아주기도 했다. 훌쩍 자란 아이들이 학교에 간다며 마당을 나가기도, 직장에 나간다며 나가기도, 결혼을 한다며 짐을 싸 들고 나가기도 하였다. 자녀들이 나가고 텅 빈 그곳에서 남편과 이것저것 심으며 텃밭을 가꾸기도 하였다.

딱 차고 정신없던 그곳에 이제는 꽃향기만이 가득하다. 나는 3년 전 끝내 남편을 떠나보낸 후, 이제는 모두 가정을 꾸려 나간 자녀들의 소식을 듣고 가끔은 얼굴도 보면서 홀로 이곳에 지내고 있다. 모두 각자의 자리로 떠나가고 나만 남은 곳이지만 나는 여전히 꽃을 피우고 채소를 심으며 그곳을 가꾸고 있다. 온 가족이 살던 넓은 집인 만큼 허전함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나는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며 그 허전함을 달래고 있다. 근처 공장에서 남는 실로 취미 삼아 뜨개질을 하고,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좋아했던 수학 문제도 풀고 마당에 있는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들을 관리하다 보면 하루가 어느새 지나가 있으니 혼자 지낸다고 해서 외로울 새도 없다.

요즘에는 매일 성북구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인지 훈련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치매로 기억력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늦은 나이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혼자 사는 내 걱정에 자주 전화를 걸어오고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자녀들의 노력이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더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 하루를 더 알차고 부지런하게 보내기도 한다.

지나간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즐거운 날들도 많았지만 분명

힘든 일들도 많았다. 그러나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기에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저 좋은 일이 되는 것이다. 나는 내 모든 삶을 아끼면서 살아왔기에 매 순간 힘든지도 몰랐으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나의 모든 길이 꽃길이었다. 나는 여전히 다가오는 모든 날을 아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보내오고 있으며 그러므로 앞으로도 나는 꽃길을 피워낼 것이다.

자원봉사 작가 후기

..... 윤은선

어르신을 처음 뵈었던 날 매우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잘 써내고 싶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평소 새로운 사람을 대하는 것에 미숙하고 특히 어르신 분들을 어려워했던 탓에 더럭 겁이 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어르신께서는 매번 저희를 환히 반겨주셨고 저희가 부족하고 서툴렀음에도 선뜻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르신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그저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인생 선배가 들려주는 경험담이자 조언같이 들렸기에 인터뷰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어르신께서는 지난날 겪었던 어떤 상황이든, 사람이든 밋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날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오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 자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 재고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는 한순간도 저희를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언제나

고맙다며 존중해주셨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은연중에 갖고 있던 어르신들에 대한 편견을 깨버릴 수 있었고 삶에 대한 태도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봉사에 참여하여 인생에 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어 진심으로 영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귀한 이야기로 다시 경험 못 할 값진 시간을 선물해 주신 조남운 어르신께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채현

‘우리의 생애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별거 없는 내 삶도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기억지킴 자서전을 준비하면서 이제야 비로소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어르신께서 들려주신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이자 이야기였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할 때 어르신께서 모든 일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 계속 가슴 한편에 남아있습니다. 해주신 모든 이야기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삶의 의구심이 들 때마다

다 꺼내 보겠습니다. 부족한 제 글이 어르신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인생의 한 조각을 선물해 주신 조남운 어르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화 02-918-2223

홈페이지 seongbuk.seouldementia.or.kr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63 성북구보건소 5층

나는 가족재단사로서 내 청춘을 바치며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고 그 덕분에 나는 내 힘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었다. 당시 여성의 힘으로 경제활동을 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흔치 않았을 뿐더러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나는 온전히 내 힘으로 그들을 건사하였고 나는 지금도 그 점이 무엇보다 자랑스럽다. **조남운** 『나라는 꽃을 피워내기까지』

가끔은 쭈였을 적 녹음해놔던 그 메들리를 들으며 지난날을 다시 기억해본다. 유난히 낮이 길었던 어느 날에 느지막이 찾아왔던 저녁노을. 조용히 눈을 감고 익숙한 목소리에 몸을 맡기면 어느새 나는 그 시절 그 자리로 향해있다. 샛노란 빛들이 쏟아지고, 청아한 바람이 스쳐지나가며 나를 감싸주던 그 밤. 시원한 향기를 마시며 달빛이 비치는 조그마한 강줄기 옆에서 잊지 못할 사람들과 함께했던 기억하고 싶은 그날 밤, 그 자리로 날 데려다준다. **정용운** 『지나간 모든 순간에 대한 그리움의 회고』

요즘 저는 험프게 잘 웃고 다닙니다. 예전에는 이런 웃음도 신경이 쓰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누가 보든 누가 뭐라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항상 열심히 살고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니, 저는 치매가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치매야~!!! 영원히 지구를 떠나라!!” **신혜수** 『사랑과 베품으로 웃고 울었던 날들이여』